



8

1978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78. 8호

(루계 370)



◆◆◆◆◆◆◆◆ 차 례 ◆◆◆◆◆◆◆◆

조국의 산과 바다 별에 부치여	4
영원한 흐름	5
가신고개 바라보며 기다릴때에 외 2 편	18
가을에 사는 마음	18
논머리에서	19
날마다 달마다	20
들끓는 땅	21
넘겨주고 넘겨받는 순간에	22
비약의 나래 펼친 충성의 탄전이며	23
동점령삭도여!	24
말없이 남기는 그 기록속에	25
교 원	26
가고싶은곳	34
수도의 밤이여	43
만능선 갑판우에서 부른 노래	44

명절날	45
영원히 당신과 함께	46
우리는 당신을 흠모합니다.....	46
무지개 비낀 리상촌	47
다듬은 말	48
시대의 본질과 특징을 깊이있게 밝혀낸	49
표현수단과 수법들.....	49
단조공의 미소속에.....	51
문예작품의 개성적특성과 구성의 독창성	52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리자.....	57
건설장에 울려 퍼진 시인들의 목소리	62
행복의 이슬에 젖어 읊어보는 시.....	63
충성의 노래 높이 부르며 전진해가겠다	64

조국의 산과 바다 별에 부치어

김정곤

내짚는 한발자욱 한걸음에도
너무도 벅찬 행복이 나를 향해 물결쳐 일어서는 땅
산은 산마다 나를 위해 보화를 쏟아내고
바다는 또 마음껏 희망을 피라고 저렇게도 가없고
내가슴에 가득히 행복을 쏟아부을듯
별들은 밤마다 하늘에 무수히 영글어라

그 어디에 가도
그 어디를 보아도
행복에 젖는 가슴
조국의 산과 바다 별을 두고
생각은 깊어지노라

바다가 내 마음이라면
저 백두산말기로 길이길이 파도쳐가
이 행복을 위해
장군님 헤쳐오신 혈전의 길우에
맑은 샘이 되어 솟았으리라

이 혼하디 혼한 물방울이 그리워
격전장에서 가슴 타마르던 그날에
오, 나는 장군님 모시고 온 투사들에게
따뜻한 물 한모금 드리지 못했구나

산악들아, 네가 내 마음이라면
밀림의 바다 그 어느 오솔길에
어깨가 되어 일어섰으리라
그처럼 무거웠던 조국의 운명이
장군님 어깨우에 얹혀있을 때 나는

이 실한 잔등으로 한번 받들지 못했으니
하늘의 별들아
네가 내 마음이라면
다투어 이 땅에 내려
그처럼 험난한 세월을 넘어온
그 자욱자욱에 보석을 깔아놓았으리라

장군님 모신 항일투사들
허리치는 눈길로 해방을 안아올 때
오, 나는
숫눈길 한번 끌어드리지 못했으니

아 아, 그처럼 간고한 세월
이 혼하디 혼한 물 한사발도 떠드리지 못한 나에게
이처럼 창창한 바다와 산과 하늘
이처럼 눈부신 행복의 별들을 머리우에 뿌려주셨으니

바다야, 산들아
네가 내 충성이라면
아버이수령님께 바치고 바쳐
산이 닳고 바다가 다한들
어떻게 이 은덕 다 갚는단말이나

준엄한 그 세월에 안아온
너무도 소중한 이 행복이
세월과 함께 더 높아지며
나를 향해 나를 향해
끝없이 물결치며 달려오고있으니!

영원한 흐름

로정의

1

지배인 림성백은 키가 좀 작고 몸이 뚱뚱한 편이나 매우 다부져보였다. 머리에 흰서리가 덮이게 되자 상고머리를 하여 외모로나마 패기를 돋구어보려 했으나 아래로 내려오면서 점점 넓어진 등글넙죽한 얼굴에는 건잡을수 없게 주름살이 잡혔다. 하긴 이제 석달을 넘기면 60돛 생일을 맞이할 그였다.

그는 문을 열고 나서자 매우 성깔진 걸음으로 아래층의 한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의 두손은 삼복더위인데도 흰 여름저고리주머니에 질러있었다. 이젠 그가 기분이 언짢았을 때 하는 버릇이었다.

《최형진동무에게 제기받은게 있소?》

굵은 목소리로 묻고난 림성백은 사람좋은 인상을 보여주던 버덩이를 감싸며 턱살까지 울리밀어 입술을 꼭 다물었다.

박준호과장은 틀지게 놓은 책상앞에 엉겨주춤 일어섰으나 아예 기가 눌리워 얼른 대답을 못했다.

림성백은 대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재차 따졌다.

《어째 현장에도 가보지 않고 부결했소?》

림성백은 기업소적으로 기술이 제일 능하고 실무가 밝아 사무실안에서도 그 영민한 눈으로 현장을 다 볼줄 알기에 믿음이 커던 박준호에게 가시돋은 듯한 눈초리를 날카롭게 쏘았다.

박준호는 오해를 풀 매듭을 찾았는지 살갓이 류달리 하얀 얼굴을 천천히 들었다.

《최형진동무의 발기는 참으로 놀랄만합니다. 파에서는 곧 기술협회의회를 열었었습니다...》

그는 남을 설복시킬줄 아는 말재주로 기술공정을 아주 재치있게 해설하고나서 이렇게 아귀를 지었다.

《...그러니 어차피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모험입니다. 그래두 로동자들의 발기였기에 중앙에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처에서도 반대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누그러지는가싶던 림성백은 별안간 손을 들어 천정을 가리켰다.

《이 천정이 무너져내릴가봐 겁나지는 않소?》

림성백은 안전규정과 어긋나는 사소한 요소라도 보면 대뜸 《이사람아, 전기란 사정이 없단말이야. 그래 자네 목숨이 돌인가?》하면서 티끌만한 용수도 없었다. 그래서 로동자들이 이롭지는것이 《안전지배인》이었다. 박준호는 만약 최형진의 제기를 지배인이 받았다면 《잘은 덤벼친다, 그래 자네 목숨이 돌인가?》하고 잘라버릴것은 뻔한 일이여서 시비가 없을줄로 믿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배

인의 얼굴에는 노염기가 가시여지지 않고 목소리는 더 거칠어졌다.

《과장동무는 최형진이와 한마음이 아닌것 같소.》

이렇게 불줄기를 퍼붓는통에 그러잖아도 소심한 박준호는 무슨 일인가 더 잘못된것이 있는것 같아서 겁이 났다.

자기 사무실로 되돌아온 림성백은 종시 앉지를 못하고 우두커니 선채 아침에 박준호가 책상우에 펼쳐놓아준 설계도면을 내려다보고있었다.

이즘 도송배전부는 철도전기화공사에 어깨를 들이밀었다. 담찬 전공들은 산이면 산을 넘고 강이면 강을 건느며 전기줄을 끝추 늘어갔다. 그런데 궤도 전기줄 한 경간만은 도저히 늘일수가 없어서 이발 빠진듯 비워놓았다. 한것은 그 철길우로 특고압송전선이 +자로 가로건너갔는데 전기줄이 활동처럼 밀으로 처져서 궤도전기줄을 늘일수가 없었기때문이었다. 철길옆에 서있는 47호철탑을 9메터나 더 높여야 특고압송전선밀로 전기기관차가 안전하게 달릴수 있었다. 47호철탑을 높이자면 전기를 끄고 철탑을 해체했다가 조립해야 하기에 보름은 실히 걸려야 했다. 림성백은 종업원들에게 전기를 끄는 시간을 짧게 하면서 철탑을 높일 방안을 찾도록 호소했었다.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였다. 그중에서도 박준호가 제기한 일주일간 정전시키고 철탑을 높일 창안이 제일 좋았다. 역시 박준호가 비상한 두뇌를 시위하여 사람들을 경탄시켰다.

그이상 더 좋은 방안이 없자 림성백은 평양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가하려고 떠나면서 정전시간을 더 짧게 하도록 머리를 짜보라고 일렀다.

림성백은 오늘 새벽차로 돌아왔다.

그간 박준호는 일주일간 정전시킬 설계도면을 완성하여 이렇게 책상우에 가져다놓았었다. 이제 남은 일이란 지배인이 결재를 하는것뿐이었다. 전기를 끄다는 말만 들어도 심장이 멎는것만 같아지는 데 한주일간 정전시킬 설계도면에 결재를 하자니 손이 떨렸다. 그는 몇번이나 원주필을 들었건만 끝내는 수표를 못했다.

이때 새하얀 전화기가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철도전기화공사장에서 오는 전화였다. 철탑을 빨리 높여야겠다는 독촉일것이다. 손에 쥔 송수화기는 쇠덩이처럼 무거웠다.

《지배인동집니까?》

《허 이거, 최형진의 목소리구만. 그래 잘 있었소?》

《아- 오셨구만요 …》

《독축이 심하겠지?》

《불형이가 꿈무늬에 달렸수다. 우리때문에 전기 철도 개통식이 늦어질것만 같으면서 공사장에서는 여간만 근심이 아니우다. 그런데 지배인동지, 과연 설계를 완성했다는데 그게 정말입니까?》

《그렇소. 나도 수표를 하려던 참이요.》

《예? 그럼, 지배인동지도?…》

말꼬리가 시들어졌다. 그만 실망하구 송수화기를 놓아버린듯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좀후에야 맥빠진 목소리가 다시 울리었다.

《내 그럴줄 알았수다.젠장, 겁이 나니까, 우리의 발기를 헌신짝 버리듯할거야 변하지요.》

《발기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사연인즉, 최형진이 전기기를 한순간도 끄지 않고 47호철탑을 높이겠다는 기적적인 제기였다. 림성백은 백지 한장을 내놓고 그의 설명을 도면으로 옮겨보며 전화를 받았다. 내용이야 어땠든 전기를 끄지 않고 공사를 할수 있다는 유능한 산줄공의 우렁찬 목소리가 그의 흥벽을 광황 두드렸다.

송수화기를 놓기 바쁘게 박준호를 찾아갔었는데 그만 실망하고 돌아온 지배인이었다.

림성백은 량쪽 팔굽을 움켜잡고 방안을 거닐었다. 최형진의 발기를 쫓아 가능성의 실마리를 잡을라치면 박준호의 목소리가 가차없이 짓뭇개버리는 것이었다.

박준호의 견해는 이러하였다.

최형진의 발기는 아직 전력공업력사가 알지 못하는 엉뚱한 것이었다. 그는 47호철탑안에다가 20미터나 되는 나무대봉을 세우고 활차장치를 한 다음 전기가 흐르는 철탑허리를 끊어 공중 들렸다는 것이다. 가령 사람을 대봉으로 친다면 철탑안에 들어가서서 팔을 아래로 벌려 철탑밑등을 들어올리는 격인데 착상은 놀랄만한 것이다. 철탑을 허공에 들고 9미터공간이 생겼을때 그 사이애다 조립한 철탑을 이어댄다. 그런데 46호철탑은 공교롭게도 강건너 산꼭대기에 있어서 47호까지는 경간이 무려 540미터이고 반면에 48호쪽 경간은 보통 규정대로 250미터이다. 전기줄이 달린 철탑을 허양 들면 46호쪽 인장력이 끌어당기기 마련인데 40톤이나 되는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면 대봉도 꺾어질수 있다는 것이다. 최형진은 이걸 방지하기 위하여 48호쪽에다 벌이줄을 매어 권양기로 당기면 인장력의 균형도 생기며 철탑의 중심도 보장할수 있다는 것이다. 말로는 가능하다. 그런데 송전선에는 22만볼트가 가압되어있다. 그런 전기줄이 6줄이나 건너간 짬을 찾아 벌이줄을 매놓으면 전기줄과 합선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그래도 최형진은 우기기를 자기들은 산줄공이기에 벌이줄과 전기줄이 합선되지 않도록 산줄작업으로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산줄작

업이란 전기가 흐르는 전기줄을 쥐고 일하는 특수 작업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의 산줄작업방법은 아직 실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느니만큼 이것은 최형진이 스스로 위험을 무릎쓰고 실험작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기술이 어린데다가 1센치 편차도 허용되지 않는 규정작업을 덤벼치기로 유명한 최형진에게 시킨다는것은 그의 희생을 승인하는것과 같다는 것이다.

말만 들어도 끔찍스러웠다. 손가락 하나 다친 일이 있어도 사고심의회를 열고 가차없이 책벌을 주던 림성백이었다. 그렇다면 박준호가 준 결론은 나무랄데 없지 않는가? 그런데 자기는 어째 그를 꾸짖고 나왔는가? 그의 얼굴이 겁에 질려있어서였던가? 그런것도 작용했다. 그가 현장에 나가지 않았기때문이었던가? 그것도 불쾌했다. 그러나 보다는 그가 일주일간 정전시키는 창안에 만족했기때문에 기분이 언짢았다.

박준호의 설계도면우에는 아까 전화를 받으며 최형진의 발기를 도면으로 그려놓은 16절지가 놓여있었다. 그 종이는 바람에 귀를 나풀거리다가 바람이 훑 불어치자 버림을 받은듯 곤두서며 휴지처럼 날렸다. 림성백은 응접대 한쪽으로 말리어 날리는 종이를 덮치듯 잡아쥐자 제자리에 놓고 잉크병을 지질러놓았다.

밤은 소리없이 깊어만 갔다. 종업원들도 다 퇴근한 모양이었다. 다만 아래층의 어느 한방에서 불빛이 뜨락으로 흘러내리고있었다. 아마 박준호가 아픈 말을 새길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림성백은 여전히 방안을 거닐고있었다. 대담하게 결심을 내렸다가는 도리를 짓고 또한번 결심을 내렸다가는 도리를 저으며 …(하여간 래일 현장에 가보고 결심하자…아니, 래일? 전투원들은 돌격하기를 바라는데 지휘관이 잠자리에 들수야 없지. 지금 가자.)

림성백은 손목시계를 보았다. 0시47분, 운전사도 퇴근한 뒤였다. 그러나 그는 먹은 마음 굵히지 않고 회색모자를 머리에 얹었다. 그는 사무실을 나서자 재빠른 걸음으로 운전사네 집을 찾아갔다.

2

승용차는 굵이굵이 령길을 휘감듯 썰렁 오르고있었다. 단숨에 300리길을 이어대려고 쾌속으로 달렸다. 운전사옆에는 림성백이 앉아있고 뒤자리에는 박준호가 최형진의 발기를 그렸다가 부결했던 도면을 들여다보고있었다.

림성백은 지뽀동하니 닫아버린 박준호의 입술에 웃음을 피워보려고 이야기관을 벌려놓았다.

《이번에 평양력관방에서 김철억동무가 아주 멋진 이야기를 했다오. 허허.》

박준호는 김철억이와 동기동창이어서 귀가 솔깃했다.

《그 사람이 혼자서 송전선순회를 떠났는데 글썽음을 만났는지 않소?》

《곰을요?》

《참 장관이었소. 글썽 그놈을 잡자고 접어들었다오. 맨손으로말이요.》

《그친군 모험가였지요.》

《통이 큰것 같더군. 철탑밑에서 곰이 덤벼들 때 주머니에 모래를 가득 넣고는 재빨리 철탑으로 올라왔다오. 곰도 그가 하는대로 족장목을 잡고 어슬렁어슬렁 따라오르더라오. 꼭대기까지 달고 오른 다음 잡힐듯말듯 풀려주니까 잔뜩 찌프린 상통을 치여들고 노려보더라오. 이때다 하고 모래를 와락 뿌리니 곰은 눈을 뜰수가 있었겠소? 허양 나떨어지더라오. 허허...》

세사람은 통쾌하게 웃었다.

《그 바람에 그사람에게 <곰지배인>이라는 딱지가 붙었다고요.》

박준호는 웃다 말고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그 친구 지배인이 됐습니까?》

《몇달전에 임명됐다고요. 기사장때 소문을 내더니...》

박준호는 어둠이 짙 들어찬 차창밖을 초점없이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내 한번 몰아볼가?》

한바탕 웃고나서도 졸음이 자꾸 오는지 눈을 썩썩 비비는 운전사를 보며 이렇게 말한 림성백은 앞에 있는 쇠서랍에서 자기 장갑을 꺼내어 손에 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이란 티끌만큼도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정력이 뿜기고있었다. 하기는 수천명 종업원들중에서 《지배인아바이》로 늙은이 취급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저 《지배인동무》로 통했고 뒤에서는 가끔 《청년지배인》, 《안전지배인》이라는 부름을 입에 올리곤했다.

서드러운 찬바람이 조향륜을 돌리는 림성백의 얼굴을 시원하게 식혀주었다.

번뜩이는 용접섬광, 용암처럼 끓는 전기로의 불광이 어둠을 밀어버리는 공장지구와 유아동이 별처럼 널린 논밭이 엇바뀌어 흘러오고 흘러갔다.

조국의 숨결은 이 밤도 칠줄 몰랐다. 이 시각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저런 거세찬 숨결을 이으시려고 생산실적도 검토하시고 걸린 고리를 찾아 장거리전화도 하실것이다.

그 모습이 떠오르자 림성백은 눈곱이 뜨거워졌다. 한와트시의 전력이라도 옷이 되고 쌀이 되게 하시려고 심려하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나라의 10분의 1이나 되는 지역에 일주일동안이나 전기를 못보낸다는것을 아시면 얼마나 안타까와하시겠는가.

《과장동무.》

뒤에서는 기척이 없다. 림성백은 박준호를 보려고 고개를 돌리었다. 순간 심장의 아픔을 느꼈다.

박준호는 만시름을 다 잊고 깊은 잠에 들었다. 벌써 잠든지 오랜것 같았다.

(잠이 온단말이지...잠이 온단말이지.)

림성백은 고개를 약간 들며 안타깝게 한숨을 쉬었다.

(밤이란 잠을 자기 위해서 마련된것으로, 혁신을 기존방식의 반복으로 생각하며 한생을 보낸다면 그게 무슨 보람이겠소? 동무나 나나 어버이수령님의 품에서 비로소 삶의 가치를 찾아 날개를 폈소. 동무는 해방전에 몇해 살지 않았으며 그나마 어렸으니 잘 모를수 있을거요. 후-나는 피눈물을 뿌리며 살아왔소. 어머니의 치마꼬리를 잡고 다니며 밥을 빌어먹던 유년시절이 꼴머슴의 소년시절로 이어졌소. 16살 어린 손아귀에 8인치짜리 뺨찌를 쥐였으나 길가에서 채우고 밝히우는 조약돌이었소. 그런 내가... 해방직후 어느날이었소...)

그날을 돌이켜보는 림성백은 눈곱이 뜨거워졌다.

...파괴된 공장을 일떠세우시려고 현지도도를 나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수원들과 함께 거리에 나서시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연기가 멎은 굴뚝, 불탄 공장, 허리부러진 전주 ... 일본놈들이 파괴하고 간 조국의 모습을 가슴아프게 바라보시며 걸으시었다. 문득 걸음을 멈추신 그이께서는 쪽 뺨어간 길가에 빛나는 안광을 비치시며 처음엔 약간 놀라시더니 인차 만족하신 표정을 지으시었다.

《우리 저 동무를 만나봅시다.》

장군님께서서는 손을 드시여 가리키시며 걸음을 돌리시었다. 거기엔 외로이 전주위에 올라가 일하는 전공이 있었다. 전주밑에서는 열둑살 나보이는 소년이 무엇을 울려던지는데 전주꼭대기에서 아래로 팔을 길게 드리운 전공은 끝내 잡지를 못했다. 소년은 자꾸 던지였으나 맥이 진하여 나중에 불과 뒤메터밖에 오르지 못했다. 장군님께서 현장에 이르시여 눈물이 다 글썽해진 소년의 손에서 뒤흔되는 수나사를 넘겨받으시자 전공한테 울려던져주시었다.

전공은 그것을 넘적 받아쥐며 검실한 얼굴에 웃음을 피웠다.

《고맙습니다.》

소년은 토스레 무릎바지에 더덕더덕 기운 적삼을 입고있었는데 피골이 상접한 여윈 아이였다.

장군님께서서는 가위눌리워 기를 펴지 못하고 시들은 소년의 정상이 몹시도 가슴아프시었다. 저렇게 지르밟혀온 소년, 소녀들이 수십, 수백만을 헤아릴것이다.

장군님께서서는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시며 물으시었다.

《너 몇살이지?》

소년은 대답올릴 말을 찾지 못하여 구원이라도 청하는듯 때마침 일을 마치고 전주에 삼발을 찍으면서 내려오는 전공을 쳐다보며

《형.》

하고 불렀다.

동생을 내려다보던 청년은 가슴이 뭉클하여 내려오던 걸음을 멈추었다. 아까 나사를 던져주시던 고마우신분이 여적 계시었다. 그분은 채찍만이 드리워지던 동생의 머리와 토스레를 걸친 등을 따듯이 어루만져주시는 것이었다. 동생이 귀염을 받는 것이 눈물이 나도록 기뻐다.

청년은 땅우에 내려와서 동생을 대신하여 대답을 올렸다.

《열두살입니다.》

장군님께서 청년에게로 시선을 옮기시었다. 매우 예민하고 활발한 성품이 엿보이는 청년이었다.

장군님께서 무릅없이 전기줄에 굽히워 흠집투성인 청년의 투박한 손을 잡으시고 손등을 어루만져주시었다.

청년은 너무도 뜻밖에 환대를 받자 그만 당황해졌다.

《이 전기줄은 어디로 가는겁니까?》

청년은 꼭대기에 까치둥지가 있는 공장굴뚝을 가리켜 올리며 황송하게 말씀드렸다.

《저 공장으로 가는 전기줄입니다. 저 굴뚝에서도 연기가 나야겠는데 아직 전기줄을 이어주지 못했습니다.》

청년은 전기줄이 끊어져 타래쳐진 것이며 완목이 동강나고 애자가 마사진 것이며 전주가 허리 부러진 모습을 애라는 눈으로 보고있었다.

장군님께서 이제 청년이 이어나갈 어지러이 흘러진 전기선을 바라보고계셨다.

왜놈들이 조선사람은 전기설비를 운영하지 못한다고 떠벌였지만 장군님께서 해방된 조국에 무엇인가 보탬을 하려고 일손을 잡은 이 청년을 통하여 전력공업의 창창한 미래를 내다보시었다.

《동무의 이름은 뭐니까?》

《림성백이라고 부릅니다.》

《전공일은 몇해나 했습니까?》

《열두해나 됩니다.》

《참 좋은 기술을 가지고있습니다.》

《예? ... 왜놈들은 전보군이 사람질을 하면 전보대에서 꽃이 핀다고 했습니다. 길가에서 채우고 밟히우는 돌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살아도 고통스러운 것이 전공이고 죽어서도 개만 못한 것이 전공이라고 했습니다.》

슬프고 가슴이 저린 원망을 하소하는 청년의 얼굴에는 구슬픈 빛이 언뜻 지나갔다.

사람이면서도 짐승취급을 받아온 청년의 오그린 어깨를 잡으신 장군님께서 가슴을 벌려주시었다.

《인젠 가슴을 쭉 펴시오. 동무는 나라의 주인입니다. 더는 동무의 인격을 모욕하지 못할것입니다. 왜놈들은 전보군이 사람구실을 하면 전보대에서 꽃이 핀다고 했지만 우리는 동무를 전주우에 핀 꽃으로 봅니다. 이렇게 조국건설에 나서준 동무를 보니 나도 기운이 솟습니다.》

《예?!》

스물여덟해를 살아왔지만 자기 존재가 너무도 보잘것없어서 설음겹던 성백이었다. 그런 자기를 나라의 주인으로 떠밀어주시다니?

(인자하신 이분은 누구이실가?)

성백은 온 세상을 한눈에 굽어보신듯, 만사람을 한품에 안으신듯 너그럽고 인자하신분을 경건해지는 마음으로 높이 우러렸다.

이때 수원 한분이 장군님께 조용히 말씀을 올렸다.

《장군님, 회의시간이 다됐습니다.》

순간 성백은 뒤로 한발자국 물러섰다. 가장 행복 한 순간을 맞이하였건만 성백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 눈만 습빳이며 자기 귀를 의심했다. 설마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수한 옷차림으로 한갓 전공과 허물없이 말씀하시라싶어 그저 꿈만 같았다. 그러나 그는 이 순간이 꿈이 아니기를 바랐고 꿈이라면 깨어나지 말기를 바랐다.

(김일성장군님!)

속으로 우러르는 성백의 심장은 감격으로 세차게 뛰놀았다.

《장군님!》

성백은 목메게 우러렸다. 그의 달아오른 눈에 고였던 눈물이 넘쳐나 눈시울을 젖히며 흘러내렸다.

성백은 동생을 자기옆에 함께 세우며 머리를 깊숙이 숙이며 인사를 올렸다.

《장군님, 고맙습니다.》

장군님께서 성백의 손목을 굳게 잡으시었다.

《성백동무, 우리 함께 손잡고 공장과 마을에 전기를 보내줍시다.》

《장군님!》

성백은 가슴을 짹 벌렸다. 그는 오늘 자기도 가장 존엄있는 인간이며 제 마음껏 이 땅을 확보하며 생활을 향유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있음을 알았다. 그런 빛나는 생을 장군님께서 안겨주시었다.

(장군님! 저는 오늘 장군님의 품속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늘은 저의 생일입니다... 장군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장군님을 위해 한몸 바치는 전공이 되겠습니다.)

성백은 동생의 손을 잡고 서서 장군님을 오래도록 우러렸다...

돌이켜보면 지난 30여년은 자기에게 크나큰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부모를 대신하여 추울세라 더울세라 돌봐주시었으며 공부를 하라고 학교에도 불러주시면서 지배인으로까지 키워주신 어버이 수령님의 사랑의 력사로 흘러왔다. 그런데 어제 신문에는 한일도 없는 자기에게 공훈전력공칭호를 수여한다는 정령까지 발표되었다. 그 사랑, 그 은덕을 받아안자니 너무도 벅차고 너무도 감격스러웠다.

림성백은 얼굴을 돌려 뒤를 돌아보았다. 의자등받이우를 베개삼아 고개를 젖히고 자는 박준호의 얼굴에는 고요가 깃들어있었다.

(과장동무, 우리는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새로 태어나 그이의 사랑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세대들이요.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인민을 더 잘 먹이고 더 잘입히게 하시려고 애쓰고계시겠는데 우리가 그이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전기까지 꺼서 심려를 끼쳐드린다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터지는것같소...어떻게 하나 전기는 끄지 말아야겠소.)

승용차는 어둠을 간신히 헤치며 달렸다. 새날이 밝아올무렵에야 전공들이 숙영하고있는 천막에 이르렀다.

림성백은 차에서 내리자 곧바로 천막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단잠에 푹아떨어진 전공들을 정겨운 눈으로 둘러보았다. 갈끔질에 제 베개는 잊어버리고 옆사람의 다리를 베고 자는 꼬마전공, 펼쳐든 책을 가슴우에 놓은채 잠든 《전공시인》, 청년들의 성화에 구석쪽으로 쫓기였으나 버릇을 뗄수없는지 드르릉-가르릉-코골내기를 하는 나많은축들...

《허, 이너석 배탈날라.》

입속으로 뇌이며 어린 전공의 배를 모포자락으로 가리워주었다. 림성백은 한구름 가득한 제자식같이 믿음이 가고 신심이 생겼다. 그들은 마치도 어서 결론을 내리라고 독촉을 하는것 같았다.

그는 밖으로 나왔다. 신발을 벗고 바지가랭이를 걸어올린 그는 산발이 가위다리모양으로 뻗어간 사이의 골개논복판에 네다리를 뿌리박고 거만하게 서있는 47호철탑을 바라고 자라난 버를 헤집으며 저벅저벅 걸어들어갔다. 웬 사람의 형체가 철탑우에 있었다.

《게 누구요?》

대답도 없고 아무리 지켜보아야 움직이지도 않았다.

(일을 하다가 쓰던 공구를 그냥 두었을까?)

하긴 어스름해서 뭐가 뭇지 분간이 되질 않았다. 그는 족장목을 엿바꾸어지면서 철탑으로 오르기 시작하였다. 날이 갈수록 느끼는바이지만 몸이 가볍지를 않았다. 열메터도 못올랐는데 입안에서는 겨불내가 풍겼다.

(인젠 나도 늙은가보군.)

문득 요즘 집을 나간 자식들이 60뿔 생일상을 차리겠다는 편지를 날려보내며 자기에겐 늙음을 강요하던 일이 떠올랐다.

《제발 그만두라구 하오. 60뿔 생일이 다 뭐요. 허허...내가 그렇게 늙어뵈여?》

《에그 쫓쫓, 제머리 흰줄이나 아우...이제 몇년 더 살겠다구 젊은이들과 달릴대기를 하우? 제발 몸건사나 잘하우. 이 좋은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아야 할게 아니우?》

《오래오래 산다-허허, 거 좋지, 두고보오, 내사백년을 살지 않나...》

하고 큰소리를 쳤던 일이 바로 며칠전이었다.

(정말 60뿔 생일상을 받아야 할가부다.)

그는 서글퍼졌다. 이미 한 일은 보이지 않고 앞으로 할 일만 눈앞에 가득차왔다.

돌덩이를 달아맨듯 무거워진 발을 올려디디자니 여간만 힘들지 않았지만 그는 씹없이 올랐다. 철탑은 27메터나 되었다. 철탑모서리쪽 가름대를 타고 앉아 기둥에 등을 대고 쪽잡에 든 사람은 뜻밖에도 최형진이었다. 금시 고개를 끄떡이다가 떨어질것만 같이 위태위태하였다. 아무리 날고뛰다는 전공이라지만 이렇게 우둔한것을 하는것은 보느니 처음이었다. 오히려 림성백의 편에서 가슴이 훌쩍이고 숨이 가빠지였다. 그런데 눈여겨보니 그의 허리에는 안전바가 매여있었고 그것이 철탑기둥과 든든히 련결되어있었다. 최형진이 방비대책은 잊지 않았던것이다. 그의 한손에는 방금 불빛을 거둔듯싶은 전지가 쥐여져있고 다른 손은 무릎우에 펼쳐놓은 도면우에 얹혀있었다. 자기가 그린 도면과 실물을 대조해보며 가능성을 탐구하려고 올라온것이 분명하였다.

(철탑을 통채로 들고싶어 못건디겠단말이지.)

그는 최형진을 깨우려고 내들었던 손을 겨두었다. 이렇게라도 더 채우고싶었다.

림성백은 옆으로 벌린 철탑의 팔쪽으로 나가려고 손전지를 켜들었다. 산형강우엔 이슬이 내려 몹시도 미끄러웠다. 발이 헛놓일것 같아서 몸이 오싹해났다. 그렇다고 되돌아설 생각은 없었다. 벌이줄을 맬 위치를 눈으로 따져보고 자로 재보아야 했다. 그는 네발걸음으로 엉금엉금 기었다. 아찔하게 높이 솟은 철탑의 팔끝에 앉으니 머리가 어질어질해났다. 그는 안전바를 든든히 땀다. 옷주머니에서 접이자를 꺼내들고 벌이줄을 맨 위치와 벌이줄이 대각선으로 내려갈 때 전기줄과의 각도를 재보았다. 만약 철탑이 중심을 정확히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 벌이줄과 전기줄이 합선되지 않도록 산줄작업을 하자면 어떻게 할것인가도 따져보았다. 박준호의 계산대로 가능하다는것은 확실할수 있었다. 그러나 산줄작업을 하는 사람이 약간의 편차라도 생기게 하면 무서운 사고를 야기시킬것은 뻔했다. 그러고보면 산줄작업이 최형진에게는 적당치 않다는 박준호의 견해에도 일리가 있었다.

림성백은 다시 최형진의 앞에 와서 가로건너간 산형강우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다. 최형진은 여전히 자고있었다. 우악스럽기로 소문났기에 림성백의 마음에 든 청년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드센 성미때문에 간간하고 침착해야 하는 일을 그르칠것만 같았다. 림성백은 담배를 한대 물고 성냥을 득그었다.

불이 확 일자 최형진은 눈을 떴다.

《누구요?》

열결에 물으며 보니 불빛에 지배인의 얼굴이 드러났다. 도저히 믿을수가 없었다. 몇시간전에 지배

인과 전화까지 했는데 300리길을 날아올수는 없는 계고.

(꿈인가?)

방금 그는 꿈도 꾸었었다. 지배인실에 가서 주먹으로 책상을 탕-치며 《지배인자리가 아깝소? 아니면 몸이 아깝소? 어느쪽이 무서워서 승인하지 않소? 우린 해내겠단말이요!》하고 주장했는데 지배인은 《그건 안돼! 그래 자넨 목숨이 돌인가?》하며 반대하기에 분하기 짝이 없었다.

《엑, 아직두 꿈을 꾸는군, 젠장.》

하고 중얼거리며 제머리를 탕 쳤다.

《흥, 꼴 좋-다.》

최형진은 눈을 치떴다. 분명 지배인이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우다?》

《정신 있소?》

《글쎄요. 뭐가 뭔지 좀 얼떨떨하우다.》

림성백은 단단히 혼찌검을 내주려고 대뜸 소리를 질렀다.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 밤에 철탑우에서 잠을 자? 6개월동안 철탑에 오르지 못하는 책벌을 줄테요.》

최형진은 볼부는 소리로 맞섰다.

《줄테면 주시우. 젠장, 지배인동지는 그렇게도 겁이 나우다? 이 허리바가 안보이우다?》

하며 자기의 허리를 동진 안전바를 툭툭 쳤다. 나이 많아질수록 검질기게 안전, 안전하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것이 최형진에게는 딱 질색이었다. 이런 지배인이 자기의 발기를 승인하리라고는 믿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자 그만 맥이 탁 풀렸다. 그렇다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야단이었다.

《젠장, 하여튼 이거나 봐주시우.》

그는 딱심줄계 픽-웃기까지 하였다. 림성백이가 지배인으로 임명된 해에 신입전공으로 입직한 최형진은 어언 열여섯해나 함께 일했다. 아버지 성미는 다 몰라도 지배인성미만은 행하니 께뽕고있었다. 자기를 만나기만 하면 덤벼친다고 욕설을 퍼붓지만 사실상 속으로는 제일 아껴주는 지배인이었다.

최형진은 재빨리 전지불을 켜들고 도면을 비치며 말을 터놓았다. 그의 말은 뽕다밀성만 있지 차근차근 설명이 되질 않았다. 한참이나 자기 창안내용을 설명하고나서 파장을 걸고들었다.

《과장동무는 산줄방법으로 한다는건, 흥, 뭐랬는지 아우? 젠장, 새끼냥은 범의 굴로 들어가는 격이라면서 부들부들 똬단말이우다. 내 원, 범을 잡으러 산에 간 사람이 범의 굴로 들어가길 무서워하겠수다? 젠장, 전기에 치울걸 겁내는 사람이 전력공학부는 왜 다녔답니까?... 우린 뭐, 도깨비라구 제 죽는줄도 모르겠수다? 나도 대학통신 3학년생이란말이우다! ...설마 한몫 바친들 뭐가 한이우다? 젠장, 우리는 혁명을 한단말이우다. 혁명을!》

최형진은 욱 욱 접어들었다. 비발치는 탄우속을 달려가라고 해도 주저없이 달려갈듯 기상이 표표했다.

《이 도면이 엉뚱해보이우다? 기술적으로 안되겠는가말이우다.》

림성백은 어쩐지 한마디라도 대답하지 않고 입을 을 깨물고있었다. 눈을 번쩍 떴다가는 다시 내려감기도 하고 얼굴에 그 어떤 결심을 다지는듯 근엄해지기도 했다.

《가세. 동이 터오는군.》

동문서답격이어서 최형진은 슬그머니 화가 났다. 마치도 《그건 안돼!》하는 말처럼 들려서 버럭 고함을 질렀다.

《후퇴했수다? 예?》

《허허...난 오래오래 살고싶는데...그래, 자네 목숨은 돌인가?》

갑자기 얼굴에서 엄숙한 빛을 거둔 림성백은 한쪽눈을 찌긔하게 감으며 풀려주었다.

《젠장, 그렇게 무서우면 지배인자리를 내놓수다. 내가 하겠수다.》

《지도원을 시키니 열흘도 못해보고 현장으로 도망간 동무가 지배인을 해? 하하...》

최형진은 잔뜩 약이 올랐다.

《이 공사의 지배인만은 자신있단말이요! 젠장》

림성백은 머리를 내저으며 절절절 웃어댔다.

《괜찮아. 대장부답게 해볼만하지.》

《?!》

맨 처음엔 퉁당같이 들렸는데 지배인의 손이 어깨우에 척 놓이자 최형진의 눈에서 꽃이 활짝 폈다. 너무나 기뻐서 지배인의 팔을 마구 흔들었다.

《젠장, 술생각이 나는데?》

《큰 공사를 앞에 놓고 한다는 소리인가?》

《축배를 들었으면 좋겠단말이우다. 하하...》

최형진은 머리를 내저으며 웃어대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웃음을 거두며 물었다.

《나를 믿지요?》

《믿지.》

《그럼 안심하고 돌아가시우다. 새머느리 맞을 준비를 해야지요? 이제 공사를 끝내고 한바탕 먹으러 갈테니 잘 차리시우다.》

림성백은 오늘 일요일에 첫 머느리를 맞이하게 되어있었다. 해방후에야 장가를 들어서 아들을 늦게 본 림성백이에게는 무척 기다려지는 결혼식이였다. 더구나 외아들이어서 안해는 요즘 들볶기만 했다.

림성백은 히죽이 웃어보일뿐 대답을 하지 않았다. 동녘을 붉게 물들이며 태양이 솟아오르고있었다.

이때 철탑밑으로 제혼자 자고난듯이 미안해서인지 고개를 숙일사하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박준호였다.

3

《과장동무, 나는 결심했소.》

《최형진의 발기대료요?》

《그렇소.》

《지배인동무가 책임져야 할 후과에 대해서도 녀두에 두고 하는 말인가요?》

《어떤 후과요? 사고날 후과말이요?》

《생각해보십시오. 만약 사고가 나는 날이면 지배인동지도 저두 면목이...》

《뭐? 면목? 그래 동무는 면목을 위해 혁명을 하지 말자는것이요? 뭐요?》

《성내지는 마십시오. 나는 지배인동무를 생각해서...》

《이거보. 과장동무, 내가 보건댄 동무가 지금 나를 동정하는것이 아니라 공포에 떨고있는 자기를 동정하고있소.》

두사람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오래도록 흘렀다.

림성백은 박준호에 대한 노여움, 곁이 속보다 먼저 늙는 데 대한 반항, 공사에 대한 우려가 서로 갈구리를 물고 가슴을 굵어내리는것만 같아서 그만 천막밖으로 뛰쳐나오고말았다. 흥분으로 달아오른가위에 한여름의 무더위는 그를 숨가쁘게 내리시켰다. 그는 마구 구겨쥐었던 모자를 아무렇게나 머리에 얹고 쾌활해지려고 애쓰면서 일터로 갔다.

림성백이 전공들과 함께 준비작업을 하고나서 철길쪽에 앉아 담배를 피워무는데 박준호가 다가왔다.

《저 방금 처에서 전화가 왔는데 우리가 현장에 있다니까 정전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해보랍니다. 정전을 시키지 않고 하는 일은 승인할수 없답니다.》

《그래 동무는 뭐라고 대답했소?》

《지배인동무에게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림성백의 무릎우에 놓인 손에서 제절로 타들어가던 긴 담배재가 허리를 꺾으며 바지가랭이우로 미끄러져내리면서 흐트러졌다. 그저 생각 같아서는 《동무자리에는 전기기사가 아니라 말잘하는 전달자만 앉혀놓으면 되겠구만.》하고 쏘아주고싶었지만 속에 깼쳐넣고말았다.

림성백은 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만약 동무가 정전작업이 보름이 아니라 단 일주일동안에 할수 있도록 창안했다고 자랑할수 있겠소? 전기를 보내는 사람의 량심으로말이요.》

《일주일이나 정전시키교야 무슨 자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그 주장을 내대오?》

《그래서 토의하자는게 아닙니까.》

《동무의 주장을 관철하는 토의말이요? 남의것은 무턱대고 안된다는 그 립장부터 고쳐야 하오. 만약 동무가 남도 아껴주는 립장에 섰다면 방금 처에서 전화가 왔을 때도 몸을 빼지 않았을거요...제아무리 잘 익은 열매라 해도 놓일데 놓아야 빛이 나는거요.》

《?!》

박준호는 고개를 들었다가 차마 지배인을 쳐다보지는 못하고 눈을 스스로 내리감으면서 다시 수그러졌다.

《나는 오늘 만약 경우에 제기될수있는 산줄작업이 동무가 것처럼 공포에 떠는 산줄작업이 전혀 예견되지 않도록 벌이줄위치를 바꿀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소. 지혜가 남아돌아가는 동무가 어째 이런 생각을 못하는가말이요.》

박준호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번에는 공사때문에 안전대책이 서지 않아 피곤과 고민이 얹힌 지배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눈에 피발이 엉키고 입술에 물집이 돋은 그의 고심을 보기가 거북스러워졌다. 지배인은 그저 웃고 떠들며 책임적인 공사를 주먹치기로, 우둔한 방법으로 하려든다는 불만도 그의 머리속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최형진동무의 발기에서 벌이줄위치를 바꾸도록 지혜를 짜보오. 설چه는 빨리 끝내야겠소.》

박준호는 지배인이 던져준 착상이 머리속에서 날개를 펴며 가능성으로 접근하고있음을 느꼈다.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박준호는 자신있게 대답했다. 안타까이 찾던 방도가 드디어 생겼다. 마음이 놓였다.

《과장동무, 그러나 만약 경우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만약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도 더 안전하게 만약 경우를 고려해서 산줄작업도 안전하게 할수 있도록 지혜를 짜보오.》

《어쨌든 파악이 없는 산줄작업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설چه하겠습니다.》

《그건 더욱 좋구.》

박준호는 몇발자국 달려가다 말고 되돌아왔다.

《저, 처에서 그러는데 며칠후에 공훈전력공칭호 수여식이 있답니다. 평양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랍니다.》

박준호는 제가 더 기쁜듯 싱글벙글 웃으며 말을 이었다.

《여러가지 경사가 겹쳤는데 빨리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소.》

4

아직 전력공업력사가 알지 못하는 공사를 한다는 소문은 삽시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이른 아침부터 구경꾼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었다. 논에서 돌피를 뽑던 농장원들도 일손을 놓고 논두렁에 나왔고 지나가던 길손도, 자동차도 걸음을 멈추었다. 철탑밑에서는 전공들이 바삐 달리고 그 둘레의 산에, 특히 구경꾼들이 앉아서 손에 땀을 쥐고있었다.

은빛이 번쩍이는 47호철탑안에 세운 20미터나 되는 대봉의 머리우에는 여러개의 활차가 달려있었다. 그 활차와 철탑밑에 설치된 활차사이로 철탑을 들어올릴 굵은 쇠바줄이 여러줄 늘어있었다. 중심을 조절한 벌이줄이 꼭대기에, 중간운데에 복잡하게 뻗어내렸다. 철길꼭대기에 설치한 8대의 인력권양기는 철탑을 드는것과 벌이줄을 조이고 늦추는 일을 맡았다.

림성백은 철탑을 드는 1번, 2번 인력권양기 사이에 떡 버티고 서서 손에 쥔 마이크에 대고 전투를 지휘하였다.

산소용접불로 철탑 중간운데의 네다리를 잘랐다. 이때 허공 들리는 철탑이 어느쪽으로 밀리는가 속을 죄였었는데 다행히도 철탑은 벌이줄의 도움으로 곧추서있었다.

림성백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커다란 고성기에서 울려왔다.

《1번, 2번 감아라!》

인력권양기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철탑은 드디어 자기 위치를 떠나 공중 들리기 시작하였다. 첫 성공이었다. 박준호가 모친한 설계는 벌이줄과 송전선이 합선될 우려도 없었다.

림성백은 땀을 흠칠 사이도 없이 팔을 내젓기도 하며 지휘를 하였다.

《들어라, 들어! 겁을 먹지 말고... 좋아... 좋아...》

실로 장엄하였다.

대봉에서 뱅뱅해진 벌이줄에서, 활차에서 쨍-쨍정-아츠러운 소리를 질렀으나 전공들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허리를 잘리운 육중한 철탑이 광염으로 벌린 6개의 팔에 전류가 흐르는 팔뚝같은 전기줄을 무겁게 거느리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모습은 실로 장관이었다. 구경꾼들은 박수를 쳤다.

그러나 일은 순조롭지를 않았다.

맨 꼭대기에 쏙은 공화국기발이 날리는것을 자주 살피던 림성백의 얼굴에는 점차 그늘이 짙어갔다. 바람세는 한나절이 기울자부터 세차져서 전혀 예상치 않았던 북쪽방향으로 철탑이 넘어질 우려를 던져주었다.

당황해난 박준호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바람을 고려해야겠소-바람을...》

그러지 않아도 림성백의 눈길은 뱅뱅해진 3번벌이줄에 박혀있었다. 그러나 끝내는 위험이 아가리를 벌리고 덤벼들고야말았다. 어데선가 와이끈, 쨍정-간담이 서늘하게 울부짖었다. 중심을 보장해야 할 벌이줄 조절이 잘되지 않아서 철탑은 큰 충격을 받으며 덜컥 북쪽으로 기울어졌다.

《대봉이 휜다-철탑이 넘어간다-》

겁에 질린 소리를 지르는 박준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해졌고 눈에는 온통 흰자위뿐이었다. 그는 천막쪽으로 달리고있었다. 미끄러지며, 엎어지며...

《작업중지-철탑에서 내리라. 빨리!》

림성백의 눈앞에는 전기줄과 벌이줄이 맞조이며 무서운 불통구리를 터뜨리면서 철탑이 부서질듯한 환각이 나타났다. 철탑을 더는 들수 없었다. 끝내 실패하고마는가. 림성백의 얼굴에서 하나, 둘 불어나는듯싶은 주름살은 푸들푸들 뛰었다.

그는 급히 현상태에서 더 기울지 못하도록 긴급 조치를 취하였다.

갑자기 어데선가 전화로 호출하는 겁에 질린 목소리가 림성백의 구령을 대신하는듯 무거운 정적이 깃든 전투장으로 흘러왔다.

《급전, 급전...큰일났소. 큰일... 빨리 620, 620...》

림성백은 소스라치며 몸을 우뚝 떨었다. 620이란 개폐소에서 이 송전선으로 전기를 내보내는 유압차단기번호였다. 너무도 돌변한 공사의 위험을 바로 잡으려고 박준호가 전기를 끄라는 지령을 하는것이 분명하였다. 림성백은 누구를 치기라도 하려는듯 주먹을 짊 쥐고 냅다뛰었다. 그가 천막안에 뛰어들었을 때는 박준호가 이미 송수화기를 놓은 뒤였다. 림성백은 손땀이 탁 풀리고 심장이 떡 멎는듯 억이 막혔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전류계를 보시며 씩없이 보내주시는 전기를 꺾다는 아픔, 공사를 수치스러운 종말에로 이끈 격분으로 갈기갈기 찢기듯 아파난 그는 주먹으로 휴대용전화기를 탕 치며 결상에 툇덩 주저앉았다. 그의 눈시울은 바르르 떨리고 입술이 마구 실룩거렸다. 불을 뿜는듯한 눈총을 박준호의 얼굴에 쏘았다. 위엄있고 기술이 능하여 학습때나 회의때나 번지르르하게 토론하던 박준호에게서 말만 하고 실천할줄 모르는 본심을 들여다보았다. 그 초라한 물골, 값없는 육체적생명만이 살아움직이는 물골을 보자니 눈이 아팠다.

림성백은 우선 사태부터 수습하여야 했다. 아직은 전기를 꺼야 할 위험에까지는 이르지 않은만큼 우선 전기부터 보내야 하였다. 그는 전화기 번호를 돌리려고 수화기를 쥐었다. 이때 박준호의 하얀 손이 솔뚜쟁같은 지배인의 손우에 얹혀졌다.

《저리 비키오. 겁쟁이같이니라구.》

림성백은 꼭 다문 입을 마구 실룩거리면서 숨김없이 박준호를 멀리했다.

《전화를 걸 필요는 없습니다.》

《전기는 보내야 하오.》

《전기는 끄지 않았습니까.》

《??》

림성백은 안도의 숨이 후-나갔다. 그제야 옷설으로 얼굴의 땀을 문질렀다. 그는 박준호가 급전을 찾았으나 차마 전기를 끄라는 말만은 못했음을 알았다.

《그러나 전기는 꺼야 합니다.》

《??》

《4시간만 끄시다. 산줄작업으로 사태를 수습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견했던 산줄작업보다 더 위험한 조건이 조성되었습니다. 4시간이면 공사를 끝낼수 있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을 했댔소. 난관이 앞을 막았소.》

이때 최형진이 달려왔다.

《어떻게 하십니까? 예?》

그렇게도 용감하던 최형진이조차 사태가 전혀 예상치 않게 돌변하자 지배인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빨리 급전에 지령하십시오.》

박준호는 독촉을 하면서 급전을 불러주려고 전화를 잡았다. 급작스레 림성백의 손은 박준호의 손을 덮쳤다. 그의 손은 부르르 떨렸다.

《전기는 꺼야 합니다.》

《안되오! 네시간을 가지고는 공사를 못할뿐 아니라 단 한시간도 정전시킬수 없소.》

림성백은 전화를 밀어버리며 딱 잘랐다. 입을 덜덜 떨기 시작한 박준호는 참지를 못하고 왈칵 성을 냈다.

《지배인동무가 이럴줄은 꿈에도 생각못했습니다. 어쩌서 갑자기 사람의 목숨이 그렇게도 귀해 보이지 않는단말입니까?》

《사람의 목숨이 어쨌다고 야단이요?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남들이 위험구역에 있는데 여기까지 도망쳐왔소?》

《그 어떤 위협도 육설도 닦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백마디 충고보다 한마디 안전대책이 필요합니다. 안전대책말입니다.》

림성백은 대답할수가 없었다. 대책, 안전한 대책?! 과연 그 열쇠는 무엇인가!

《주저할게 있습니까? 산줄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최형진이 하자는 산줄작업이란 리론적으로만 안전한 작업이었다. 이런 경우의 산줄작업은 그 누구도 해본 일이 없었다. 만약 경우, 1센치 편차라도 생기는 만약경우에 실패할수도 있었다. 실패는 곧 희생, 대전기사고를 의미하였다. 과연 지배인이 이런 작업을 최형진에게 시킬수 있겠는가.

《지배인동지는 정말 늑었습니까? 예?》

최형진의 물음이었다.

《왜 덤벼치는거요?》

박준호의 대답이었다.

《산줄작업은 해야 하오!》

림성백의 결심이었다.

이 결심이 떨어지기 바쁘게 최형진이 밖으로 달려가려고 돌아섰다.

《어딜 가오?》

최형진은 뛰다 말고 몸을 핵-돌렸다.

《빨리 해야지요.》

《동문 안돼!》

《??》

최형진은 도대체 영문을 알수 없었다. 산줄작업이라면 자기를 빼놓고 누가 한단말인가.

림성백은 박준호에게 구원을 바라듯 물끄러미 바라보고있었다. 이럴 때 헤덤비기에 마음이 놓이지 않는 최형진이 대신에 침착하고 기술이 능한 박준호가 나서준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가 제 몸을 내대리라고는 바랄수 없으나 그래도 말로라도 나서준다면 위안이라도 받겠건만 박준호는 통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그저 눈을 내리깔고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고있었다.

속이 달아난것은 최형진이었다.

《도대체 어쩌자는거우다? 예? 애초에 이 공사를 시작할 때 산줄작업을 누가 할것으로 지목했댔소? 내가 아니요? 내가...》

최형진은 주먹으로 가슴을 탕탕 쳤다.

림성백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지금 해야 할 산줄작업은 《특수공구식대전작업방법》이다. 가장 위험한 일이지만 가장 안전한 일이기도 하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조국의 한 지역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중지시켜서는 안돼!)

림성백은 가슴이 탁 트이고 몸이 거뜨해짐을 느꼈다. 그는 일어섰다. 구겨져있던 모자를 아무렇게나 머리에 얹었다.

그는 힘주어 선포했다.

《철탐을 듣시다.》

5

전공들은 지배인의 얼굴을 바라보고있었다. 엄숙해지는 표정을 애써 감추려고 버덩이를 드러내보인 지배인의 입, 이제 그 입에서 어떤 지령이 나올것인가. 전기를 꺼야 하는 시간이 보름이 일주일로 단축되고 이제와서는 몇시간으로 단축되었으나 도저히 끝수 없는 심정들이었다. 전공들은 산줄작업을 결심한 지배인을 보며 자기에게 그 임무를 맡겨달라는 간절한 소원을 표정에 담고있었다. 분위기는 자못 엄숙하였다.

림성백은 룡말이나 걸듯 익살군을 다정하게 불렀다.

《이사람, <동갑이>.》

이 엄숙한 시각에 지배인이 히죽 웃으며 룡을 건다는것도 이상하거나 누구를 부르는지 알수 없어 잠잠했더랬는데 《전공시인》이 재빨리 눈치채고 불쑥 일어나며 차렷자세를 취했다.

《옛!》

《산줄작업을 해보겠나?》

《예? 제가요? 차-이거 영광이 차례지는데?》

《전공시인》은 눈을 크게 뜨며 입을 딱 벌린 최형진의 어깨를 툭 건드리며 《뒤에 서라구.》 하고는 그의 앞을 척 막아섰다.

림성백은 이번에 《꼬마전공》을 보며 물었다.

《자네도 할수 있겠나?》

《꼬마전공》은 돌격대로 뿔히는것만 같아서 뿔내듯 작은키를 불쑥 세웠다.

《할수 있습니다.》

《당지는 작는데 목소리만은 굵단말이야, 허허...》

하고 지배인이 말하자 《꼬마전공》은 고무공튀듯 맞받았다.

《작아도 빨간 당추라고...》

하긴 빨간 당추처럼 맵싸게 생긴 전공이었다. 모두들 웃어댔다.

림성백은 이런 사람들과라면 무슨 일인들 못하랴 싶었다.

저쪽 철탑기둥에 손을 짚고 서서 위험이 영킨 철탑우를 안타까이 지켜보는 박준호의 얼굴은 점점 꺼매졌다. 지배인이 자기더러 나서달라고 탄전을 부리는것으로 암시를 하는것만 같이 느껴졌다. 정말 지배인은 철탑일에 익숙치 못한 자기가 나서줄것을 바라고있을가? 그런것 같지는 않았다.

이때 분명 자기를 빼돌린다고 생각한 최형진은 선손을 쓰려고 재빨리 철탑기둥에 달라붙어 오르기 시작했다.

《서라 -서!》

지배인의 호령도 귀에 닿지를 않는지 족장목을 부지런히 갈아잡으며 뛰듯이 오르고있었다.

림성백은 당장에 덜미를 잡을듯 최형진을 쫓아오르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앉아있던 산줄공들이 일시에 철탑기둥에 달라붙었다. 족장목이 박힌 기둥에 붙지 못한 축들은 가로질린 산형강을 잡고 몸을 툭툭 추키면서 오르고 있었다.

《내려가지 못할가?》

림성백은 밑을 보며 팔을 내저었다. 그는 고향도 지르고 설복도 하여 겨우 최형진이만을 달고 올랐다.

은빛이 번쩍이는 철탑은 하도 높아서 쳐다보기만 하여도 재채기가 났다. 파아란 하늘가에 햇솜같은 구름덩이가 비단천 날리듯 둥둥 떠가고있었다. 구름은 오고 철탑은 가는데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래도 림성백은 기뻐다. 한생을 다 살아오면서도 오늘처럼 보람찬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기는 처음이었다. 전공은 단순히 전기선을 지켜선 사람이 아니었다. 기대공 한사람이 잘못하면 자기 기대가 서지만 전공 한사람이 잘못하면 모든 기대가 서는것이였다.

때문에 전공은 수천수만대의 기대를 운전하는것과 같은 위치에 서있는것이였다. 그는 자기 직무에 대한 무한한 긍지와 책임성, 보람을 느꼈다. 옷이 땀에 젖어 몸에 들어붙고 숨이 차왔으나 도무지 힘든 줄을 몰랐다.

눈곱이 뜨거워진 전공들은 각기 자기 초소로 달려갔다.

다만 박준호만은 자기위치를 찾지 못한채 멍청히 서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고독을 느꼈다. 마치도 자기는 전공의 자격을 상실하고 아니, 인간의 가치를 상실하고 대렬밖으로 밀려온것 같았다. 아까 지배인이 하던 말이 귀전에서 자기를 때리는것이였다.

《과장동무는 나라의 10분지 1이나 되는 지역의 혁명을 중지시키려 하고있소. 만약 경우에 최형진이가 희생될수도 있다는 위구를 앞세우면서말ियो. 어찌 최형진이를 대신하여 자기가 나설 용의는 없소? 남을 위하는척하면서 자기를 아끼는 사람은 결코 혁명대오에 서있다고 말할수 없소... 만약 동무가 남이 띄여준 안전한 길을 따라가며 자기 몸을 잘 거두어 백살을 산다고 합시다. 그런들 9살난 아동단원 금순이라든가, 19살난 리수복영웅에 비하면 그런 나이는 몇백살 먹어도 우리 기억엔 남지 못할거요.》

박준호는 그제야 지배인이 산줄작업은 최형진이가 아니라 자기가 할 결심을 품고 이 공사를 시작했다는것을 알았다. 끝없는 증오가 가는것은 자기였다. 사무실안에서 맴돌며 말로만 일을 하였으며 땀수마찰시간을 어기지 않고 보약만 찾은 자기가 한없이 증오스러웠다.

논판에는 푸르른 벼가 일매지게 같은 키로 자라고있었다. 간혹 보기 싫은 돌피가 경총 키를 솟구고 제잘난체했다. 박준호는 자기가 그 보기싫고 거만한 돌피 같았다. 자기는 남의 자양분을 빨아먹는 돌피, 극단한 보신주의자였다. 이렇게 결론을 찾게 된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슬픈 빛이 어리었고 지워지지 않을상심은 그늘이 비졌다. 인젠 앵무새노릇밖에 못하는 자기를 과장이라고 믿어줄 사람도 없을것 같았다. 아니, 벌써 결을 주지 않았는데도 모르고 기술술어를 휘둘러대며 우쭐댄 자기였다.

그는 고개를 들었으나 눈시울이 뜨거워나서 지배인을 바라볼수가 없었다.

구름도 잡힐듯한 철탑꼭대기에서는 두사람이 거연히 서있었다.

림성백은 아래에 대고 작업지시를 떨구었다.

길게 드리워놓은 심부름바줄에 매달려 산줄바구니도, 특수공구들도 올라갔다. 산줄바구니는 철탑의 맨 옷팔의 중력에 달리고 철탑기둥에서 산줄바구니까지의 공간에는 절연사다리가 가로놓여졌다.

림성백은 대전복을 입기 시작했다.

대전복이란 가느다란 구리줄망으로 지은 덧옷이었다. 이 대전복에 특고압전기를 넣으면 그 어떤 전기가 흐르는 전기줄도 마음놓고 질수 있었다. 최형진은 지배인의 팔을 잡았다.

《이건 응당 제가... 이 일을 남에게 시키려고 발기한줄 압니까? 내가 해야...》

《나도 산줄공 6급이라는것을 알고있겠지?》

《안됩니다. 안돼요!》

최형진은 막무가내였다. 불이 번쩍이는 눈에는 눈물이 다 글썽했다.

《형진이!》

엄하게 불렀지만 뒤말은 조용히 친아버지가 어린 자식 타이르듯 이어졌다.

《동무는 젊지 않나.》

《그러기에 내가 해야...》

《그 뜻을 새겨보라구, 응. 이건 내 소원이네.》

대전복을 주섬주섬 입은 림성백의 얼굴에는 웃음이 피어났다. 그 웃음속에는 앞날에 더 큰일이 얼마든지 있으니 그 길우에서 오늘과 같은 충성심을 새기라는 늙은이의 부탁이 있어서 최형진의 가슴이 뭉클했다.

대전복에 해빛이 반사되어 림성백의 몸에서는 은구슬을 박아놓은듯 눈부시게 반짝거렸다. 그는 안전바구니안에 들어가자 최형진을 불러 청했다.

《바줄로 나를 묶어놓게.》

《예?》

긴장한 나머지 발을 헛디디거나 놀라 발을 뒤회갈수도 있고 맥이 진하면 끌릴수도 있기에 그걸 막자는것이였으나 림성백은 이렇게 말했다.

《후퇴하지 못하게말일세.》

최형진의 눈에서는 콩알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무슨 일이든지 첫 작업은 자기가 해보고야 작업지시를 떨구는 지배인, 승용차가 사무실이고 철탑우가 일터인 지배인, 룡담도 제먼저 하고 오락회장에도 제먼저 뛰어드는 지배인이였다. 하여 나이 60이라도 젊은이들과 허물없이 지내기에 더없이 존경이 가는 귀중한 동지였다. 그런 지배인을 묶는, 그렇게도 담이 크다는 최형진의 구리빛팔뚝도 부들부들 떨리였다. 더구나 안타까운것은 이제 며칠후면 전공의 최고영예인 공훈전력공칭호를 수여받을것이고 또 기다려오던 첫 머느리를 맞이할 경사가 있는 지배인을 가지 못하게 묶는것만 같은 아픔이였다.

《지배인동지는 이제 며칠만 지나면 60똥 생일상을 받아야 할 나이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제발 자리를 양보해주십시오.》

《허허, 영예를 달란말이지?》

림성백은 진정한 영예가 있는 이 자리를 최형진에게 주고싶은 마음인들 없겠느냐마는 그가 너무 젊기에, 성공의 열쇠는 자기만이 실수 없이 열수있다고 믿기에, 실사 자기가 실수를 한다고 해도 최형진이 결함의 원인을 찾고 성공하리라는것이 명백하기에 그의 소원을 들어줄수가 없었다.

《형진이! 영예는 결과에 있는것이 아니라 과정에 있네. 무슨말인지 알겠나?》

최형진은 알아들었다. 공훈전력공칭호를 받는 날보다, 아들머느리가 나란히 서있을 결혼식날에 웃어줄 날보다, 그런 경사가 열매맺도록 충성을 수놓는 바로 거기에 인간이 진정으로 맛보아야 할 영예와 영광이 있다는것이였다.

《다 됐지?》

림성백은 몸을 움직여보고 팔을 들어 활동정형을 가늠해보고나서 문득 이렇게 물었다.

《안전규정대로 됐나?》

《됐습니다.》

《확실한가?》

《예.》

《내가 성공하리라는것을 기술적으로 믿을수 있나?》

《믿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서 자네 얼굴은 꺼맸나? 응?》

림성백은 버럭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내려가게, 이 철탑에 한사람도 얼씬 못하게 하라구.》

림성백은 온갖 적절한 대책을 다 취해놓고보니 마음이 든든해졌다. 무릎까지 올라오게 높으로 란간을 두른 산줄바구니안에 선 림성백은 특수장치가 달린 절연봉을 병사가 총을 비껴든것처럼 꼭 잡고 있었다. 그는 아래에 안심하라고 손을 흔들어 보였다. 그리고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육박전을 하듯 절연봉을 내들고 특수장치를 한치 또 한치 특고압전기마당안으로 들이밀었다. 반경이 한메터나 되게 보이지 않는 원으로 전기마당을 이룬 와류는 무슨 물체인지 접어드는것이 시끄러운지 뿜어버리려고 뽕뽕- 무서운 소리를 질렀다. 만약 이때 조작규정을 어기면 1초도 못되는 순간에 사람은 재가루가 되는 판이였다. 림성백은 대담하게 절연봉을 내지르며 22만볼트가 가압된 전기줄에 댔다. 찌지직-뽕-전기는 뿌리쳐보려고 호광을 일으켰다. 드디어 전기줄에 특수장치를 거는데 성공하였다. 그는 머리우에 떠있는 구름을 잡을듯 손을 번쩍 추켜들어 신호를 보냈다. 특수공구를 힘껏 끌어당기면서 고함을 질렀다.

《철탑을 들어라!》

그 목소리는 마치도 《돌격 앞으로!》를 웨치는 전투명령처럼 웅엄하게 울리였다. 인력견양기가 돌

아가고 쇠바줄이 팽팽해지면서 철탑이 허리를 찌며 돌리기 시작하였다.

특수공구를 늦추는 순간에 온몸이 재가루가 될 이 위험한 위치에 선 림성백은 힘을 깡그리 모아 긴장하게 당기었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맥이 진하여졌다. 끝내는 죽을수도 있다는 비장한 생각이 들었다. 귀전에서 전기가 흐르는 《윙-》소리가 지속되고있었다. 기뻐다. 전류는 이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세차게 흐르고있었다. 이 순간에도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이 담긴 전류는 광석이 되고 철이 되고 쌀이 되고 옷으로 변할것이다. 전기로 앞에서 쇠장대를 틀어잡고 선 용해공들, 두줄의 궤도로 달리는 전기기관차를 몰아가는 기관사들, 선반기앞에서, 직기앞에서, 양수기앞에서 나라의 재부를 창조하는 희열에 넘친 얼굴들이 눈앞에 떠올랐다. 자기가 백번다시 태어나 일한다해도 다 만들어내지 못할 나라의 재부를 그들이 이 순간, 순간에 창조해내고있을것이었다. 내 한목숨 아껴 그 거대한 창조물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게 한다면 그 아낀 생명이 무슨 산 생명이라! 이 생명선을 지켜선 길우에서 숨진다 하여도 결코 무모한 죽음은 아닐것이다!

이때였다.

철탑기둥에 붙어 비호같이 치달아오르는 사람이 있었다. 술한 전공들이 고향을 지르며 말렸지만 대전복까지 입은 그 사람은 아무 소리도 못들은듯싶었다. 그는 박준호였다.

림성백은 웬 사람이 바구니안에 뛰어들었을때에야 정신이 버쩍 들었다. 그의 흐리터분한 눈앞에 박준호가 비발쳐오는 탄알을 막아주듯 떡 버티고 서있었다. 내려가라고 권할 겨를도 없었다. 설사 권하고 꾸짖어도 내려갈상싶지도 않았다.

박준호는 지배인이 간신히 잡아끄는 특수공구를 함께 잡고 힘껏 당겼다. 말은 없었다. 다만 그의 눈에서 자기를 저주하는 가책의 눈물방울이 구슬을 꿰단듯이 방울방울 주렁지며 반짝반짝 떨어지고있었다. 림성백은 그의 눈물에서, 그의 팔에 돌아난 근육에서 그가 한시간동안 말해도 다 표현하지 못할, 영광의 대오에 서서 담찬 걸음을 옮길 철석같은 결심을 보았다. 박준호는 드디어 자기가 서야 할 위치,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찾은것이었다. 그는 숙였던 고개를 번쩍 들었다. 이 세상에 자기라는 존재가 있다고 선포하듯이...

《파장동무-》

《조심하시우-》

《허리바를 매시우-》

가슴을 달구는 목소리가 올라왔다.

허리바 근심은 안해도 되었다. 지배인의 손이 허리바되어 자기의 허리를 꼭 안아주고있었다. 박준

호는 가슴으로 수천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는것같았다.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런듯 지배인의 억센 손으로 따뜻한 온기가 가슴을 덮혀주었다. 박준호는 자기가 위험한곳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곳에 서있는 기분이었다. 살아도 보람있게 살고 죽어도 보람있게 죽어야 삶의 가치가 있음을 깨달았다. 지금까지 그가 해놓은 일은 너무도 적었다. 배워둔 기술을 그저 퍼내기만 하면 되는 사무실, 가구가 뜨르르 갖추어지고 아들딸들이 반겨주는 집, 그것과 련결된 길로 출근하고 퇴근하는것으로 만족했었다. 그에게는 창조가 없었다. 사업과 생활에는 반복만이 있었다. 그 속에는 노래가 없었다. 진정한 영광도 행복도 없었다...

해질무렵에 공사장에서는 합성이 터졌다. 전공들은 와-하니 몰려들어 전진로를 열어준 고지를 향하여 돌격하는 병사들마냥 철탑으로 치달아오르고있었다. 철탑은 27미터로부터 36미터로 자랐다. 전공들의 마음도 키도 9미터나 더 자랐다. 그것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영광스러운가를 가르쳐주고 떠받들어준 충성의 높이였다. 박준호는 그런 높이에 자기가 서있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눈에서는 눈물이 펑그르르 나돌았다.

《지배인동무, 성공입니다.》

그런데 어째 지배인은 통 기척이 없었다. 고개를 제끼고 눈을 감은 지배인의 창백한 얼굴을 보는 순간 박준호는 와닥닥 놀라면서 마구 흔들었다.

《지배인동무...지배인동무, 왜 이렇니까?》

아무리 흔들어도 애라게 불러보아도 지배인은 대답이 없었다. 박준호는 지배인을 끌어안았다. 지배인을 잃는다는것은 너무도...너무도 슬픈 일이었다. 흔들어보는 손은 떨리고 부르는 목소리도 떨리었다. 바구니는 그대로 아래로 내려왔다.

대기하고있던 의사는 그처럼 용감했던 지배인을 보자 눈물을 툭툭 떨구었다. 탐구술이 서로 엉키면서 사망으로 미끄러져 떨어지는 지배인의 얼굴은 성공했다는 기쁨에서인지 가벼운 미소가 어린채 굳어져있었다.

그러나 전사는 죽지 않았다. 의사의 귀전으로 심장의 박동소리가 툭툭툭 전달되었다. 지배인의 몸에 바줄이 감겼던 자리는 굵은 바오리자옥이 벌겍게 새겨졌다. 너무도 힘을 주어 아래로 피가 통하지 않아서 사지가 뻣뻣해졌지만 이를 악물고 초인간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다가 성공하는 순간에 그만 의식을 잃었던것이다. 서늘한 천막안에 눕혀놓고 사지를 주물러주고 주사를 놓았다.

이윽고 지배인은 몸을 비틀면서 무슨 말인가 하고있었다. 그러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애라는

눈으로 바라보던 박준호도, 최형진이도, 의사도, 전공들모두가 안도의 숨을 쉬었다.

이때 전화기가 찌르릉-울렸다. 아까는 공사를 끝냈다는 자랑찬 보고가 전달되었던 전화기가 지배인의 소생을 기뻐하는지 활기있게 종소리를 냈다.

최형진이는 송수화기를 잡았다. 그는 웬일인지 화닥닥 놀랐다.

《예? 어버이수령님께서요?...동무, 교환수동무...》

《빨리 지배인동지를 대기시켜주세요. 곧 걸속되여요.》

《동무, 동무...지배인동지는...》

전공들의 눈길이 전화기에 쏠렸다. 감격과 흥분이 어린 눈동자들이었다.

그러나 지배인은 눈도 입도 다문채 누워있었다. 자꾸 손을 허우적거렸다.

《지배인동지, 어버이수령님께서...어버이수령님께서 찾으십니다...》

박준호의 목소리는 갈리였고 더운 눈물이 지배인의 가슴우에 똑똑 떨어졌다.

이때 갑자기 지배인의 눈이 번쩍 떠졌다. 굳어버린듯싶던 입술도 열렸다.

《동무들, 내가 쓰러진줄 아시면...그러면...그러면...어버이수령님께서 근심...근심하십니다.》

박준호와 의사는 그의 요구대로 일으켜세우고 옷단추도 채워주고 옷깃도 여미여주었다.

림성백은 방금 련결된 송수화기를 받자 두손 모아 정중히 받아들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깊은 산골에 와있는 전사를 찾으시고 목소리를 들으니 기쁘다고 하시며 자기의 건강을 물으실때 림성백은 눈물이 뭉쳐 목구멍이 짹 메이는것을 느꼈다.

《...나는 방금 중앙급전을 통하여 보고 받았습시다. 장합니다. 또 한번 세상사람들을 놀래운 전투원

들에게 감사를 보낸다고 전해주시오...방금 북창화력발전소 동무들이 공청능력을 또 돌파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만 들어옵니다.》

림성백의 얼굴에 잡힌 주름살이 퍼졌다. 어버이수령님께 기쁨만을 드리려는 그의 마음이 꽃이 되어 얼굴에 함뻑 피어났다.

《지배인동무, 동무네 일터는 산정이니 인젠 힘들거요. 나이가 있으니까...아무쪼록 건강하길 바라오...》

옆에서 등을 쓰다듬어주시며 말씀하시듯 자애에 넘치신 음성...이 무더위에 얼음과자랑 공급해주었는가, 산골에 천막을 치고 살자면 모기성화를 받겠는데 모기장은 있는가, 남자들끼리 밥을 해먹는다니 대강대강 먹을거라시며 식모는 꼭 녀성동무를 배치하라고...

아! 가슴속으로 흘러드는 친어버이사랑, 그 사랑을 받아안기에는 림성백의 가슴은 너무도 작았다.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에도 마루가 있고 이 세상에서 제일 깊다는 해구에도 바닥이 있지만 우리 수령님께서 인민을 위하시는 사랑엔 끝이 없으시였다.

어버이수령 **김일성** 동지 만세!

림성백은 부푸는 가슴으로 이렇게 웨치고있었다.

전공들은 만세 환호성을 터뜨렸다. 감격! 흥분! 기쁨의 파도가 골짜기를 진감하였다.

림성백은 한마음으로 이어진 박준호와 최형진의 손을 하나씩 꼭 잡고 서서 행복에 겨운 눈물을 흘리며 멀리 평양하늘을 우려했다. 만약 그누가 일생에서 제일 기쁠때가 언제였던가고 물으면 그들은 서슴없이 대답할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기뻐하신 오늘이라고...

가신고개 바라보며 기다릴때에 외 2 편

김희종

가신 고개 바라보며
처녀소조원 어버이수령님을 기다렸네

힘하고 가파로운 먼길을 생각하며는
기다림이 너무나 황송하지만
그래도 이 마을을 향하여 오시는듯
자꾸만 바라보던 저 고개길로
이 밤 불을 켜시고 오실줄 어찌 알았으랴

풍년복을 올리는 강냉이바다를
그이께서 승용차의 불빛으로 누벼보시네
손수 따드신
강냉이 이삭무게도 헤아려보시더니
다정히 흙에 뜬 소조원의 손을 잡아주시네

불빛에 젖으며 처녀의 가슴 목메이네
봄에는 영양단지 이식기,
여름에는 이삭비료 살포기,
그 나어린 가슴이 지혜로 펼쳐온
이 큰 강냉이바다가 너무도 대견하여
불빛으로 쓸어보시고 또 쓸어보시는
위대한 수령님

철썩 처절썩-
강냉이파도는
소조원이 드리는 기쁨으로 끝없이 설레이고

아, 소조원의 영광이여, 기쁨이여
기계바다에 들리시면 제강소에 갈길이 바쁘시고
어촌에 들리시면 산촌으로 갈길이 바쁘시고
바쁘시어도 오죽 소조원이 보고싶으시었으면
이 밤 이 먼길을 찾아오시었으랴

이삭될 때 다시 오시겠다고
꼭 기다리라고
발머리에 남기신 그 사랑이
이 한밤의 불빛이 되여
이 강냉이바닥기슭에 닿으시었던가

가신고개 바라보며 기다릴 때에
그마음 안으시고 찾아주신
어버이사랑의 불빛이 강냉이바다우에 흐른다
이 땅우에 무수한 창조의 불빛을 보실 때마다
소조원의 수고를 먼저 헤아려보시고
래일의 더 큰 행복을 설계하실 때마다
미더운 소조원을 먼저 찾아주시는 불빛

소조원의 두볼이 눈물에 젖네
불빛은 고개우에 흘러가도
불빛은 사랑의 손길로 남아
그의 어깨를 쓸어주고...
불빛은 하늘가에 사라져도
불빛은 노을로 피어나며
3대혁명승리의 길을 환히 비쳐주고...

가을에 사는 마음

어느 멀리서 보아도
달려가고싶은 그리운 모습이였다
어진 눈가에 밝은 미소를 띠우고
들에 서면 들도 환히 밝아지고
만나주는 사람마다 기쁨의 웃음꽃이 피어났다
한걸음을 옮겨도 생각은 언제나
떨떨 휘날리는 세폭의 붉은 기치
우불구불 굽혀진 발두령도
그대의 기폭에 안기며는
기계화의 새 두령으로 허리펴며 일어서고
강가에 버림받던 돌들도
문화주력의 살뜰한 돌담장으로 빛을 뿌렸다

새 땅을 찾아
아호비령 험한 산밭을 넘나들며
수만 가슴들을 흔들어놓을줄 어찌 알았으랴
그 구수한 흙김에 젖은 숨저고리를 벗겨주며
농장원들이 한번 쉬라고 하면
-가을에 가서 보자요!
조용히 웃어보이는 그대의 얼굴에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이 물결치고있었다

비 오나 눈이 오나 가을에 살며
흙문은 발자욱 씩없이 옮겨가는 걸음은
진정 어버이수령님을 위하여

달리지 않고는 참을수 없는 안타까움이였다
 깊은 한밤 남몰래 발머리에 뛰쳐나와
 강냉이포기를 흔드는 바람소리를 들으면서도
 수령님의 심려를 새겨들으며 모대기였다
 것처럼 아글타글 애쓰며 한 일들이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기쁨이 되어
 피어나는 나날이어서
 언 땅우에 무수한 우등불자리 옮겨가며
 쌓아올린 다락밭기슭에 걸음을 멈추어보고
 창안의 밤을 지새우며 만든 강우기가
 가물의 불바람을 몰아내는 황홀경에
 그 몇번 혼자서 웃어도 보았던가
 그대의 가슴은
 수령님 한분만을 모시는 진정의 깊고깊은 호수,
 그대의 눈빛은
 수령님의 해빛을 받으며 빛나는 별
 그 충성으로 붉은 세폭의 기치로
 인간해방의 송가를 높이 울리며
 그대는 3대혁명시대의 풍년가을을 가꾼다

풍요한 가을이
 들에는 황금과도
 하늘에는 흰 두루미떼 날리며

그대앞에 설레인다
 한번 쉬라고 하면
 -가을에 가서 보자요!
 한마디 대답으로 웃어보이던 처녀야
 그말을 새겨안은 가을은
 어서 쉬라고 저만치 설레이건만
 달릴수록 실려오는 새 일감이 좋다고
 가을의 미소에 다소곳이 머리를 흔드나니
 기다리는 가을은 정녕 언제이던가
 생각한다, 그대의 가을은
 수령님께서 3대혁명으로 꽃핀 온 땅을 바라보시며
 단 하루라도 편히 쉬여주시는 그날이 아니던가
 그대와 함께 살면서도
 그렇게는 안고 살줄을 모르던 송엄한 가을을
 천만마디 말보다 뜨거운
 숨은 정성으로 깨우쳐주는 아름다운 새 세대여!
 그 가을을 부르며 그대는 걸어간다
 맑고 푸른 하늘에 못다한 충성을 비쳐보며
 무르녹는 가을열매처럼
 온 농장을 붉게붉게 충성으로 물들여가는
 한없이 정다운 그대의 모습앞에
 아, 수억만의 이삭들이 기쁨의 미소로 피어오르고
 부는 바람도 축복의 인사를 보낸다

논머리에서

푸른 벼포기 흐느적이는 논머리에서
 처녀소조원이 분조장과 마주앉았네
 기계로 모를 내야 할 땅에
 토질이 사납다고
 손으로 모를 내는 그의 잘못을 돌이키며...

생각하면 할수록
 어버이수령님께 심려를 끼친 뉘우침이
 방울방울 눈이슬로 맺히는가
 그 논흙을 만지고 또 만져보며
 처녀는 분조장에게 아픈가슴을 터치네

-헐하게 농사지어야
 밥상에 앉는 마음이 편하시다던
 어버이수령님께서 이 일을 아신다면...

그 한포기 한포기를
 손으로 꽃아서
 황소꼬리같은 벼이삭이 달린다한들
 그것이 어찌
 수령님께 드리는 진정한 기쁨이 되겠어요...

영그는 난알 하나하나가
 깨끗한 충성으로 맺히는줄 모르고

손으로 흙을 주물러야 더 탐스러워지는줄 아는
 분조장의 물젖은 생각이 안타까와
 방울방울 맺히는 처녀의 맑은 이슬

풍년날가리를 보시기전에
 농민의 귀한 손부터 만져보시는
 수령님의 그 사랑을 두고
 열백번 심장을 두드리며
 충성의 한길우에 그를 이끄는 목소리를
 흐르는 논물도 받아 울리고...

아, 눈물도 맹세를 다지며
 마음속에 수령님을 모시는
 새세대의 수정같이 맑은 량심에 젖으며
 나이 지긋한 분조장도 어느덧
 바위처럼 무거운 어깨를 들먹거리는가

비뿌리던 하늘이 한순간에 개인듯
 분조장은 소조원의 손을 굳게 잡았네
 웃으며 이야기하며 나란히 걸어가는
 두줄기 발자욱으로
 두 마음이 한빛으로 물들여진
 풍년가을이 너울치며 마중오네

날마다 달마다

홍현양

해뜨는 아침
탄부들과 견노라면
그 누가 새 탄밭을 열었다는 이야기
저녁노을 타는 들길을 견노라면
별을 적시고 가슴을 적서주는
지하수의 서늘러운 물결소리

그 어디엘 가도
혁신의 불꽃을
일터마다 꽃보라처럼 뿌려가는 이 땅
그 어디엘 가도
심장의 뚫는 맥박으로 시간을 재이며
날마다 달마다 계획을 넘쳐한 이야기

철길도 불바람 더 세차게 일어번지는 철길
채탄기도 새 혁신의 채탄기
사람들은 어찌하여
폭포치는 석탄과 비료를 두고
만족을 모르며 달리는것인가

날마다 달마다
쫓는해 따라 일감을 잡지 않고
날마다 달마다
당중앙위원회 편지의 구절따라 일감을 맡는
그 마음 그 심장의 맥박이
시간의 흐름으로 빛나는 땅이어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사는
오늘의 나날에
어찌 하루하루가 헛되이 흘러가랴
순간마다 전투명령을 안고사는
오늘의 벅찬 생활속에서
어찌 한초가 평범한 순간일수 있으랴

받아안은 사랑에 목매이며
당중앙위원회 편지를 읽어가던 그 발머리에서
한줌의 흙을 비벼보는 농장원의 마음이
전호속의 당총회를 못잇는 발전공의 눈빛이
물길을 제고 건설장의 불야성으로 빛난다

아, 이 땅의 하루하루가
폐목의 모닥불가에서
천길지하막장에서
계획을 넘쳐한 그 달과 달로 이어져
수령님께 드리는 기쁨으로 빛나고

창가에 넘치는 행복으로 수놓아져

날마다 달마다
흐르는 시간마다
사람들의 그 눈빛, 그 손길이
새 일감, 새 직기를 더 찾아안은
마음들이 아닌가

오늘의 행복에 눈물로 젖는 가슴
새일감을 놓고 잠못드는 마음이
당중앙위원회 편지를 읽어가던 그 밤처럼
식지 않은 로속에도 뛰어들기에
심장이 뚫어
쇠물은 뚫어번진다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자신의 힘으로 헤치는 법을
결사전의 전호가에서
재더미를 헤치는 복구건설장에서
오늘은 자동선의 불빛아래서
당중앙위원회 편지를 받아안으며 깨달은 마음들이
기에
충성으로 높뛰는 심장의 맥박이
이 땅의 속도로, 시간으로 굽이치는게 아닌가

아, 어디에서 만나건
그 어디를 함께 걸어가건
주고받는 말, 평범한 이야기는
날마다 달마다
당중앙위원회 편지에 회답을 보내는
충성의 그 글발로
창조물을 이 땅에 새겨가는 이야기

세월은 흐르고
산천은 변하여도
마음은 언제나 당을 따라 한 생각
새 7개년의 높은령마루우에
위대한 수령님을 또다시 높이 모실
영광의 그날을 위하여

이 땅의 한초한초가
이 땅의 하루하루가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천년의 세월처럼 빛나고있다

들끓는 땅

박영봉

푸르른 들판
별 가득히 울리는
김매기 다그치는 원동기의 힘찬소리
논배미마다 충충 다락밭마다
너인들의 함박꽃같은 웃음소리
포전을 따라 이랑을 따라
벼바다, 강냉이바다 설레이는 소리

어딜 보나 넓디넓은 기계화포전
마음조차 환해지는 거칠매없는 이 들에
물이 오는 소리, 기쁨이 퍼져가는 소리
새 물길에 간 다락밭 저 기슭에는
이해 새로이 늘어난
양수기들의 흥겨운 노래소리

우리의 보습으로 가꾸어진 땅
우리의 땅 그대로 파란 잎이 되고
우리의 숨소리 그대로 바람되어 살랑이고
우리의 희망 푸르려 벌을 물들인
아, 두번째 7 개년계획의 첫 벼바다 강냉이바다

수로가에 활짝 핀 초롱꽃 패랭이야
반가웁다, 네 모습 아름답구나
무르익은 만풍년의 이 벌과 어열려
향기 더욱 진하게 풍기는구나!

어서오라, 꽃봉오리 소년예술선전대야
너희들 손풍금소리, 나팔소리에 맞춰
이 벌, 이 물기습이 좋아 찰찰 감겨도는
감장머리 청제비들도 해종일 춤을 춘다
장일을 쭉쭉 뽑으며
벼포길들 춤을 추고
대실한 강냉이들 우줄우줄 키를 솟구는 벌
수령님을 높이 받드는 한마음으로
아침저녁 벌을 가꿔온 사람들이건만
이 시각, 설레이는 벼바다, 강냉이바다를 따라서

마음 또한 설레이
저마다 마주잡는 땀배인 손들...

아, 온통 기쁨이로구나, 흥이로구나
오직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고저
씨앗이 되어 싹으로 움터올라
주렁주렁 이삭을 달고 설레일 그 가을에 사는 마음

가없는 벌
희열이 넘친 이 땅에
늑실늑실 벼바다, 강냉이바다 물결치니
기계와 한데 어울려 들끓는 땅,
880 만톤 낟가리가 벌우에 솟는다!

넘겨주고 넘겨받는 순간에

허수산

싱그러운 5 월의 봄바람
귀밀머리 날리는 저녁
노을이 곱게 피는 농장별 한가운데서
부부뜨락또르 운전수-그대들이 마주섰다

해빛밝은 아침엔 안해가 갈더니
별돋는 이 저녁엔 남편이 갈려고
운전대를 넘겨받는 교대시간
갓꽃은 벼포기들도 반겨 설레이고
동쪽의 들꽃들도 반겨 웃는듯싶구나

매일같이 마주서는 순간이건만
처녀총각시절처럼
처음 마주서던 그날처럼 가슴설레이는 이 순간
다정한 부부사이의 교대라해도
공장의 교대처럼 잔잔하고 엄격하여라

차창에 꽃은 한떨기 들꽃묵음은
이 밤의 성과를 바라는 안해의 마음이런가
가마목같이 알뜰히 닦은 운전대
장관같이 알뜰히 고르어놓은 논판에서
안해의 그 정성도 받아안은듯
가슴은 마냥 설레이며 뜨겁구나

온밤을 찬이슬 맞으며
전쟁의 그날 땅크를 몰아가듯
굵은 흙발을 꽃밭처럼 고르어놓을
남편의 미더운 모습 바라보며
안해의 마음도 마냥 설레이며 뜨거워-

아, 한대의 트락또르를 맡아가지고
부부교대운전수로 살아가는 나날
이 벌에서 맺은 첫 사랑도 더 활짝 꽃피는듯
두 심장이 하나로 합쳐 고통치니

충성의 발동소리는 더 높아가고
가슴속에서는 기쁨과 행복만이 솟구침이어

얼마나 가슴벅찬 나날이었던가
한 부부운전수의 평범한 일을 두시고
이땅에 《기계화가정운동》의 불길을 지펴주신
아버이수령님의 그 사랑에 목메이어
이 벌에 교대시간을 두고
날과 날을 이어가는 그 마음들-

해방후에는 땅을 주시던 그 사랑
전후에는 한가정 한가정을 이끄시여
협동의 큰 살림으로 꽃피워주신 그 믿음
지난날 가대기 하나 없던 가정에
오늘은 큰 기계 맡겨주고 안겨주신
아버이수령님의 그 사랑에 목이 메여-

언제나 알뜰한 안해의 마음
넘겨받는 땅엔 빈구석이 없었다
언제나 미더운 남편의 손길
안해가 모는 트락또르엔 고장이 없어
발동소리 노래로 고르롭게 울려퍼라

아, 공장의 기대결에서만 있던 교대시간
조국의 재부와 재부를 너그러워주던 그 시간은
한마을 한작업반을 거쳐
오늘은 평범한 가정에도 비껴흐르거니

부부운전수 그대들
운전대는 넘겨주고 넘겨받건만
마음속엔 언제나 교대가 없어
풍년수레-트락또르를 함께 타고
공산주의 새아침을 마중해가라

비약의 나라 펼친 충성의 탄전이어

장호건

땅속에서도
땅위에서도
불타는 충성의 열풍이 휘몰아치는
여기
조국의 서부지구 강력한 연료기지

막장마다엔
폭풍치는 속도전의 불바람속에
메아리쳐 울려퍼지는 착암기소리, 채탄기소리...
땅우엔
건설의 우렁찬 발구름속에
거창히 일떠서는 새 탄광도시 ...

오, 휘황찬란한 새 7개년의 고지들을 향해
만부하를 건 공업전선들에
안겨줄 검은금의 보화를 안고
비약의 나라 펼친 석탄지구여

그 언제 이렇듯
폭풍같은 힘과 화산같은 열정으로
장엄히 장엄히 굽어쳐봤던가
위대한 수령님
탄부들을 사랑하시여 대탄전도시로 꾸려주시는
한없는 영광의 이 시각처럼...

누리는 행복만도
가슴이 젖어들고 목이 메는데
수도의 락원거리
사랑의 설계도면을 탄부들의 도시로 펼쳐주시며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아, 어버이 다함없는 그 사랑!

안겨주시는 그 사랑에
목이 메여 흐느끼는 가슴들
이들이 아니었던가

탄층에 터진 물주머니를 맞받아
방파제로 솟았던 사람들이 ...

해도 별도 뜨지 않는 막장 한끝이여도
기름진 탄발
여기서 온 나라를 더웁히고 밝힐
불을 안아내기에
석탄의 폭포가 되어 쏟아져내리고싶은
탄부들의 마음-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 흘러넘치는
도시와 마을, 불밝은 창가들을 그려보는가
번개치는 화력타빈
끓어번지는 용광로
전속으로 달리는 기관차의 기적소리를 들으며
꽃피는 강산의 훈향을 뜨거이 느끼는가

저탄장 하늘높이
충성의 메부리를 쌓아올리며
영광의 큰 걸음을 내디딘 탄전
그대는 새 7개년계획수행의 돌파구
그대는 강대한 서부지구공업의 탄전지구!

더 높이 안아올리라
검은금의 산악을, 공업의 열도를
폭풍을 안아일으키라
자력갱생의 진군길우에...

아,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불타는 충성의 탄전이어
그대의 장엄한 걸음
그대의 뜨거운 숨결을 안고
주체의 조국은
세기의 언덕우에 끝없이 빛나라!

동점령삭도여!

박희구

하늘에도 조국의 동맥은 뻗었느냐
아슬한 령봉 구름을 헤가르며
삭도바가지들의 행렬이
번쩍이며 나래쳐오고가누나

공중의 전차런가, 하늘의 배런가
령 넘어갈 때엔
금싸락 정광을 싣고가고
령 넘어올 때엔
동해의 펄펄 뛰는 물고기 실었구나

하늘이 길이 된 오늘이사
동점령, 동점령
너는 노래의 령
너는 기쁨의 령
삭도를 쳐다보며 손을 흔드는 광산마을 아이들
머나먼 바다도 제련소도
저 령너머 가까이 있는줄 아는구나!

세기를 두고
문명과 담을 쌓은듯 높던 령
바라보면
하늘조차 막힌듯 답답하더니...
그 하늘이 대문으로 열렸던가
그 령이 문턱으로 내려앉았던가

한번 넘으려면
굽이굽이 천리길처럼 아름답던 길
수백의 화물차들이
달리던 고무바퀴에 불이 일던
그 힘겨웁던 먼 수송길이

한철참의 즐거운 노래로 되어버렸구나!

아, 잊을수 없구나
북방의 하늘아래 첫령
이 먼 동점령에 오르시여 어버이수령님
손수 지형도를 펼치시여
삭도화의 새길을 열어주시며 환히 웃으실 때
하늘은 반가와 따라 웃고
령은 깊이 머리를 수그리고...

그 못잊을 사연들이 저 삭도에 실려
끝없이 파도쳐흐르는것인가
령넘어 흘러 흘러갈수록
더욱 가슴에 사무쳐오는 어버이사랑이여
그 사랑이 눈앞을 뜨거이 가리워
다시금 눈을 비비며 쳐다보는 하늘길이여

삭도들이 흐른다
속도전의 불바람으로
물길과 배길을 질러 달리는
가장 끈고 빠른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하늘길로-

삼화수송승리의 장엄한 나래를 펴고
하늘의 지름길이 흐른다
도시와 산간을 하나로 이어주며
공산주의 노을속으로 끝없이 흘러흘러가는 그
길위에

아,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 하늘가득 어려오고
이 가슴을 적시며 하늘가득 비쳐오고...

말없이 남기는 그 기록속에

김송남

별무리 비껴내린 듯
자동계기 총총히 마주 웃는 열조작반,
화력발전소의 심장부를 지켜
한시간... 또 한시간
조작공은 출력계의 수치를 기록한다

언제나 만부하의 높은 눈금을 가리키며
계기의 바늘도 기쁨에 떨고있는가
전력의 고지를 훑아가는
충성의 자욱자욱...
출력의 키로와트를 적는 이 순간은 좋구나

은빛 송전선 멀리
세차게 굽이쳐가는 전류의 흐름소리
자신의 숨결인 듯
타빈과 보이라의 거센 동음을 헤아리며
정숙에 습관된 그 눈빛에도
전류처럼 기쁨의 불꽃이 흐르고

조국에 보낸 전기의 량을
시간마다 땀땀이 헤아리기 위해
불타는 화실로 발전기의 회전속으로
끝없이 달려가던 세찬 맥박을 안고
말없는 얼굴에도
마음속에 묻어드는 그 자량은 어리고...

펼쳐지며 내달리는
대건설의 전구와 전구들,

3대혁명의 길에
전변하고 비약하는 력사의 즐기 찬 흐름을
계기의 눈금으로 가늠해가며
이 땅의 일이 시작되는곳에
그대의 눈빛 빛나고있어라

먼 산굽이를 돌아가는
전기기관차의 높은 기적소리 들으면서도
합성탑이며 전기로들의 뜨거운 숨결과
새 도시가 솟아나는 건설의 장엄한 음향을 새기면
서도
더 보내야 할 전기의 량을 헤아려
그대의 생각은 즐겁고 그대의 로동은 보람차거니

그대 여기 앉아있어도
조국에 끝없이 전기를 보내며
멀리 앞서 가야 할 걸음
웁기는 발걸음 더디게만 느껴져
높아가는 출력의 자랑스런 그 수자도
말없이 일지에 적는 그 마음을 안다

아버이수령님께 삼가 드릴
크나큰 기쁨을 마련해가는 마음
그대 소문없이 그 기록 남기여도
아, 이 땅의 후세가 길이 읽어갈
대건설 대비약의 불멸의 년대기가
그 글발속에 뚜렷이 남겨지고있어라!

교원

박찬은

1

아담하게 2층으로 지은 송산고등학교는 반달산 밑에 자리잡고있었다. 학교앞으로는 넓은 벌이 시원스레 펼쳐나갔고 교사둘레에는 아름답리 백양나무들이 솟아있어 멀리에선 은회색지붕만 보였다.

초겨울 어느날 아침이었다. 나이 지긋한 물리교원인 지학선은 어느날과 같이 일찌감치 일어나 학교길로 걸어가고있었다. 밤새 서리에 불리워 저절로 은빛도장이 된 교재원의 나무가지들에 박새들이 소리없이 날아들고있었다.

운동장두리에 이르러 황철나무에 달려있는 물리공식표들을 잠깐 바라보던 지학선은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다. 그러자 나무그루사이로 저쪽 배구장끝의 개울가에서 열심히 뿔수마찰을 하고있는 남병기교원이 눈에 띄었다. 그는 수학과목을 담당한 날과람있는 청년교원이었다. 지난 밤에 수직을 서고 일찍이 개울가로 나온 모양이었다.

굽실굽실한 교수머리에 이마가 넓은 남병기는 몸매도 그뿐하고 두눈이 총기있게 빛났다. 그는 수학은 물론 화학, 영어 등 못하는 과목이 없는 다과목교원이었다. 동작이 날쌔고 판단이 기민하여 통구도 잘하지만 건드러지게 손꼽금도 잘타는 사람이었다. 이래전부터 교단을 밟기 시작하는 남병기는 금년에 처음으로 3학년1반인 남자학급을 담임했다.

《병기선생-간밤에 수고했겠소!》

지학선이 그쪽에 대고 소리치자 젖은 꽃수건을 꼭 비틀어짜던 남병기가 기둥그루같은 목을 이쪽으로 돌렸다. 그리고 반기는 목소리로 《어떻게 일찍 나오셨습니까?》 하고는 서둘러 빨간 체육복 상의를 주어입으며 개울가에서 올라왔다.

지학선은 외형적으로 특징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다. 머리는 쑥 올려주었으며 하관이 빠르고 키가 쎄췌했다. 몸집이 없어서인지 양복이 좀 후렁후렁한 감을 주었다. 그렇지만 배구장에 들어서면 왼손잡이가 총알같았다.

어느때 보아도 목달개는 붓으로 그어놓은듯이 정갈하고 포근해보였다. 목을 뒤로 젖히며 호탕스레 웃어대는 일은 거의 없고 입보다는 눈이 먼저 웃는 사람이었다. 말은 화려하게 할줄 모르지만 침착한 목소리는 은근했고 마디마디가 명확했다. 성을 내

는 일은 별로 없으나 어찌다 흥분하면 목소리가 더 작아지곤하여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이윽고 지학선은 두발을 나무에 붙이고 힘을 쓰다가 다리가 불편하여 눈을 지그시 감았다. 전쟁때 입은 부상으로 하여 지금도 다리에 굳은 힘을 주기가 껍 말쑤했다.

그가 잠시 나무를 올려다보고있을 때 등뒤에 다가온 남병기가 《분과장선생님두, 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나무람이 섞인 어조로 말하며 락엽우에 떨어진 지학선의 양복단추를 집어들었다. 땅에 내려선 지학선은 단추를 받으며 빙그레 웃었다.

《허-내가 남선생의 몸단련에 방해를 주었나보군...》

남병기는 지학선의 손에 쥐여져있는 같은 규격의 판자쪽들을 놀란 눈길로 들여다보았다. 이것은 새 물리공식표들이었다.

《아니?! 이걸 또 갈아달자구 합니까?》

남병기가 이렇만도 했다. 연한 하늘색 바탕에 진한 곤색으로 또박또박 글자를 새긴 저 공식표들을 나무들에 달아놓은지 불과 열흘밖에 안됐는데 이렇게 오늘 아침엔 닭알색바탕에 빨간색으로 활달하게 글자를 그린 새 공식표들을 또 갈아달겠다고 하니 남병기로서는 참말 이상스레 보일밖에 없었다. 지학선은 테컹은 안경을 추스르며 두눈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조금만 더 학생들을 위해주면 그들의 실력은 그만큼 높아질게요. 학생들의 눈길이 스스로 이쪽에 자꾸 쏠리도록 해야지요...》

남병기는 그저 싱긋이 마주 웃을뿐이었다. 그러다가 힘있게 한손을 척 내밀었다.

《주십시오. 제가 다 달겠습니다.》

남병기는 얼른 공식표들을 받아쥐고 훌쩍 나무위로 올라갔다. 그는 에네르기전환 및 보존의 법칙은 이쪽에 달고 비침도의 제1법칙은 저쪽 나무에 달라며 껌싸게 놀리기 시작했다.

일은 짧은 시간내에 제격 끝났다.

얼마후 남병기는 교원실로 들어가고 지학선은 방금 달아놓은 새 공식표들을 다시한번 돌아보았다. 뒤시간후에 운동장으로 끌어든 아이들이 나무들 밑으로 흩어져가는것이 보이는듯싶었다.

한 아이가 질문을 하면 다른 아이는 눈을 감고 외워보고 그것이 재미있어서 곁에 있던 심술꾸러기가 코등을 꼭 쥐여당기고 내뺄면 아이들은 와-하고 쫓아간다. 그들은 기어이 장난군을 붙잡아 억지로 눈을 감기고는 깔깔 웃고 떠들며 《은행나무》, 《수삼나무》, 《평양뽕뿌라》하고 소리친다. 그 나무들에 달려있는 공식들을 불러보라는것이다. 4,5학년학생들은 제법 위신있게 뒤집을 지고 술술 거닐면서 말없이 눈으로 익혀본다.

지학선은 이 광경을 그려보며 혼자 웃음을 머금었다. 아이들을 생각할 때면 왜 그런지 자꾸 가슴속에 후더운것이 그득하게 차오르고 까닭모를 힘이 솟아올라왔다.

그가 무심히 학교쪽을 바라보니 수직실문이 열리면서 키가 후릿한 한 남학생이 책가방을 들고 돌층계를 내려오고있었다. 그는 머리를 숙이고 제 발등만 들여다보며 걸었다. 운동장기슭에 이르러 나무들을 한번 훑음 쳐다보고는 다시 본체도 안했다. 무엇인가 귀찮다는 태도였다.

(봉석이가 아닐까?)

지학선은 어떤 예감이 번쩍하여 그쪽으로 스적스적 마주 걸어갔다. 아니나다를가 눈섭이 새까맣고 얼굴이 등실하게 생긴 봉석이었다. 그는 남병기가 담임하고있는 3학년1반 학생인 동시에 자기가 지도하는 학교물리소조원이기도 했다. 2학년때까지만 해도 장난이 심한 웅석꾸러기였지만 인제는 교복도 쪽 빼고다니고 제법 청년꼴이 잡히기 시작했다.

봉석이가 물리소조에 들어온것은 2학년때부터였다. 아이가 손재간이 있고 눈썰미가 역어서 무엇이든 한두번 뜯어맞추어보면 그 물체의 속내는 곧잘 알아내곤 했다. 그런 봉석이여서 벌써 고성기쯤은 1학년때부터 만들곤하더니 금년부터는 라지오를 꼭 제손으로 조립할 결심을 단단히 품고있었다.

지학선은 그것이 기특하여 남달리 애정을 기울여왔고 앞으로 《약전공학박사》가 되라고 꿈을 길러주었다. 그때로부터 봉석의 꿈은 커다란 희망의 날개를 펼치고 자라나기 시작했다.

봉석은 지학선을 보자 모자를 벗고 꾸벅 인사했다. 왜 그런지 그의 낯빛은 몹시 흐려있었다.

《너 어제 집엘 안갔겠니?》

《저녁먹구 나왔다가 밤도 깊구...집도 멀어서 그냥 잤습니다.》

《인제 가서 조반을 먹고 오려구?》

《네.》

《그런데 왜 그렇게 우울해졌니?》

지학선은 곁에 있는 조마우에 비스듬히 걸터앉았다.

《어제밤에 담임선생님이 내준 수학응용문제들을 못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기가 죽었나?》

《전 물리소조원자격이 없답니다...좀더 지나보는 물리소조에서 ... 떼겠답니다.》

봉석은 발끝을 비비적거리더니 오뎅해서 정문밖으로 뛰쳐나갔다.

획-찬바람이 불어치며 지학선의 후련한 양복자락을 날렸다. 그는 한대 맞은듯 가슴이 알찌근했다.

(학생이 담임교원을 원망하고있구나. 아이들의 문제라고 해서 손쉬운 방법으로 처리해선 안되겠는데...)

교원실에서 텃들어진 손풍금소리와 함께 흥이 나서 부르는 남병기의 노래소리가 은은하게 울려왔다.

자리에서 일어난 지학선은 살얼음이 잡힌 수영장기슭으로 걸어가 물포장을 한 가늌를 따라 조용히 거닐었다. 머리를 풀어헤친 수양버들가지들이 그의 어깨를 다정하게 어루만졌다. 지학선은 그 한가지를 진채 깊은 생각에 잠기었다.

그의 눈앞에는 어제 점심녁에 있었던 일들이 삼삼히 되살아올랐다.

...며칠전부터 군에서는 이달에 계획한대로 각 학교들에 내려와 수학과목에 대한 실력을 선택검열했다. 송산고등중학교에서는 마침 수학과목담당인 남병기네 학급이 지목되었다. 학교에서는 정말 선수선발이 안성맞춤으로 됐다고 기대를 걸고 기뻐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교원들은 이따금 웃는 말로 남병기를 《소대장》이라고도 불렀다. 칼칼한 성미에 자존심이 강한 그는 그림자처럼 학급에 딱 붙어있었고 그 맨 선두에서 무슨 일이나 불이 번쩍나게 해치우곤 했다.

그래서 그는 대렬에서도 일등, 생산실습에서도 일등, 파철수집, 토끼기르기, 파외체육 등 학급을 학교의 《별》이 되게 하여 군적인 모범학급으로 만들 결심이 컸다. 젊은 교원이 자기 얼굴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욕망도 없지 않았다. 학급은 척 보면 부러울만큼 짜여있었다.

일부 교원들이 말하듯이 남병기가 너무 학생들을 짊어쥐고 다그어대기때문에 오히려 자각성이 다른 학급들보다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가 땀을 많이 흘리는데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래서 교원들은 한결같이 기대를 걸었으나 결과는 소리칠 형편이 못되었다. 교원실에서 검열성원들과 함께 자연과목분과장인 지학선이 시험지를 채점해보니 유감스럽게도 봉석을 포함한 몇명이 보통생이 되고말았던것이다.

지학선은 저절로 눈길이 남병기에게로 돌아갔다. 예상한대로 벌써 남병기는 어깨가 무너져서 자기 책상앞에 앉아있었다. 정말 봉석이까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모양이다. 남병기는 모닥불을 뒤집어쓴듯 얼굴을 붉히고있었다. 그는 지학선이와 눈길이 마주치자 지그시 아래입술을 깨물었다.

《제가 학습지도를 잘못한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틀어쥔줄로만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남선생, 우리 좀 생각해봅시다…》

남병기를 눈여겨보던 지학선은 그저 묵묵히 책상 주위만 거닐었었다…

한동안 수영장두리를 에돌던 지학선은 아침을 먹으려고 집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는 걸어가면서도 줄곧 자기 생각에 잠겨있었다.

그러니 성미가 급한 남병기가 어제밤 봉석이를 불러내어 그와 밤새껏 이마를 맞대고있는 모양이구나! 교원이 너무 학생을 다그어 맞붙어있으면 오히려 결바르고 말썬서 문제를 풀것도 못푸는 법인데…그러니까 남병기는 아마 당황해하는 봉석이한테 이런것도 못풀면서 라지오가 다 무엇인가고, 수학 과목을 해결하기전에는 물리소조에도 갈 생각을 말라고 통을 준 모양이다.

그런데 남병기의 말대로 인제 와서 봉석이를 물리소조에서 쫓 떼버린다면 그것은 곧 훌륭한 약전 공학박사가 되려는 한 학생의 소중한 꿈을 짓밟아주는것밖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을것이다.

오히려 불만에 찬 봉석은 더욱 수학에 등을 지고 뺨뺨으로 나가게 될게다.

아침 첫 해살이 뻗어오자 수백개의 창유리들에서 금빛 광채가 이글이글 타올랐다.

2

이날 학과가 끝난 저녁녘이었다. 실험실에는 물리소조원들이 모여 조용히 실험들을 해보고있었다. 뽀뽀…뽀뽀뽀…전건 두드리는 소리, 프리즘을 보는 아이들, 잠망경을 만드는 아이들…그가운데서 다림발이 선 하얀 실험복을 양복우에 끼입은 지학선이가 안경알을 번뜩이며 학생들을 살펴보고 있었다. 어찌보면 연구사같기도 하고 의사 비슷하기도 했다.

이때 코노래를 흥얼거리며 복도로 걸어오던 남병기가 실험실로 쑥 들어왔다. 그는 요즈음에 새로 나온 목직 한 장편소설을 거드랑이에서 뽑아 지학선이 앞으로 내밀었다.

《빠르군, 벌써 다 읽었소?》

《생활을 아주 깊이있게 그렸습니다.》

《훌륭한 책이로군, 내 빨리 보구 돌려주겠소.》

흐뭇한 마음으로 책을 들여다보던 지학선은 이윽고 고개를 쳐들었다.

《참, 남선생, 봉석이가 그전에는 수학실력이 꽤 참았지요?》

《2학년초기엔 철우하고도 겨뤘는데요.》

철우는 수학에 펴 나는 학생이었다.

《음-그사이 라지오에만 정신을 팔다나니 인젠 매채기를 친단말이지요…》

《저두 정말…봉석이가 그렇게까지 퇴보한줄은 모르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부턴 집중적인 힘을 넣으려고 합니다.》

《물론 통제도 해야지요…내가 수학응용문제풀이를 한 100문제 뽑아둔게 있는데 그걸 봉석이한테 주어보는게 어떻가요?》

그러자 남병기의 두눈에 저으기 놀라움이 비껴 흘렀다. 자기 과목을 도와주려는 분과장의 속깊은 마음이 고맙기는 하나 어쩐지 썩 동감이 안가는 모양이었다.

《글쎄 그 학생을 계속 물리소조에 뒤가지고서는 해결될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꺼차구 돌격적으로 내밀어야 될것 같습니다.》

《허허, 그렇게 하면 더 더딜것 같구만요. 우리 교원들에게야 인내성이라는 좋은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미가 칼날같던 사람도 교원을 몇년간 하면 판사람이 되는것 같습니다.》

《좌우간 생각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러는데 열어놓은 출입문밖에 봉석이가 서있는것이 얼핏 보였다. 그는 성큼 들어오지는 못하고 어줍게 서서 바채기만 했다.

《저것 보시오. 봉석이가 벌써 주접이 든것 같습니다.》

지학선은 입가에 미소를 띠우며 출입문쪽을 가리켰다. 그것을 보고 남병기도 허구픈 웃음을 웃고 말았다. 지학선이가 얼른 다가가 봉석의 손을 잡아 이끌었다.

남병기가 나간 다음 지학선은 봉석이더러 어제 하던 단권변압기권선을 마저 감으라고 지시했다.

얼마쯤 시간이 지나서였다. 일에 심취되었던 봉석은 단권변압기에서 손을 떼자 자기의 손재간에 스스로 만족했다. 그리하여 검열을 받기에 앞서 서둘러 스위치부터 넣어보았다. 교원으로부터 틀림없이 칭찬을 받게 되리라는것을 먼저 생각했으므로 어지간히 흥분되었던것이다.

이때 구석쪽 실험대우에 물리패도를 펴놓고 보던 지학선은 갑자기 단권변압기에서 연기가 풀썩 뿜어나오며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르자 와들 놀라 허리를 폈다. 그리고 번개같이 달려가 스위치를 끄는 순간 빙-둘러선 학생들의 얼굴부터 살펴보았다. 놀라

서 울퉁해진 눈들이 교원을 지켜보았다. 봉석은 낮빛이 파랗게 질려 모아잡은 두손을 부르르 떨었다.

자기의 잘못을 너무나도 뼈아프게 느끼며 호된 추궁을 기다리고있는 학생! 무거운 침묵, 교원의 엄한 목소리가 터질 순간!

《허허허...》

별안간 지학선은 흘러내린 안경을 밀어올리면서 그답지않게 꺾꺾 웃어댔다. 그 은근한 웃음소리는 파닥거리던 어린 심장들을 비단결처럼 포근하게 감싸주며 뿔뿔 박동을 서서히 진정시켜주었다. 그는 조용한 몸가짐으로 주섬주섬 단권변압기를 책상 곁에 있는 책상우에 올려놓았다.

(너석두, 설익은데 없이 잘 구워났군.)

속으로는 여간만 아쉽고 분하지 않았다. 사실은 지학선이 자신도 실험실에서 퍼그나 아끼던 코일선이었지만 학생들을 위해 사심없이 내놓았던것이 이렇게 타버리고말았다.

봉석은 그저 죄스러워서 머리를 푹 수그린채 손톱어물만 자꾸 썰었다. 그러는 학생을 지학선은 일부러 두눈에 미소를 띄우고 내려다보았다.

얼마후 지학선은 물리소조원들을 자기 학급들로 돌려보낸후 실험실 구석쪽에 있는 책상앞으로 봉석을 데리고갔다.

《그래 단권변압기가 왜 탔는지 알겠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봉석의 사고는 자기 손재간만 믿는데서 생긴거야. 전기저항계수를 옳게 계산하지 못했거든. 보라구, 수학적기초가 약하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

《.....》

《어떻니, 정말 수학이 힘이 든가?》

《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밀어놓은 모양이지?》

《저-사실...》

학생은 솔직했다.

《봉석이, 기초를 다지지 않고 집을 짓는걸 봤니?》

《못봤습니다.》

《그것보라구, 기초가 없으면 집이 무너져... 봉석이두 마찬가지야. 첫째가는 기초과목인 수학은 밀어놓고 그저 맡은 손재간에만 흥미를 붙여가지고는 절대로 과학자가 못돼. 힘들다고 물러났는것은 의지가 약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결함이지.》

지학선의 음성은 엄하게 울렸다.

《세상엔 그런 사람치구 과학자가 된 사람이 한명도 없구 또 사회적으로 큰일을 한 사람도 없어. 그럼 의지가 그렇게 약한 봉석인 장차 어떤 사람이 될텐가?》

봉석은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을 푹 수그리고 숨도 크게 못쉬었다.

《그래 너는 부끄럽게도 진짜 수학앞에서 두손을 들고말겠니?》

그러자 봉석은 서서히 고개를 쳐들었다. 말없이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이윽고 지학선은 책상함에서 책처럼 두툼한 학습장을 한권 꺼내 봉석이앞으로 내밀었다.

《사람이 결심해서 못하는 일은 없어. 여기에 수학응용문제 100문제가 있으니 이걸 다 풀어야겠다. 풀다가 모를게 있으면 아무때, 아무 장소에서나 물어렴.》

봉석의 두눈이 휘둥그레졌다.

《왜? 내가 수학을 못가르칠가봐?!...》

《아, 아닙니다...》

말꼬리를 흐리는 봉석의 두눈에 물기가 그렇하게 차오르기 시작했다. 학생은 어찌하여 교원의 두눈에 저렇게 피가 졌으며 꺼칠해진 얼굴에 피곤이 물렸는가를 깨달은 모양이다.

지학선은 어제 점심시간부터 2, 3학년 수학교재들에 있는 응용문제들을 전부 윤색하여 《100문제 풀이》를 만드느라고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던것이 다.

《봉석이, 변압기 걱정은 말구 정신을 여기에만 집중해야 돼, 알겠니?》

《네.》

지학선은 봉석을 애무에 찬 눈길로 한참 바라보았다.

《그래 봉석이, 어떻게 해야 아버지원수님께 큰 기쁨을 드릴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하였다.

《공부를 잘해야 합니다.》

《됐어, 난 봉석이가 꼭 그렇게 하리라고 믿지.》

이윽고 봉석은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선생님, 이 수학문제들을 꼭 내머리로 다 풀고야말겠습니까!》

그의 두눈이 흑진주처럼 빛났다.

《봉석이, 그럼 한 절반쯤 풀었을때 먼저 담임선생님한테 검열을 받으라구. 난 마지막에 보겠으니까.》

지학선은 학생의 어깨를 두드려주었다.

《그리구 라디오를 조립하기 위한 준비도 다 됐는지?》

《저의 됐습니다.》

《그것을 잘해서 한가지 기술도 꼭 익히자...인젠 가보라구.》

봉석이가 나간지 얼마 오래지 않아서였다. 지학선이 변압기를 해체하고있을때 자기 반 학생이

사고를 쳤다는것을 뒤늦게야 알은 남병기가 실험실로 썰 들어왔다. 그는 굵실굵실한 교수머리를 괜히 두어번 쓸어넘겼다.

《아주 못쓰게 됐습니까?》

《무얼…괜찮소!》

지학선은 녹아버린 코일선들을 감추듯이 한쪽으로 밀어놓고 물리교과서를 올려놓았다. 남병기는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그것을 못본체했다.

《선생님, 봉석이 말을 들어보니 그어한테 벌써 수학문제를 100문제나 쫓더군요.》

《허-아카도 말했지만 좀 도움이 될가 해서…》

《응당 제가 할 일인데 분과장선생님까지 고생을 시켜서…선생님, 아무래도 봉석일 물리소조에서 당분간 떼구 학급생활을 좀 시키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허허 참, 그건 학생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니깐…》

《글쎄 봉석이가 학급과 많이 떨어져있으니 행동이 무질서해져서 사고까지 치구 공부도 취미본위로만 한단말입니다. 제가 꼭 틀어잡아야 하겠습시다.》

《남선생, 조급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다스리는 교원은 본의아니게 그들의 꿈을 짓밟을수 있다오…학생들한테 자각성을 길러줍시다.》

《지금껏 스스로 하지 못한 공부를 이제 하겠습니까?》

그러자 지학선의 눈길은 엄엄하게 굳어지기 시작했다. 평소에 조용하다가도 배구장에 들어서면 왼손강타가 무서운것처럼 그에게는 너그러운것만큼 맵짠데도 있었다. 목소리는 낮으나 마디마디에 박력이 있었다.

《남선생, 그것은 교원이 할수 있는 말이 아니지요! 교원이 결심만 하면 못할 일이 없다고 보오. 물이 끓을 따라 흐르듯이 아이들도 교원이 이끄는것만큼 따라옵니다.》

《글쎄 교양을 해야지요. 하지만 다그어대야 빠른 시간에 학급을 모범학급으로 만들구…》

지학선은 즐겨하지 않는 담배를 한대 꺼내며 천천히 뒤말을 이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위대한 교육체제에서 교원은 직업적인 혁명가이라고 가장 고귀한 칭호를 주셨는데 그렇게 인내성이 없이 학생교양을 손쉽게 하려 하면 어떻게 교육자의 본분을 다할수 있겠소.》

교원이 위신을 위해서 일할수야 없지 않소. 학생들의 문제일수록 더욱 심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남병기는 말없이 큰 숨을 내쉬었다.

《남선생, 봉석의 지향과 꿈을 잘 키워줍시다. 봉석이가 한쪽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바로잡아줍시다.

술한 학생들을 끌고루 바로잡아주고 훌륭하게 키운다는것은 참말 힘든 일이지요…》

《저 그렇지만 봉석이를…》

《걱정마오. 서로 같은 자연과목분과에 있으면서 내가 남선생을 도와줄수도 있지 않소?》

《아니? 그럼 봉석이를 선생님이?!》

학급담임이나 수학과목담임도 아니면서 《100문제풀이》까지 만들어준것이 결국 자진하여 봉석이를 책임지겠단 소리라는것을 간파한 남병기는 저으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좌우간 남선생, 봉석이를 당장 떼다 어쩐다 하지 말고 좀더 두고봅시다.》

남병기는 더 우기려 하지 않았다. 자존심이 꿈틀거리는지 입을 꼭 다물었다.

지학선은 남병기가 나가버리자 천천히 창가로 다가가았다. 멀리 서쪽하늘에 연보라빛 락조의 후광이 점점 사라져가면서 애기별들이 하나 둘 돌아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상심었다.

이 시각 지학선은 봉석이뿐만아니라 자기가 데리고있는 물리소조원들모두를 한명한명 눈앞에 세워보았다. 다들 학습에서 우수한가? 진작 따져보니 걸리는것들이 없지 않다.

봉석이를 놓고보아도 그가 손기가 역고 눈치가 빨라 잔재간이 있다는것만 기특하게 생각하던 나머지 수학실력이 약한데 대해서는 깊은 주의를 못돌리지 않았는가. 물리소조원으로서 손재간이 있다하여 수학응용능력이 저절로 생기는것은 절대로 아닌것이다.

이때껏 눈먼 사랑을 했다. 어느 한 측면만 편애하면 실력이 높은 아이라 해도 거만해지기 마련이다.

지학선은 자책감으로 하여 오래동안 모태졌다. 이십여년간이나 교단에 서있었다는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다.

3

한동안 푸근하던 날씨가 수영장의 얼음이 풀리는 데 노역을 샀는지 요즘엔 몹시도 차졌다. 저녁시간과 일요일의 많은 시간을 지학선은 봉석의 학습지도에 바치였다.

이십여일이 지나간 어느날, 지학선이 점심을 마친후 학교로 나가니 남병기가 자기 책상에 앉아 봉석이의 《100 문제풀이집》을 검열해보고있었다. 그동안 봉석이는 절반을 쑥 넘겨 풀어낸 문제들을 오늘 아침에 담임교원한테 가져왔던것이다.

남병기는 새까맣게 찌고 다시 쓰고 한 문제풀이를 간간하게 따져나갔다. 머리를 자주 끄덕끄덕

하다가는 한쪽 여백에다 빨간색 원주필로 무어라고 몇자씩 써놓기도 했다.

《어떻소? 모대김이 보입니까?》

지학선이가 기대어린 눈길로 들여다보자 남병기는 흥분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선생님, 봉석이는 남다른 결심을 한것 같습니 다.》

《가꿀수록 잘되는것이 곡식인것처럼 아이들도 교원이 가꾸어주는만큼 키가 크게 될겁니다…》

남병기는 의미심장한 얼굴로 지학선을 쳐다보았다. 그는 학습장을 쥐고 기쁨에 넘쳐 출입문밖으로 달려나갔다. 아마 봉석이를 만나러 자기네 학교으로 가는 모양이다.

복도 저쪽으로 쿵쿵 멀어져가는 남병기의 발걸음 소리가 지학선이에게는 무슨 북소리처럼 흥겹게 들렸다.

며칠후, 밤이 어지간히 깊어서였다. 지학선이가 물리실험실에서 래일 진행할 실험준비를 갖추고있을 때 뜻밖에도 손기척소리와 함께 봉석이가 헐떡거리며 달려들어왔다.

《아니?!…무슨 일이 있느냐?》

지학선은 두눈이 휘둥그래져 안경을 척 벗어들었다. 아마도 봉석이는 집에서 여기까지 뛰어왔는지 이마에 땀이 번지르르하게 흘렀다.

《선생님, 거 있지 않습니까…어제밤에도 상당히 힘든 문제라고 몇번이나 설명해준 그…그 70 번 응용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

지학선은 껄껄 웃었다.

《또 있습니다. 전기저항계수도 계산해냈습니다. 제가 좀더 미리 이런걸 알았으면 사고도 안치는건데…》

봉석은 학습장을 실험대우에 퍼놓고 벌컥벌컥 뒤졌다. 지학선은 웃음어린 얼굴로 번들거리는 학생의 이마를 쳐다보며 하얀 손수건을 꺼내서 내밀었다. 그러자 봉석은 키드득 웃으며 한발 물러서더니 자기 팔소매로 이마를 뽁뽁 문질러버렸다.

《허허, 못난녀석…》

지학선은 두눈을 습벅거리었다. 얼마나 기뻐오면 차릴 차고 학교로 달려왔으랴. 틀림없이 자기의 기쁨을 교원과 함께 나누고싶었으리라! 고심끝에 기어이 또 한계단 올라서서 무한한 희열에 잠겨있는 학생이 볼수록 기특하기만 했다.

그는 봉석이와 가지런히 앉아 학습장을 들여다보았다. 한 문제를 푼것이 한페지가 넘는데 끈덕지게 풀고 찌고 한 검질긴 인내력이 깃들어있었다.

《그렇지. 이 응용문제풀이는 우선 런립 2원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놓은것이 옳았다…그리구 해법

에서 잘 처리한건 이 방정식을 8을 방정식 1에다 제격 갈아넣은것이다…》

《그런걸 처음엔 구한 x의 값을 방정식 6에다만 갈아넣으니까 막 안돼서 혼났습시다.》

《음-참 생각을 깊이했다. 좋아…》

봉석은 귀밀을 붉히며 싱긋싱긋 웃었다. 지학선은 그러는것이 사랑스러워서 학생의 머리를 슬쩍 건드리며 《이건 자꾸 써야만 깊어지구 넓어지거든…》하고 마주 웃었다.

《선생님, 인제 나머지 문제들을 닷새동안에 다 풀어서 검열을 마치겠습니다.》

《그래? 본때를 보일작정이구나! 닷새면 토요일 날이지?》

《네, 토요일날…》

《그런데 라디오조립도 잘 돼가니?》

《저-전자관이 세개뿐이여서 소리가 좀…》

《음-알만해, 같은 값이면 5 구라지오 이상되게 잘 만들자꾸나.》

봉석은 입이 함박만큼이나 벌어져 싱글벙글 했다. 지학선이기도 학생의 요구라면 무엇이냐 다 들어주고 만싶었다.

얼마후 봉석이를 돌려보낸 다음 지학선이가 교원실로 오니 의외에도 남병기가 창가에 그린듯이 서서 밖을 내다보고있었다. 다들 퇴근한 방안에 벽시계소리만이 류달리 컸다.

《아니? 왜 가지 않았소?》

남병기는 돌아섰다. 그의 낮빛은 침울했고 목소리도 서글렀다.

《선생님, 전 오늘 처음으로 자신의 자세에 대해서 돌이켜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학선은 말없이 결의 의자에 앉았다.

아까 남병기는 퇴근하던 길에 지학선이와 같이 가려고 물리실험실로 갔뻤었다. 그런데 분과장과 학생은 그 누가 출입문을 여는것도, 밤이 깊어가는 것도 모르는듯 이마를 맞대고 앉아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그는 방안의 분위기가 무슨 부자간처럼 스스럼없는데 놀랐고 동시에 부러움을 금치 못했다. 그리하여 그 분위기를 깨뜨리고싶지 않아서 소리없이 발길을 돌린 남병기는 왜 그런지 가슴 한구석이 텅 빈듯 허전해졌던것이다.

《자-남선생, 밤이 깊었소.》

《선생님. 저는 신입교원으로서 학생들을 두고 이렇게 생각이 많아보기는 처음입니다…노력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누구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노력해야 할 우리들이 아닙니까. 허허…》

침묵이 흘렀다. 오래동안...창바투 내려온 저 하늘의 못별들만이 그 무슨 하많은 사연을 속삭일듯 자꾸만 새물새물 웃고있었다.

...함박눈이 소리없이 내리는 저녁이었다. 비교적 큰 산들이 둘러앉은 읍거리는 눈오는 날 밤의 특유한 정서가 깃들어 한껏 조용하고 포근하였다. 부나 비뻬같은 눈송이들이 가로등불빛을 희롱하듯 나뭇나뭇잎을 춤을 추는 큰길 한가운데에 키가 후리후리한 사람이 우두커니 서있었다. 지학선이였다.

그는 오늘 군교육과에 실험기구청구서를 내려 점심빠스를 타고 올라왔던 길이었다. 그런데 지도원이 요구하는 통계를 몇점 뽑아주고나서 라디오전자판때문에 또 뒤곳 들리다나니 시간이 지체되어 빠스들을 다 놓치고 말았던것이다.

지학선은 외투주머니에 두손을 지른채 가로등밑에서 서성거렸다. 어떻게 할가? 인젠 차도 없는데...래일은 일요일이지? 러관에 가서 폭 자고 낮빠스로 편안히 내려갈가? ...그런데 그의 눈앞에 봉석의 얼굴이 확 안겨들었다.

바로 며칠전에 약속했던 오늘이 그 토요일이었던것이다. 내가 래일 내려간다고 전화라도 한통 걸어줄가?

그 순간, 《100 문제풀이집》을 들고 교원을 기다리다못해 지쳐버린 학생이 《선생님은 저를 잊었습니까?》하고 귀따깝게 반문하는 목소리가 들리는듯싶었다.

더구나 봉석은 그 100 문제를 풀어제긴 기쁨을 안고 래일 일요일에는 틀림없이 라디오조립에 들어붙을것이다. 그런데 전자판도 모자라고 또 교원의 지도도 받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와하랴. 교원은 학생들을 위해서만 필요한 존재가 아닌가. 그들을 위해서는 천리라도 웃으면서 가는 사람이 곧 교원일것이다!

지학선은 순간이나마 망설인 자신의 행위에 스스로 얼굴을 붉혔다. 캄캄한 밤, 숫눈길 40 리가 두렵단말이지? 이 두려움속에 교육자의 량심을 물어버리겠단말인가? 어제날의 화선병사가 언제 이렇게 안일해졌을가? 그의 입가에 쓰거운 미소가 번져나왔다.

지학선은 눈발이 날리는 행길을 따라 터벅터벅 걷기 시작했다. 눈보라는 도넛스럽게 장난질을 쳤다. 신작로의 눈들을 굽어모아 돌개바람처럼 뱅글뱅글 말아올리다가는 사나움을 시위나 하려는듯 쏜살같이 우-넵다 달리기도 했다. 그러나 양털방한모를 너풀거리며 걸어가는 지학선의 이마엔 질편하니 땀발이 내뿜었다. 전쟁때 파편상을 입었던 다리가 저려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가고싶어 가는 길은 힘이 들어도 즐거운 법이다. 네시간이나 거의 걸은 지학선이 학교앞 등성이에 올라서니 교원실창문에 불빛이 환했다. 기다리고있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불이 켜져있을 리 없다. 지학선은 자기가 오기를 참말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언덕길을 내리다가 주르르 미끄러져 넘어질뻔했으나 그래도 어쩐지 즐겁기만 했다.

얼마후 그가 현관에 들어서서 눈을 털자 교원실문이 벌컥 열리였다.

《선생님-》

봉석이가 총알처럼 뛰어나왔다. 뒤따라 남병기가 달려나오며 《아니?! 걸어오시는 길입니까?》하고 깜짝 놀라 굳어졌다.

지학선은 어린애처럼 기뻐하는 봉석의 두손을 덤석 부등켜잡고 흔들었다.

《아직까지 기다리고있었구나.》

그는 봉석의 손을 잡은채 교원실로 들어갔다. 남병기의 두눈은 그윽하게 빛났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전 선생님이 래일 오실줄 알았습니다.》

《허허, 제집에 와야 잠이 잘 오지요...음, 병기선생이 수직이로군요.》

《봉석이가 100 문제를 훌륭하게 다 풀었습니다. 제가 먼저 봤습니다.》

《그렇소?...허허, 이녀석, 어디 좀 보자-》

지학선이 학생을 품어안자 봉석은 싱글벙글 웃으며 어쩔바를 몰라했다.

《아이구, 네 키도 인젠 한메터는 더 컸구나!...장하다.》

학생의 잔등을 몇번이나 두드려주며 대견해하는 지학선의 목소리, 애무에 찬 눈길, 그 모든 진정이에린 가슴을 흔들어 봉석의 속눈썹이 축축히 젖어들었다. 학생은 고개를 공손히 숙이였다.

지학선은 외투주머니에서 종이에 차곡차곡 싸것들을 꺼내어 학생앞으로 내밀었다.

《자-전자판들이다! 인젠 라디오도 멋있게 만들어보자구.》

《선생님!》

봉석이가 머리를 쳐들자 그의 두볼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선생님은 다리도...불편하신데...》

두손으로 받아든 전자판들 우에도 눈물이 자꾸 굴러떨어졌다. 지학선은 안경을 벗어 말없이 손수건으로 닦았다. 저쪽으로 고개를 돌린 남병기의 눈에도 어느덧 이슬이 피어올랐다.

이윽고 지학선은 자기 책상함에서 전지를 꺼내어 학생의 손에 쥐여주었다.

《자-봉석이, 인젠 돌아가가거라.》

그의 은근한 목소리는 한껏 부드럽고 따뜻하였다. 지학선은 학생의 손에 들려있는 전자관들을 그의 호주머니들에 하나씩 갈라서 넣어주었다.

《눈길이 미끄러운데 덤비지 말라구…웅?》

교원과 눈이 마주치자 봉석은 천진스럽게 싱긋이 웃었다. 학생은 가을 하늘처럼 맑은 얼굴로 허리 굽혀 인사했다.

두 교원은 창결에 말없이 앉아 복도쪽에서 자박 자박 울리는 학생의 발걸음소리를 들었다. 가볍고도 경쾌한 여운을 남기며 멀어져간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있던 남병기는 존경어린 시선으로 지학선을 바라보았다.

《선생님, 저같은 한 학생을 위해서 이런 사나운 밤에 그 먼길을 걸어오자구 못했을겁니다…정말 못했을겁니다.》

그의 음성은 무거우면서도 진정으로 하여 뜨겁게 울렸다. 지학선은 너그러운 미소를 띠었다.

《남선생도 그런 경우를 당하면 주저하지 않을겁니다. 앞으로 지내보십시오.》

《선생님. 봉석이는 참 훌륭한 학생이 될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됐습니다.》

《남선생, 우리가 땀을 흘릴수록 열매는 커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봉석이더러 아까 돌아가라고 하니깐 어쩐지 선생님은 꼭 오실것같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전 그 말을 듣고도 생각되는게 많았었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묵묵히 창밖을 내다보았다. 한점의 불빛이 운동장끝으로 멀어져간다. 봉석이였다. 기쁜 마음으로 가고있을 학생을 내다보니 지학선은 이상하게도 가슴이 뿌듯하니 벅차오르고 피곤이 말

끔히 가셔지는것을 느꼈다. 또다시 학생들을 위해 그 어테건 갔다오라면 같듯만싶었다. 교육사업이 힘은 들지만 이보다 더 영예롭고 보람있는 일이어 데 있으랴!

어버이수령님의 교육사상을 받들어 새세대들을 조국의 기둥감으로 키우고 가꿔가는 이 숭고한 일에 한생을 바치고있는 교원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으리라.

남병기도 눈발속으로 사라져가는 봉석의 뒤모습을 이윽히 내다보고있었다.

그렇다, 봉석이는 이 밤, 이 시각부터 지학선이가 그렇게 애써 심어준 뜨거운 마음, 충성의 열정을 안고 자기의 길을 확고하게 걸어갈것이다. 장차 남들이 걷지 못한 과학의 길도 저렇게 신심에 넘쳐 헤쳐가리라.

남병기는 저도모르게 흥분이 살아오르고 가슴이 설레었다. 그는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저는 교원이란 이름을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했습니다. 그 이름은 학생들을 새 인간들로 만든다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엔 특별히 품을 많이 들여야 하지요.》

《전 교원으로서 첫 걸음을 다시 떤겠습니다!》

이 시각 남병기의 귀에는, 교원은 사람들의 앞에서 하는 일보다 뒤에서 학생들을 위해 고심하고 아글타글 하는 일이 더 많아야 한다던 지학선의 목소리가 세차게 고막을 두드려대고있었다.

불밝은 창밖에서는 여전히 함박눈이 소리없이 내린다. 이 희망찬 배움의 전당에 축복의 꽃보라를 뿌리는듯…

가고싶은곳

오창수

산에 밤풍년이 들었다.

알곡과 축산, 파수와 남새, 누에고치 할것없이 농장에서 모든것이 례년에 없는 대풍이 든데다가 밤나무마다 가지가 척척 휘도록 밤송이가 얹혀졌다.

아침저녁의 선기, 한낮의 따가운 별, 서늘러운 바람은 파란 밤송이를 누렇게 만들고 입을 벌리게 하고 입안에 들었던것들을 무시로 뱉어버리게 했다.

누구나 밤나무가 많은곳에 가기만 하면 배낭이면 배낭, 바구니면 바구니 가득가득 채울수 있다는 말이 났다. 그러나 농장에서는 밤을 주으러 일부러 산에 오르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대풍을 안은 농장의 모든 사람들은 그 은덕에 보답하기 위하여 긴장한 가을걷이전투를 벌리고있었다. 풍년가을걷이에 성수가 나서 산에 있는 밤같은것은 생각할 사이가 없었다.

때로 농장일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서도 앞뒤산풍경의 변화를 보며 혹은 양력과 음력 날자가늬를 해보며 절기의 변화와 세월의 흐름을 느끼고 언젠가 산에 올랐던 사람이 소문낸대로 산에 밤이 한창일거라니 메돼지가 축내고 판곳에서 약초캐러 온 사람들이 발각 뒤져갈거라니 하는 일종의 아쉬운 심정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때 더러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올같은 해엔 저 산림보호원아바이네가 좋겠군.》

《하, 말은 해서...밥먹구 나서느니 산판인걸 산에 가서 뭘하겠소. 산림보호원일이야 열흘이구 스무날이구 한달이구 두달이구 해두 그만, 안해두 그만일거란말이요. 하루종일 다래를 따먹구 밤을 주은들 바위가 말하겠소, 나무가 비판하겠소?》

사람들은 이렇게들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모르는 소리였다. 산림보호원 장성무는 노상 산판에 나가 사는 사람이지만 밤 한되 박 주어오는 법을 몰랐다. 그의 안해 송부연이 몇번 점심밥과 함께 배낭을 꾸려 내주었지만 성무는 저녁에 빈 밥팩에 빈 배낭을 가져왔다.

모두 빈그릇이라 겁먹고 그것을 받아드는 마음 역시 허전하여 부연은 《밤나무 있는 그쪽엔 또 못가셨됐구만.》하고 어설픈 웃음을 지었고 성무 또한 미안스러운듯 입을 열었다.

《또 못갔됐소. 여기저기 정신팔구 돌아치다나면 어느새 해가 가는지 원...》

《그럴테지요 뭐.》

부연은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는듯이 이렇게 대꾸했다. 그러나 철없는 막내아들인 인민반 1 학년생 광일이가 빈 배낭을 이리저리 뒤졌으며 서운함을 숨길줄 몰랐다. 그는 밤을 주머니에 넣고다니는 아이들을 부러워했다.

여러날째 하늘이 맑더니 하루아침 갑자기 구름이 졌다. 저녁에는 소낙비가 내리고 밤에는 바람이 몹시 불어쳤다.

성무는 문밖에서 무엇인가 바람에 불리워 뺑가당하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더는 잠이 오지 않아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앉았다.

《무슨놈의 바람이 저렇게... 저런놈의 바람, 나무다 꺾어지겠다.》

《그러나저러나 밤은 잘 떨어지겠수다. 아마 이번이 막물이 되겠는데...》

부연도 잠을 깨어 자리를 뒤흔들었다. 그러나 얼마후에 덧잠이 들었다가 다시 깨났을 때 그는 재채기를 했다. 방안에 담배연기가 찼던것이다. 어둠속에서 콩알만한 불이 움직거리다가 확 밝아지더니 푸르죽한 입술, 끝이 둥실한 코, 피발이 빨갛게 내뿜은 땀, 두둑한 눈두덩이 차츰 드러났다가 사라졌다. 그러더니 거기서 성무의 목소리가 울렸다.

《어서 일어나우. 오늘은 좀 더 일찌기 나가야겠는데 조반 늦겠소.》

부연은 말없이 일어나 옷을 입고 부엌으로 나갔다.

아침에 배낭과 바구니들을 가지고 산에 가는 사람들이 여느때없이 많았다. 농장에서 학교에서도 쉬는 날이었던것이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바람분 이틀날이어서 밤도 많이 떨어졌으리라 베풀는것이다.

광일이는 어머니더러 우리도 밤 주으러 가자고 졸랐다. 산에 가는 사람들이 많고 광일까지 조르니 밤 주으러 갈 생각이 부쩍 났다. 그러나 작업반 돼지관리공인 부연은 남들은 쉬지만 산에 갈수가 없었다. 돼지관리공 두사람중 한사람씩 휴식하기로 하고 이번의 휴식을 경숙이라는 관리공아주머니에

게 양보했던것이다. 이제 와 생각하니 그것이 후회되었다.

《오늘 내가 먼저 쉬자구 할가부다. 이제라도 가서 말할가...》

《아이들처럼 이랬다저랬다하겠소. 그만두오, 그만둬.》

《아니 가서 말하구 오겠어요. 이렇게 가고픈데 안가구 못견더요.》

부연은 경숙이네 집에 갔다왔다.

곧 산에 갈 차비를 했다. 성무는 언제나처럼 옆에 색연필이 꽂혀있고 안에는 수종배치도며 산림보호원수첩, 자료수첩들이 들어있는 끈 긴 가방을 둘러맸다. 부연은 밤 딸 준비를 했다. 바구니들에 배낭 하나, 자루 하나를 내놓고는 든든수가 좋다면서 자루 하나를 더 꿰었다. 다음 손칼을 준비해야 했다. 손칼은 광일이가 아버지에게 줄라서 앓아낸것이 있었다. 그것을 채근하자 광일이는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했다. 어떻게 했는가고 따지니 자기네 반 인철이를 주었다고 대답했다. 왜 주었는가고 다시 캐여물자 밤 너죽하고 바꾸었다고 간신히 말했다. 부연은 눈을 부릅뜨고 광일이를 꾸중했다. 광일이는 선생님앞에서처럼 머리를 숙이고 몸가짐을 바로했다. 성무는 그만하라는 뜻으로 부연의 팔소매를 끄당겼다.

세사람은 집을 나섰다. 한참 걸어가던 성무는 뒤를 돌아보며 웃었다.

《거 좀 떨어져서 오구래, 줄레줄레 남 부끄럽소.》

《흥, 바늘 가는데 실 간다구 당신 따라 이 산골엘 왔는데 오늘은 왜 어째서요?》

두사람은 마주 웃었다. 그리고 지나온 날들을 생각했다.

산림보호원 장성무와 그의 안해 송부연네 고향은 각기 다른곳이었다. 성무의 고향은 평안도 벌농촌이요 부연의 고향은 함경도 바다가어촌이었다. 새싹, 새색시 시절에 그들은 자기네 고향에 대한 자랑을 잘했다.

《우리 고향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고등어, 이면수, 홍어, 가재미, 방어...아무튼 물고기는 먹기 싫어마니까.》

《거기만 좋구 여긴 뭐 나빠? 무연한 벌판, 맘껏 달리고 또 달리고싶은 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벼포기가 슬렁대구, 가을엔 또 어땠겠소. 황금바다, 푸른 하늘 흰구름이 뭉게뭉게...난 여기서 늙어죽도록 살고싶소.》

《난 우리 고향에 가고싶어요.》

《가구려.》

《있으랴요.》

성무는 입을 꼭 다물고 건너다보고 부연은 입을 뾰죽 내밀며 마주보았다. 이렇게쯤 되면 바느질을 하며 앉아서 이제껏 겪은것들의 말을 듣고있던 늙은 어머니가 소리없이 웃음지었다. 두사람중에 누구든지 어머니의 얼굴을 훑쳐보고는 크게 웃게 되고 상대방도 따라 웃고 얼굴만으로 웃던 어머니마저 소리내여 웃었다.

《얼마간 있다가 당신 고향에두 가 살자우.》

《그러면 언제든지 여기에 다시 오자구는 안하겠어요?》

《그리우면 또 오지.》

《그다음 바다가 그리우면 또 가구요.》

악의가 없는 다름은 그렇게 해야 할 의무도 느껴지지 않는 약속으로 조용히 끝나군했다.

전쟁이 일었다.

《여보 난 가야겠소. 전선에 나가야겠소. **김일성** 장군님께서 방송연설을 하시였소. 모든것을 전쟁승리에로 바칠것을 호시하시였소!》 하고 어느날 성무는 부연에게 말하고 군사동원부로 뛰어갔다.

확확 단 손으로 부연의 손목을 한번 꼭 쥐었다놓았을뿐 다정한 말도 별로 없이 물러나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남편을 보면서 부연은 한편 야속하기도 했지만 바로 그 전선을 일이 끝나자바람으로 급히 오군하던 집(그때 부연은 만삭이 되어 집에 와있었다)과는 비교할수도 없이 마음끌리는 곳으로 생각한다는것을 새삼스레 느꼈으며 그 어떤 승엄한 감정에 사로잡혀 눈물이 글썽했었다.

남편이 전선으로 떠나자 부연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벌농촌에서 살았다. 남편의 고향이요 또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겠으니 그랬지 마음은 항시 물고기가 펄펄뛰는 동해바다가로 가있었다. 그래서 전선으로 띄우는 편지 한구석에 그런 뜻을 비쳤다.

《승리하고 돌아오세요. 여기도 좋지만 그때엔 우리 동해바다가로 가지 않겠어요?》

물론 부연은 가렬한 전화의 나날 고향을 운운할 생각은 없었으나 남편을 고무하는 의미에서 무슨 말을 적을가 생각하다가 이렇게 소박하게 부탁을 했던것이다.

성무도 역시 그것을 따뜻하나 힘있는 고무로 읽고 이렇게 회답을 보냈다.

《바다기도 좋지만 난 우리 벌이 더 좋소. 어느곳이 더 좋은지 하는건 우리가 마주앉아서도 종시 합의 못봤으니 이 준엄한 시기에 그것도 편지를 주고받으며 동의를 얻기란 매우 힘든 노릇이요. 하하

여보, 우선 미제놈들을 죽쳐야 하오. 우리의 이런 행복한 싱갱이를 포함한 모든것, 모든것을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들고 원쑤 미제, 침략자 미제를 죽치는데 바쳐야 하오.》

전쟁이 끝났다.

부연은 전선에서 돌아오는 남편을 기다리면서 상봉의 그날 과연 무슨 말을 할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자기네 고향 어촌마을로 가자는 룡담으로 그를 웃기리라는, 자기부터 웃음나는 생각을 해냈다.

그러나 부연은 남편에게 그말을 할수가 없게 되었다. 이미 전보에 알려진 귀가의 날에 사람대신 그가 쓴 편지만이 날아들었던것이다. 편지내용인즉 그가 제대되어 돌아오는길에 어느 산관에 한창 나무를 심는것을 보게 되고 자기도 그저 지날수 없어 그 조국의 산을 푸르게 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뛰어들었다는것, 처음은 하루쯤 땀을 흘린후 집으로 가리라 생각했는데 집에 갔다오느라면 식수사업은 다 끝나고말리라는 위구가 생겨 배낭을 내려놓은바에는 한 일주일 더 있으면서 식수를 끝내고 가리라 결심을 가지게 되었노라는것이였다.

《어머니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올리오. 몇해만에 오는 자식이 부모를 어서 만나볼 생각이 없이 어디에 년뻑 들러가지구는 편지질인가고 노엽게 생각할수도 있을것ियो. 늙으면 노엽이 앞서는 법ियो. 불효자식같은 행동을 하게 될수 있는 절박한 이야기를 후에 말씀드리겠소만 우선 잘 랑해시켜주오.》

성무는 편지에 이렇게 썼었다.

부연은 어머니를 리해시키기보다 우선 자기부터 서운했다.

일주일만에 편지의 임자 성무가 왔다. 새로 타입은 그의 제대복은 땀내가 배여있었다.

남편이 이야기한 늙어진 사연이란 이런것이였다.

《어머니, 강원도에 대송골이라는데가 있습니다. 큰 대자에 소나무송, 큰 소나무가 많다고 해서 그렇게 불려왔다는겁니다. 그런데 지금 큰 소나무가 있는가? 하나도 없어요. 일제놈들이 망탕 찍어서 아예 뺏혀졌지요. 해방되는 해 장군님께서 그 지방을 현지지도하시다가 벌거숭이가 된것을 몹시 가슴 아파하시면서 나무를 심을데 대해서 말씀하시였습니다. 거기 농민들은 장군님의 뜻을 받들구 나무를 심었지요. 채진격때 우리 부대가 그쪽으로 진격해나가게 됐는데 적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잔뜩 버티구있더라말입니다. 우리는 거기를 집중사격구역으로 설정하고 단단히 버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

침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부대에 오시여 전투를 돌보아주시게 되었습니다. 뵈웠는가구요? 그러문요. 어버이수령님을 몸가까이 뵈옵구말구요!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애솔밭이 아니라 그너머 개활지대, 개활지대라는건 나무두 없이 뻥뻥한 벌같은데말입니다. 그너머 개활지대에 적을 끌어내다가 족칠데 대한 작전을 짜주시었습니다. 우린 눈물을 흘리며 명령실행에 생명두 바칠결 결의하구 싸웠지요. 모조리 쳤지요. 미국놈들을, 물론 개활지대에서말입니다. 애솔나무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다. 이때부터 우리는 전투사기가 대단했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생각하면서요, 생각만해도 막 가슴이 뜨거워지지요. 지금두 그래요, 앞으로두 그럴겁니다.》

다음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자바람으로 성무는 부연에게 말했다.

《여보, 좀 듣소.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소? 나는 어쩐지 그런 산촌에 가고싶소. 조국의 산들에 수림이 우거지게 할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받들어 일하는 사람이 되고싶소. 어떻게 생각하오?》

부연은 순간 바다가마음이 피뚝 머리에 떠올랐지만 성무의 열정(그것은 자기에게 사랑을 이야기하던 그런 때와는 비길수 없이 절절한 것이였다.)이 담긴 눈빛, 얼굴표정을 통하여 다시금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에 접했을 때의 감동에 젖어들었고 아직 시작인 산림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리하여 그는 《내야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당신의 생각이면 그저...》하고 입을 열었다.

하여 성무부부는 어머니를 모시고 림지가 있는 산골로 이사를 했다.

성무는 처음 산림경영소 지도원으로 일했고 3년 후에는 산림보호원이 되어 오늘까지 산밭을 타왔다. 그사이에 군소재지에서부터 좀더 깊은 산골리에로 집을 옮겼고 다시금 더 궁벽한 산지대 리소재지마을로 이사를 왔다.

앞이 탁 트인 바다가어촌에 고향을 둔 부연으로서 들리느니 물소리, 바람소리요, 보이느니 나무와 바위인 이곳이 마음에 들리 없었다.

부연은 한번 고향에 다녀왔다. 고향이 어떻든가고 묻는 말에 부연은 《말말야요. 천지개벽입니다!》하고 감탄부터 앞세우며 더없이 살기 좋은곳으로 변모된 이야기를 하였다.

《거기뿐이요?》하고 성무는 자기도 언젠가 고향에 다녀온 감상을 내놓았다.

그러나 두 사람의 고향감상담은 그언제인가 젊었을때의 고향자랑과는 달랐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과 그이의 따사로운 햇빛아래 인민의 락원으로 꽃피는 조국산천에 대한 긍지가 넘쳐있었다.

성무는 말했다.

《날이 갈수록 어디나 그렇게 더욱더 살기좋은곳으로 변모하는군!...》

《그런데 우린 왜 그런델 자꾸만 멀리 떨어져나오면서 살게 될가?...》

부연은 명상에 잠기듯 눈을 떠룩 굴리었다.

《살아가느라면 이제 여기두 다 정이 들구 재미가 있을거요! 생활이 어떤건지두 알게 되구.》

성무는 생활이라는 그 교과서를 이미 다 통달하고있는 사람처럼 확신성있게 말했다.

부연은 남편의 말에 의의가 깊어보였고 그런 교과서내용을 어서 빨리 습득하고싶은 학생의 심정으로 생활의 폐지를 번져나갔다.

부연은 그저 이런데서는 오금을 부지런히 놀려야 한다면서 돼지를 기르고 염소도 매고 닭도 놓고 토끼도 먹였다. 터밭은 물론 집주변 여기저기 땅을 일구고 감자요, 강냉이요, 콩이요, 호박, 오이, 시금치요 손닿는대로 심었다. 집뒤 퍼그나 경사진 땅을 두지고는 거름을 듬뿍듬뿍 두고 고구마씨를 묻었다. 세수물 가시물 할것없이 물한방울 헛되이 버리지 않고 모아서는 저녁마다 골고루 끼얹곤하여 즐기는 한랭전선의 영양하에서도 가물을 모르고 뻗었고 이랑이 툭터지게 밀이 들었다. 고구마를 캔 날, 찢고 구마를 높이 올려담은 바가지를 들여다놓고 주먹만한것을 절반 썩 갈라들고는 《에크 뜨거워, 후 이 산골에서는 그저 이런 맛에 흐흐...》하고 못내 흐뭇해했다.

새문화주력이지만 처음은 성냥꽂처럼 너무나 산뜻하고 냉금하던것이 울타리도 두르고 헛간도 하나 세워놓고 이것저것 살아가는데 있어야 할것들이 구비되어 살림에서 어느 정도 안정감이 생겼다. 전쟁동이 딸아들이 군대에서 체대되어 대학공부를 하고 그아래 딸을 교원대학에 입학시켜놓은 부모로서 특별히 근심걱정할 일이란 없었다.

고향생각들은 여전하나 그렇다고 여기서 별로 뜨고싶지는 않았으며 이제 더는 가야 할곳이 생기지도 않을상싶었다.

세사람은 숲속에 들어섰다.

락엽이 사람들의 발길에 채워 옆으로 헤쳐지거나 그대로 다져져서 오솔길은 도랑처럼 패워져있었다. 비물에 젖은 길은 신발과 바지가랭이를 처력처력하게 적시었다. 수림이 깊어질수록 사위는 더욱 어둡컴컴해졌으며 랭기가 풍겨 감기라도 걸리겠는가싶게 추워났다.

시내물은 자그마한 폭포를 늘이기도 하고 작은 호수를 벌리기도 하면서 쉬임없이 흘러내렸다. 물위에 뜬 락엽이 살아있는 물건처럼 뱅뱅 돌기도 하고 떨어지는 물과 함께 물속으로 자맥질도 했다.

어디선가 이름모를 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누가 숨어서 지나가는 사람을 놀리느라고 휘파람을 불어대는것같기도 했다.

오솔길은 굽적굽적한 소나무들이 찌죽 들어찬곳으로 나와있었다. 송진내가 풍겼다.

소나무등판을 지나자 넓은 공지가 나졌다. 사위도 훤히 밝아졌다.

성무가 알아본데 의하면 여기도 이전에는 나무가 그쫘히 들어서있었다. 해방전에 일제놈들이 탄벌하는바람에 이렇게 새초와 잡관목만이 있는 불모의 땅으로 되었던것이다. 성무는 여기에도 산림이 우거지게 할 계획을 가지고 몇해전부터 나무모를 심었으며 며칠전에는 여기서 20리나 되는 양묘장에서 잣나무 150 그루를 가져다가 심어놓았다. 그런데 지난밤 갑작비와 비바람에 피해를 볼수 있는곳이 되군데 있는데 우선 그것을 알아보고싶었다.

부연과 광일이더러 좀 가볼데가 있으니 잠깐 기다리라고 이르고 성무는 길을 벗어나서 산비탈쪽으로 갔다. 아니나다를가 우려한대로 갑자기 쏟아지는 물에 거기에 심어진 나무들이 넘어지거나 흠에 묻혀있다. 당장 대책을 세워야 했다.

성무는 팔을 걷어붙이고 넘어진 나무를 일으켜 세운다, 밀려와 쌓인 흙모래를 손으로 긁어낸다 급히 돌아쳤다.

《아니 사람을 세워놓구 여기서 뭘하고있어요?》

갑자기 울리는 소리에 성무는 와들 놀랐다. 부연과 광일이 길에서 기다리다못해 찾아왔던것이다.

《아 내 참, 정신바라, 사람이 기다린다는건 생각지두 았구 허허!》

성무는 뒤더수기를 굵었다. 그리고 약속을 잊어버린 사유를 변명하듯 일손을 다그쳤다.

길쪽에서 사람들의 말소리가 났다. 밤주으러 가는 사람들이었다.

성무는 일손을 멈추고 난처한듯 부연을 보았다.

《둘이서 먼저 가보우. 저 사람들을 따라가면 되지 았소, 난 아무래도 이걸 손질해놔야겠소.》

《태일두 모래두 와볼수 있잖아요.》

《돌아볼데가 어디 여기뿐이요? 다른데 다 돌아가
다나면 한 열흘이나 보름후에 여기 오거나말거나
하겠는데.》

부연은 말없이 피해를 입은 나무들을 보았다.

옆에 있던 광일이가 갑자기 길쪽으로 뛰어가며
소리쳤다.

《야 인철아, 인철아, 야.》

바구니를 메고 가던 한학급동무 인철이가 발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두 아이기 하는 말이 푹푹히 들려왔다.

《너 거 달라, 칼.》

《무슨 칼?》

《내가 준 칼말이야.》

《체, 쫘다 뺏은 사람은 뭔지 알아? 배꼽이 찢긴
대.》

《달라, 우리 어머니 욱해.》

《싫어, 내가 준 밤 달라.》

《줘.》

《이제 달라.》

《오늘 줘, 이따가 줘, 우리두 밤주으러 가.》

《몰라, 밤 줘야 칼 주겠어, 석줍, 아니 녀줍이
야.》

저편 길웃쪽에서 중학생 누이 인옥이가 길을 재
촉하는 소리가 났다. 인철이는 뛰어갔다. 헉띠고리
에 매달린 늑갈집이 반짝반짝 빛났다.

광일이는 그를 바라보며 서있었다.

성무는 그쪽을 차마 더는 볼수가 없어서 외면을
하였다. 광일이에게 너무도 관심이 없었다는 뉘우
침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물론 밤은 어디나 있는것
은 아니었다. 밤을 좇자면 일부러 밤나무가 있는곳
을 찾아가야 하는데 이것저것 산림보호원으로서의
자기가 할 일에 돌아치다나면 거기에 품을 들일수
가 없이 날은 저물고 래일 또 래일로 미루어졌다.

그러나저러나 이것은 저쪽 일과 광일이에 대한
무관심, 무성의로밖에 될수가 없었다.

광일이는 오래도록 인철이의 뒤를 바라보다가야
돌아섰다. 돌아와서 그는 밤주으러 빨리 가자고 졸
랐다.

성무는 다시금 부연에게 광일이하고 어서 가라고
일렀다.

부연은 한참 망설이다가 결심을 내린듯 팔소매를
걷었다.

《뭘 어떻게 하면 돼요? 같이 들어붙어 얼른 끝내
구 가자구요.》

《나두 할래요.》

광일이의 기분도 전환되었다.

우선 비물에 씻기고 패이는곳들에 돌담을 쌓아야
했다. 돌은 많았으나 너무 크거나 땅속에 깊이 뿌리
박힌것들이었다.

멀고 가까운데서 힘에 알맞춤한것만을 골라오자
니 일은 힘들고 더디였다.

얼마후에 부연은 성무가 올려놓은 돌에 빨간것이
묻은것을 발견하였고 남편의 손가락에서 피가 흐르
고있다는것을 알아보았다.

《아니 손에 피가 나요.》

《아, 이런 제기.》

성무는 중얼거렸다. 안아온 돌을 놓을 때 돌째에
치워 손가락이 아프기에 한번 입김을 불고말았는데
그후에 피가 나는줄은 몰랐던것이다. 이제보니 손
톱눈열에 으스러지게 가죽이 벗겨졌었다.

부연은 자루 한끝을 찢어내어 손가락을 동여매주
었다. 그는 광일이하고 둘이서 돌을 날라다 쌓겠으
니 손을 대지 말고 저리 나서서 말로 시키기만 하
라고 했다. 그러나 성무는 계속 돌을 안아다가 쌓았
다.

여기저기 비물에 피해를 받을만한 개소들에 든든
한 돌담이 쌓아졌다.

그다음 세사람은 넘어진 나무를 일으켜세우고 문
힌것을 파내어 바로잡아놓았다.

일은 기본적으로 끝났다.

그런데 성무가 보기에 몇군데 있어야 할 나무가
없는것 같았다. 알아보니 세그루였다. 비물에 흠이
씻기고 패워 뿌리가 드러나고 드디어 물에 떠내려
갔을것이다.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새 종자를 얻어다가 심어서
몇해씩 고이 키워 떠옮긴 나무를 하루아침에 비물
에 떠내려보내다니...아까웠다.

성무가 물이 흘러간쪽으로 눈길을 보내고 섰는데
부연이 이젠 다 뻤으니 어서 가자고 재촉했다. 시계
를 보니 그사이에 벌써 두시간이 흘렀다. 부연에게
없어진 나무를 찾아보자고 하려다가 그러자면 시간
이 너무 많이 갈것 같아 그만두었다.

성무는 가방에서 자신이 작성한 수종배치도를 꺼
냈다. 그리고 범산 큰꼰에 해당한 장을 번지고 《잣
나무 150그루》라고 기록한것을 찾아 《잣나무
147그루》라고 고쳐놓았다. 그것을 들여다보느라
니 매우 서운한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하여 미래의 조국은 더 가질수 있었던
세그루의 잣나무를 못가지게 되는셈이 아닌가...)

성무는 아픔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상처를 외면하
듯이 지도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그러나 역시 마음

의 아픔, 잃어진 나무에 대한 아쉬움은 오래도록 가
서지지 않았다.

일이 끝났음에도 계속 우물쭈물하고있는 남편을
기다리며 저쯤 서있던 부연은 성무가 들으라는듯
광일에게 말했다.

《광일아, 아버지 빨리 가져구 해라.》

《아버지-빨-리 가져요-》

《그래, 가자-》

성무는 대답하고 걸음을 떼었다.

광일이는 기뻐하며 제일 앞장에서 뛰어가고 그만
못지않게 마음을 앞세우며 부연이 뒤따랐다.

한참 걷다가 성무는

《아이 이런!》하고 외마디소리를 냈다. 길옆에
있는 이깔나무가 비스듬히 누워있는것이 눈에 띄었
던것이다. 그것은 2년전에 나무모를 옮긴것으로서
이제는 삼자루만큼 대가 굵어졌는데 소발구가 지나
가면서 다쳐놓은것이였다. 한쪽절반은 껍질이 벗겨
지고 속대가 이지러져있었다.

성무는 무릎을 꿇고앉아 나무를 조심히 일으켜세
웠다.

부연이 무슨 일이 생겼나 해서 급히 되돌아왔다.

《이것 좀 보오, 사람들이 나무를 이렇게도 아끼
지 않는단말이요. 참을수 없는 일이요. 뭐 좀 감을
거 없을가?》

성무는 부연을 쳐다보았다.

부연은 바구니에서 자루를 꺼내어 아까 성무의
손가락을 싸매느라고 찢어낸 자리에서 또 한오리의
형겼을 쪽 찢어냈다. 성무는 더 많이 찢어내라고 했
다. 부연은 자루 하나가 다 녹아나는데 마음을 쓰며
되도록 좁고도 긴 오리가 나게 찢느라고 입을 셀룩
거렸다.

그러는 사이에 성무는 찢리를 서너대 꺾어왔다.
그것을 이깔나무의 꺾어진 부위에 대고 부연이 주
는 형겼으로 우, 아래, 중간을 동여맸다. 절골에 부
목을 한셈이였다.

이깔나무는 꺾꽂이 섰다.

성무는 몇번 흔들어보고 마음이 놓인듯 벌췌 옷
으며 손을 털었다.

시간은 또 퍼그나 지났다. 이러다가는 고개너머
에는 시간이 없어서 가지 못하게 될것 같았다.

세사람은 다시금 급히 걸었다.

길옆에서 갑자기 바삭하는 소리에 세사람은 흠칫
놀랐다. 토끼 한마리가 쏙랑대며 요리조리 뛰어달
아갔다.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저거 저거, 토끼
토끼.》

광일이는 목소리를 죽여 다급히 말하며 어쩔줄
몰라했다.

성무는 토끼를 보았지만 광일의 말에 《그래그
래, 토끼야 토끼.》하고 흥심없이 뇌였을뿐 생각은
판데 가있었다.

(아수하다, 나무모가 어디로 떠내려갔을가?) 하
는 걱정과 (어느 녀석일가? 이깔나무를 짓몽개다니,
머리가 그렇게 돼먹은 사람이 아직 있는가?)하는
분격이 번거롭게 뒤바뀌며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
러다가

(저기 저쯤에 떠옮긴 나무는 일없을가? 비바람에
...)하는 근심이 보태여졌다. 그러더니 떠내려간 잣
나무며 짓쪼어진 이깔나무에 대한 생각은 물러나고
이 새로 갈마드는 궁금중이 더욱 더해졌다.

성무는 부연에게 말했다.

《여보 이거 안되겠소. 먼저 가오.》

《뭐 또 어디 가보실데가 있어요? 어서 가보시라
요.》

부연은 선선히 대답했다.

성무는 흠늅쿨과 잡관목이 콕 엉킨곳을 헤치고
나갔다. 부연과 광일이는 가지 않고 기다렸다. 잠시
후에 성무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여보 갔소? 광일이, 갔나?》

부연은 다급히 대답하며 숲을 헤쳐나갔다. 광일
이도 따라갔다. 성무가 가있는곳에 나무가 하나 넘
어져있었다.

《내 글썽 그럴것같아서 와봤더니...이게 무슨 나
문줄 아오? 아주 귀한 나무요. 밑에 바위가 있어 뿌
리를 못뻗고 넘어져가길래 여기다 떠옮겨놓구 날이
저물어 버림대를 못했더니 넘어졌소. 자 와서 좀 같
이 세워보자구.》

성무는 넘어진 나무통 밑에 어깨를 들이밀었다.
그리고 귀 밑에 피줄이 지렁이처럼 두드러지도록 힘
을 썼다.

부연이도 나무를 떠밀었다.

광일이는 나무를 일으켜세우는데 별로 보탬이 되
지 않음에도 힘을 쓰느라고 얼굴이 빨개지였다.

나무는 간신히 일어났다. 세워놓고보니 버림준비
를 미리 하지 않았다는것이 생각났다. 수직으로 선
나무를 부연이 붙잡도록 하고 성무는 버림대를 마
련하기로 했다. 그는 광일이더러 손칼을 달라고 하
다가 아침에 있는 일을 생각하고 입을 다물어버렸다.
부연은 말없이 광일을 흘려보았다. 그 눈길에
는 《봐라 이녀석, 그래 잘했나?》하는 욕설이 들
어있었다.

손칼을 남에게 준 후파가 나타나자 광일이는 다
시금 주눅이 들었다.

성무는 그가 더욱 측은하게 생각되었다. 그에게 향해지는 까닭모를 애절한 사랑의 정이 가슴에 젖어들었다.

《칼이 없지, 일없어. 또 방법이 있지, 나무를 좀 더 붙들고있소. 내 칠팔쿨을 걷어오지.》

성무는 멀리 벼랑밑에 가서 칠팔쿨을 한아름 걷어가지고 왔다. 그리고 광일리와 함께 칠팔쿨 두오리를 꼬아 바줄을 만들었다. 그것으로 세워진 나무에 벌줄을 하였다. 그리고 흙을 긁어다가 나무밑에 복을 주고 퐁퐁 밟아주었다.

《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무래도 나무로 버티어주느니만 못한데 그건 또 후에 하지, 허허.》

성무는 크게 웃었다. 광일리는 인차 기분을 회복하여 다시금 들까불며 돌아갔다. 부연이도 웃음을 지었다.

성무는 시계를 보며 말했다.

《벌써 1시가 다 되었군, 이제 고개를 넘어갈 시간은 없구만. 그랬다가는 너무 저물것 같구 사실은 거기까지 넘어갔다오려고 했는데 해님두 참 무정하구나.》

《그까짓 밤이야 못주어두 일없지요 뭐.》 하고 부연이 가볍게 말을 받았다.

《아니 밤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두 무슨 불일이 있어요?》

《있다뿐이요. 거기에 나무모를 옮겨야 할 평장히 넓은 공지가 있구 양묘장두 새로 꾸리기 시작했는데.》

《아니 그건 누가 해주기에요?》

《해주긴 누가 해주겠소.》

부연은 한참동안 말없이 형짚을 감싸맨, 그리고 매듭이 굵고 거칠은 성무의 손을 바라보았다.

《아무튼 점심식사나 하시자요.》

부연은 바꾸니안에서 점심곽구레미를 꺼냈다. 당콩을 둔 밥, 수수떡, 찢고구마, 삶은 닭알, 콩나물, 풋고추찌개...산에 오니 더없는 성찬이었다.

《에크 이거 대단하군!》 성무는 찌리를 꺾어 저가락을 만들어 들고 마주앉으며 감탄했다.

《모두 당신로력이 든것들이로군 하하. 거<부지런한 수탉>이던가? 아이들 책에 나오는 이야기, 거기서처럼 되면 사실 나는 먹을 자격이 없는데... 땅을 뚜졌나 물을 주었나 내 로력이 든것이 하나도 없구만.》

성무가 그렇듯 구수하게 말하며 유쾌하게 웃지만 부연은 어째선지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 어느때 같으면

《오금을 놀리니까...》 《그저 이맛에...》 등등의 말을 했을것이다.

《그대신 아버지는 나라의 나무를 가꾸시지 않았어요.》

광일리가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자 이제껏 말이 없던 부연의 얼굴에 피륙 웃음이 스치더니 더욱 더 붉어지는듯했다. 그리고 여전히 무슨 생각이 깊은 듯 조용히 손을 움직이고 입을 놀릴뿐이었다.

광일리는 처음에 어른들 입에 들어갈것 없이 다 축내버릴듯이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해덤버치더니 딱 하나반과 닭알 두개에 만족해서 물러났다.

《아버지, 이젠 뭘해요? 또 뭐 할거 없어요?》

《뭘했으면 좋겠니?》

《아무거나.》

《할건 많지만 네가 뭘하겠니.》

《왜 못해요? 아까 나무두 세우지 않았나요. 돌두 쌓구, 그런거 또 하자요.》

《이젠 해두 다 갔다.》

부연이 한마디 했다.

《아-참 해가 아직두 높이 있는데.》

《조르기두 조른다. 아깐 밤주으러 가자, 가자 하더니 이젠 또 일하자, 일하자.》

부연은 짜증을 냈다.

《봐두오, 일하지 말자, 일하지 말자 하는것보다 일마나 좋소.》

성무는 크게 웃었다. 부연이도 광일리에게 짜증을 내였지만 견해는 같았던듯 따라 웃었다. 광일리도 덩달아 해해 웃었다.

해를 가늠해보고 또 시계를 보면 아직도 무엇이든 불일을 더 보고 내려갈수 있을것 같았다.

세사람은 쉼나무가 많은 산등으로 갔다. 거기에는 봄식수를 위하여 미리 파놓은 구멍이들이 있었다. 주변에 떨어진 가랑잎들을 구멍이에 걸어넣은 것은 나무모를 옮기기에 앞서 밑거름을 주는 의미에서 필요한 일이었다. 떨어진 잎이 가을과 겨울, 봄바람에 날아나기전에 하는것이 좋으므로 또한 락엽이 질 때 서둘러야 하는 일이었다.

세 식구는 찌리를 꺾어 비자루를 만들고 그것으로 구멍이주변에 있는 가랑잎들을 쓸어넣으며 나무에서 채 떨어지지 않은것들도 툭툭 쳐떨구어 쏟아넣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한거 다 좋은 일이지요?》

광일리가 불쑥 묻는 말이었다. 그가 어째서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는가를 생각하며 성무는 선뜻 대답해주었다.

《그래 좋은일이지.》

《난 선생님한테 다 말할래요, 우린 좋은일하기운동을 해요.》

《그래?》

《아버지는 누구한테 말할래요?》
 《아버지는 말 안해.》
 《왜요? 그러면 누가 말해주나요?》
 《누가 말해주는가?…그렇지, 이 나무들이 다 말해주지.》
 《누구한테요?》
 《누구한테냐구? 사람들한테, 후대들에게. 후대들이 뭔지 모르지? 오래오래 있다가 백날 지나구 백달 지나구 백년 지나구 그보다 더 오래오래 지나구 해서 그때 사는 사람들에게 말이야.》
 《나무가 뭐 말하나요?》
 《말은 안해두 사람들이 그냥 보기만 하면 벌써 알거던. 나무를 이렇게 잘 가꾸어주었구나, 참 고맙구나 하고 칭찬하지…》
 《그때 사람들이 내 이름이나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아나요?》
 《모를수두 있어.…그래두 좋은거야.》
 길쪽에서 사람들의 말소리가 났다. 밤주으러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모양이었다. 배낭을 지고 바구니를 이거나 멘 그들의 모습이 나무가지사이로 보였다.
 광일이는 그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오늘 또 저 녀석에게 밤을 주지 못하누나.)
 성무의 마음은 아팠다.
 (아 이제라도 고개를 넘어가볼까?그러면 날이 너무 저문다.)
 《그래두 갈가 그래두.》하고 성무는 자기도 모르게 가슴속의 말을 입밖에 내었다.
 《어디요?》하고 부연은 물었다.
 《음, 아니, 이제 돌아가자구.》
 성무는 어물어물 대답했다.
 세사람이 길에 나서는데 길웃쪽에서 인철이의 누이 인옥이가 커다란 배낭을 지고 내려왔다. 인철이도 자기 힘에 맞는 자그마한 배낭에 밤을 한가득 채우가지고 타박타박 뒤따라왔다.
 광일이는 인철이의 옆구리에 매달린 칼에 눈길을 보냈다. 그것을 감축한 인철이는 칼이 보이지 않게 되자 헉떠안에 끼웠다.
 《너희들 밤을 많이 주었구나.》성무는 웃었다.
 《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다 주었어요. 사람들이 뭐 형편없이 많이 갓냈는데요 뭐. 광일넌 왜 아직 여기 있어요?》
 《음…여기서 좀 불일이 있어서.》
 인옥이는 한참동안 말이 없이 성무며 부연이며 광일이며 흠이 묻고 땀까지 뻘 옷들을 훑어보더니 배낭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뽕뽕 비끄러맨 배낭아귀를 이발로 물어당겨 풀어놓더니

《밤 좀 잡수시라요.》하고 한웅큼 꺼내들었다.
 《넣어라 넣어.》하고 부연이 인옥이의 손을 밀었다.
 《바구니 인주세요. 배낭을 주시든지.》
 《바구니 무슨 바구니. 그저 한줌이면 돼.》
 부연은 자기 손으로 배낭에서 밤을 꺼내서 광일에게 주었다. 광일이는 고개를 돌려 인철이를 보면서 밤을 받았다. 그러는 사이에 인옥이는 부연이가 놓은 바구니를 끄당겨놓고 배낭의 밤을 푹푹 퍼담기 시작했다.
 《애예, 그거 그렇게 하면 돼니. 남 로력 들인걸.》
 부연은 큰 변이 난 것처럼 황급히 바구니를 당겨놓고 그안의 밤을 두손으로 꺼내어 배낭에 도로 넣으려 했다.
 인옥이는 배낭아귀를 꼭 모아 오무려뜨리며 말했다.
 《바구니를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밤을 주을 때 광일이네는 나무를 가꾸느라고 수고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절반 가름시다.》
 《원 별소릴 다 한다. 어서 꾸러라. 어서.》
 부연은 와락 달려들어 배낭아귀를 뽕뽕 동여매 주었다.
 바로 이때 인철이는 허리에서 칼끈을 풀었다. 그리고 그것을 광일에게 말없이 내밀었다.
 광일이는 한참동안 손을 내보내지 못하다가 부연을 쳐다보며 칼을 받았다. 그와 동시에 다른손에 쥐고있던 밤을 말없이 인철이앞에 내밀었다.
 《너 먹으라, 너 먹으라.》하고 인심을 썼다.
 광일이는 내민 밤을 어찌지 못하고 썰다가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다.
 인철이는 자기 주머니에서 밤을 한줌 더 꺼내서는 광일이의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어디선가 재빠른 새울음소리가 났다. 날개와 꼬리에 노란 줄이 간 이름모를 새 두마리가 숨박꼭질을 하듯 나무와 나무사이를 날았다.
 광일이네와 인철이네 다섯사람은 다시금 길을 떠났다. 성무는 인옥이의 배낭을 메었고 부연은 인철이의 배낭을 이었다.
 어린 잣나무발이 가까와지자 성무의 머리에는 비물에 떠내려간 세그루의 어린 잣나무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잣나무발쪽을 바라보았다.
 《무슨 불일이 있어요?》
 뒤따르던 부연이 가까이 다가서며 물었다.
 《아무래도 아까 좀 서두르는통에…》

《혹시 잘못된 일이라두...내 한 일이 마음에 안들어 그러지요?》

《그런게 아니요. 오면서 생각해보니 잣나무 잃어버린게 아쉬워 그러우.》

성무는 세그루의 잣나무를 찾아 심고 가겠다고 했다.

《그 말을 왜 이제야 해요.》

부연은 성무를 나무랐다.

《허어-너무 보채는바람에 어디 말해볼 생각이냐났어야지.》

이번에는 성무가 부연을 악의없이 꾸중했다.

《에그 참, 아까 그랬던가요?》

부연은 그 어느 먼 옛날의 자기를 회상하듯이 어설픔게 웃었다.

성무와 부연은 밤배낭을 넘겨주고 광일리와 함께 다시 잣나무밭으로 갔다.

어린 잣나무는 곧 찾을수 없었다. 30미터쯤 아래로 내려가서 잡관목이 무성한곳에 걸려있었던것이다. 세그루의 어린 잣나무는 다시금 제자리에 심어졌다.

일을 마치고 성무는 가방에서 수종배치도를 꺼냈다. 그리고 여기 잣나무밭이 그려진 페이지를 번지고 《잣나무 147그루》라는 기록에서 수자 47을 긋어내고 50을 박아넣었다. 두번씩이나 지우고 쓰느라고 지도는 얼룩이 졌다. 그 뒤편은 사전에 비물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무책임성과 나무가 떠내려간것을 알면서도 그냥 지나쳐버리자고 일순간이나마 마음먹었던 비량심을 말해주는듯 싶어 그 종이의 얼룩처럼 마음은 흐려지고 불쾌했다.

그러나 지도를 접어서 가방에 넣고 척척 걷느라니 어쨌든 기뻐다.

세사람은 더없이 상쾌한 기분으로 길을 내려갔다.

《광일이 아버지.》

부연의 부름이었다.

《왜 그러오?》 성무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저-고개너머에 계속 가야 해요?》

《아마 그래야 할것 같소.》

《힘들어서 어떻게 늘 가겠어요?》

《일없소.》

《일없긴 왜 일없겠어요. 아침에 나서기가 좀 실쭙하지요?》

《아니.》

《당신두 참 그런걸 뭘 저한테까지야...》

워낙 숨길 필요가 없었다. 매일 산판오륙십리길을 오르내리느라고 이만저만 고생이 아닐것이라고 남들은 만날적마다 인사의 말로 동정점 치하를 하는데 자신은 별로 힘든줄을 모르는것이였다. 아침에 산림보호원으로서 필요되는것들을 넣은 가방이나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설 때의 기분은 또 얼마나 상쾌한것인가!

참으로 이상한 일이였다. 제 하고싶어하는 일이 힘이 들지 않고 제 가고싶어 가는 길은 멀지도 않은 법인데 그래서인가?...

이런 생각을 굴리고있는데 부연이 다시 입을 열었다.

《여기서 할 일이란 참 많구 많지요?》

《많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살림을 조성하고 가꾸고 보호하자면 일이 이만저만 많지 않소. 사람들은 더러 그런 말을 하지. 쫓아 한때는 무슨 일이나 무섭지를 앓는데 나이 들면 무엇이나 다 자신이 없어지고 두려워진다고... 그런데 조화요. 난 예나 지금이나 갈단말이요.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그이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라 생각하면 무엇이나 다 재미가 나구 성수가 나거던.

나는 여기에 내 할일이 다 없어지고 그 어디 다른데 또 그렇게 할일이 있다면 어디라두 가고싶소. 이런 말을 당신에게나 했지 아마 남들이 들으면 말은 번드르하다고 웃을거요. 그러나 난 실지 그렇지 소.》

《그래요.》 부연은 묻는 말인지 긍정하는 소린지 알수 없는 어조로 대꾸를 했다. 새소리가 났다. 역시 장난기 있는 회파람소리같은것이였는데 어쨌선지 한결 정다와보이고 회파람의 임자인 아이는 몹시 순진하고 귀여운 애일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광일이 아버지, 좀 빨리 가자요.》 뒤에서 부연이가 하는 말이였다.

《이젠 거의 다 왔는데 뭘 그리...》

《경숙이가 돼지물을 어떻게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배합비률을 제대로 했는지.》

《원 별걱정을, 그제 로파심이란거요. 경숙이야 당신보다 돼지보는데서야 선생이 아니요. 경험두 많구.》

《하긴 그래요. 그래두 빨리 가봐야겠어요.》

부연은 성무를 앞서서 걸음을 재우쳤다. 광일리는 같이 가지고 하면서 빈 바구니를 빙빙 휘둘러대며 들까불며 따라갔다.

수도의 밤이여

정렬

아, 불빛의 바다
설레는 불빛의 바다
내 초소의 밤에 바라보던 그 별들이
머리위에 불야성으로 흐르는
아름다운 수도의 밤이여

가는 비 오는 눈에 젖던
병사의 어깨를
다정히 어루만져주는 손길인양
억만의 불빛이 쏟아져 내리는
황홀한 밤이여

초소의 숲을 가벼이 흔들며
먼곳에서 전해오는 소식처럼
은은한 기적소리 들려와도
산정의 길에 해살이 비쳐들어
내 항시 그러보며
가슴속으로 뜨거이 불러보던 평양!

산 넘어 구름 넘어
생각이 나래치던 그런 때이면
만수대언덕의 찬란한 빛발이
다박술 설레는 전호가에 비쳐오고
만경봉기슭을 안고도는
대동강물결소리가 들려와
마음속에 그림던 혁명의 수도

아, 바람세찬 초소의 밤
친히 보내주신 털외투에 얼굴 묻고
사랑의 보온대를 끌어만지며
아버이수령님 우리러
눈시울 뜨거이 더듬어찾던
그 하늘이 여기에 비껴있고

선기내리는 창가에 서시여
전사들의 건강을 넘려해주시던
자애로운 그 음성이
전호가에 울려오던 그 밤

눈물에 젖은 총창을 들어
목숨으로 지키리라 맹세를 울리던
우리 당중앙

위대한 사랑의 불빛이 흐르는 그 창가를
내 숭엄히 바라보며
크나큰 행복에 군복깃을 적시노라

우리러 경건함이여
울렁이는 가슴이여
이 거리의 첫 새벽 이슬을 떨구시며
조국땅끝까지 가고오신
수령님의 불멸의 자욱자욱을
더운 이슬로 새겨안은 병사의 마음이여

이 밤도 귀기울이면
천리산발에 포신을 올린
어느 먼 해안포진지
전사들을 보살피시고
수령님 돌아보신 사랑의 차바퀴소리
가슴뜨거이 들려오는듯

한순간도 침을 모르시고
불빛을 해빛으로 이어가시기에
여기서 조국은
더 밝은 미래로 내태쳐가고
여기서 주체의 노을은
찬연히 펼쳐지고있거니

아, 별무리 비끼 산정초소에서
내 쪽잠결에도 안겨보던 곳
순찰의 밤이나
먼 야영지에서나
언제나 우리르는 마음속에
아버이수령님의 영상으로
가득차있던 평양이여

가로수 설레이는 그 어느 거리
무리등 찬란한 그 어느 기둥밑에
젖어있느냐
우리의 뒤에는
수령님께서 계시는 평양이 있다고
육탄이 되어 나아가던
전사들의 그 목소리

가렬한 대공전투의 낮과 밤

최고사령부의 안전을 목숨으로 사수한
친위병들의 숨결이 스민 영웅도시

그날의 포연서린 좌지우에
세상에 다시없는 락원이 솟아
평양은 수호자의 자각을
천만무계로 새겨주는구나

여기서 빛발치는 불빛이
병사의 머리에 은하로 흐르고
전호가에 힘으로 파도쳐와

내 눈오나 비오나
충성의 길 걸어왔어라

새초 뒤엎킨 산정의 밤이면

나의 초소엔 불 한점 없어도
이 가슴의 깨끗한 창문엔
수도에서 안은 신념의 불빛
그 불빛 앞길을 비쳐주기에
불속을 간들 물속을 간들
헛디딤이 있으랴

아버이수령님을 위하여
우리 당을 위하여
행복이 무성하는 먼 기슭에 정한 그 초소에서
내 언제나 그대를 지키는 성새가 되고
내 어디서나 그대를 받드는 초석이 되어
한목숨 다 바쳐 싸워가리라
조선의 심장
아름다운 평양이여!

만능선 갑판우에서 부른 노래

강현세

정든 기슭을 떠나 멀리
동서남북 그어디를 보아도
망망한 수평선,
거센 파도우에 물주름을 얹으며
살같이 달리는 만능선

뜨랄과 건착, 흘치기와 덩장
각가지 그물을 갖추어 싣고
어장을 타고앉은 마음,
조국의 대지를 디디고 선듯
저기 하늘과 물이 맞붙은곳에 고기떼가 있다

가자, 배야 어서 가자
끝없이 설레는 물결마냥
가슴속엔 한가득 출렁이는 기쁨이 있다
물속도 손금같이 보는 어군잡지기
먼바다 어장마다
어장에 맞는 전투준비도 끝내였다

아, 오늘도 그 몇번 끌어올렸던가
북장이 터지게 몰아넣은 저예망은
떼통을 던져 후리줄을 당긴 건착망은,
깊고 얕은데를 가리랴
출어의 배길에 놓아둔 떼그물에서도
풍어의 신호 무전으로 왔거니

이물이 철썩, 고물이 남실
운반선도 어창이 넘치며
또다시 불려낸 새 운반선
벌써 저기 조국의 기슭을 떠났다누나

보람차다 밀려오는 산같은 파도도
농장벌 논두렁처럼 밟고넘으며
어장을 정복하는 기쁨이여
조국의 기슭에 안아올리는 무계가 클수록
우리의 가슴엔 기쁨이 출렁인다

사나운 바다우에서도
우리를 일당백의 어로공으로 키워주신
아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이여
그 사랑에 받들리어 우리의 조국은
만리 바다우에서도 빛나거니

바다우에 이랑이랑 일어나는 물주름은
위대한 사랑의 만능선단들이
어장을 갈아빈지는 물고랑이다
이 바다우엔 우리의 만능선이 있어
황금파도 설레이는 농장벌처럼
바다도, 바다도 날마다 풍년속에 사노라

명절날

김재원

내 사는 나날은
다 좋은 명절날
뽑아낸 쇠물 축포처럼 바라보며
생각도 감정도
늘 맑은 아침같나니

기뻐라, 삶이여
로동속에 영예는 빛나고
날마다 재부는
번창하게 늘어나

내 사는 나날은 늘 맑고 자랑차다
자고깨면 문앞에서
제강소로 곧추 뻗은 나의 출근길
비오는 날도 날듯한 마음으로
내 기뻐 밖에 나서라

오는 비도 환희요
해도 달도 기쁨인
언제나 행복으로 가는
우리의 로동일이여

위대한 수령님 만년대계의 구상
이 하루에도 조국땅우에 꽃피라
내 다듬어낸 강철
주체공업의 철탑으로 솟고

아기는 축복속에 웃으며 태어나
이 좋은 명절날을 출생일로 받아안아라

십오층 창가에 솟저운 젊은 녀인
향기로운 화분을 창가에 놓네

로동속에 흐르는 보통날
쌓아지는 그 많은 재부
명절날의 웃음으로 피어나는
조국의 날과 달이여

오곡이 설레이는 들을 보아도
쇠물빛어린 하늘을 보아도
나를 위해 곡식을 가을을 익히고
나를 위해 전기로는 불을 뿜는듯

내 못다 기억할 보통시간들
평범한 차림으로 이땅에 찾아와
명절날로 빛나게 장식되어
저너머
웃으며 떠나가는 조국의 해와 달이여!

창조 없이 그 무슨 생활이라
위훈 없이 그 무슨 나날이라
일떠서는 공장지구, 이삭패는 들우에
우리 사는 나날은 명랑히도 웃네

아아! 수령님 모시고 혁명하는 기쁨으로
우리 사는 나날은 다 좋은 명절날
인민의 로동이
인민의 명절로 안겨지는
행복이여, 기쁨이여, 즐거움이여!

영원히 당신과 함께

아피프 간싸리

해가 가고 날이 갈수록
용감하고 대답하신 당신께서는
우리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을 우리러 글을 쓸수록
우리는 더욱더 친근해집니다
당신께서 계시는곳은 먼곳이 아닙니다
당신은 언제나 우리의 수령, 우리의 령도자이시고
우리의 벗, 우리 승리의 향도자이십니다

당신께서는 영원히 영원히
조선과 함께
세계와 함께
우리과 함께 계시읍니다.

(필자-

《김일성주의연구레바논위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우리는 당신을 흠모합니다

즈크리아 하리트

당신의 탄생일을 맞아
당신에 대한 흠모의 정
우리 모두 노래하나니
우리는 언제나 당신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탄생일은 우리의 크나큰 명절
당신에 대한 우리의 흠모는
변함없는 심장의 노래, 기쁨의 노래

초기에 우리는 당신의 영웅성을
읽을수 없는 하나의 자모로만 생각하였건만
당신을 만나뵈게 되었을 때에는
쓰지 않고도 읽을수 있는

완전한 자모로 되었읍니다.

우리는 당신을 흠모합니다
뜨겁게 뜨겁게 흠모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흠모의 마음 깨뜨리지 못하리

당신의 영생은 우리의 운명
당신의 교시는 우리의 힘
당신의 철학은 우리의 생명
당신은 영원히 모실 위대하신분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진분

(필자- 《김일성주의연구레바논위원회
시아흐위원회》 위원임)

무지개 비낀 리상촌

리계심

텔레비존의 화면을 보다가도 문득 오국리 전경이 나타날때면 왜 그런지 가슴이 울렁거린다. 오래오래 정든 고향처럼, 사무쳐 잊을수 없는 제 고향처럼 살뜰하게 안겨와 남다른 감회에 잠기곤 한다.

언젠가 나는 오국리에서 며칠을 지낸 날이 있다. 그후 얼마동안은 창밖으로 대동강을 바라보아도 가없는 어러리 황금벌이 물결쳐오는것 같고 밤하늘의 별을 쳐다봐도 오국리의 아름다운 창문들이 별무리가 되어 속삭여주는듯싶어 다감한 정서에 잠기곤 하였다.

내 마음의 한끝을 오국리에 두고 왔는지 텔레비존앞에 앉아있는 지금도 그곳으로 달려가는 자신을 어쩔수 없다.

기러기도 쉬여넘는다는 어러리벌우에 신기루같이 솟아난 공산주의리상촌! 오국리 언덕의 전망대에서 바라보던 아름답고 현대적인 농촌마을을 생각만해도 내 마음속에 흐뭇한 정서의 나라가 펼쳐지는것이다.

몽개몽개 흐르는 흰구름을 건듯 떠이고 도시부럽지 않게 솟아오른 산뜻한 건물들, 귀기울이면 맑고 싱싱한 어러리벌 새생활의 흐름이 그대로 선물이 되고 교향곡이 되어 하늘가 멀리로 울려퍼지는것만 같다.

찬란한 빛을 뿌리는 탑과도 같이 솟아난 집들이며 그 배경으로 흥에 겨워 설레이는 황금들판을 바라보노라면 여적 한번도 보지 못한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듯싶어 가슴은 기쁨과 긍지로 한껏 부푸는 것이었다.

날이 갈수록 안겨오는 그 정다움과 아름다움은 과연 어디서 오는것인가, 지평선 아득히 설레이는 어러리 넓은 벌의 자연미때문인가?...

한없이 설레이는 가슴을 안은채 발걸음을 옮기는 나의 눈앞으로 오국리의 리명호할머니의 행복에 넘친 모습이 떠오른다.

칠순을 바라보는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정정한 할머니이다. 어러리벌과 함께 지난날의 슬픔도 오늘의 기쁨도 다 맛본 할머니, 그래서 오늘의 행복을 남달리 마음속깊이 간직하고있는 할머니이다.

그 할머니는 오국리의 새집에 들던 날의 기쁨을, 어버이수령님을 자기 집에 모시였던 그날의 감격을 다시금 고스란히 안겨준다.

...여섯밖에 안되는 식구로 아래층, 2층에 방이 셋이나 있고 널찍한 부엌에, 맑은 물이 철철 넘치는 목욕탕과 창고가 달린 2층 벽돌집앞에 이사집을 부리웠을 때 그저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행복해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씻을념도 않고 서있던 가장 행복한 그 순간에 이상하게도 뼈에 사무쳤던 어린시절의 모진 아픔이 되살아왔다.

《엄마! 달팽이한테도 제집이 있는데 우린 왜 집이 없나?》

새까만 눈동자에 설음을 담고 눈물을 담고 어머니의 치마꼬리를 쥐여뜯으며 달팽이보다도 못한 인생을 하소하던 맨발벗은 몽당치마자락의 가없는 소녀의 모습이 세월의 언덕너머 악몽같이 떠올랐다.

땅 한뼘이 없고 초가집 한칸도 없어 온 식구가 뿔뿔이 헤어져 남의 머슴을 살며 떠돌아다녀야 하던 기막힌 그날의 불행이 가슴무겁게 안겨왔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는 비바람을 막을 초가집 하나, 송곳 꽃을 땅 한뼘이 물려주지 못했는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땅을 주시고 집을 주시었다. 그집도 벌써 몇차례나 더 좋은 새집으로 옮겨주시었던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는 국가의 부담으로 농촌문화주력건설을 더욱 힘있게 추진시킴으로써 가까운 몇해동안에 농촌의 면모를 완전히 개변하도록 할것이다.》

옛날같으면 지주도 감히 쳐다못보던 2층, 3층, 4층벽돌집에 어제날의 머슴군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살게 된것이다.

황홀한 집에 고루 갖춰진 가구들과 난생처음 보는 각가지 부엌세간을 만져보고 쓸어보며 어쩔줄 몰라하는데 글썽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오실줄이야 꿈에나 생각했으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어러리벌농민들에게 이 세상 가장 좋은 집을 주시기 위해 풍치좋은 오국리 언덕에 몸소 터를 잡아주시고 리상촌을 구상하시었다. 농민들의 마음이 되시여 친히 건설주가 되여주신 수령님께서는 불과 한해동안에 1천여세대의 아담하고 현대적인 농촌문화주력을 지으시여 사랑의 선물로 안겨주시었다.

온 들판에 널려있는 집들을 모두 이곳에 이사하도록 해주시고 공산주의리상촌의 새집들이를 제일 먼저 축복해주시려 오신 어버이수령님!

세간넌 딸네집이면 이에서 더 살뜰히 돌보아주시랴. 거울같은 장관이며 꽃도배한 바람벽과 벽장까지 보시고 부엌에 내려가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랭장고문을 손수 열어보시고 전기밥가마 뚜껑을 열어보시며 농촌에까지 전기가정용품이 들어왔다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반들반들 윤나는 수도꼭지를 트시었다. 구슬같이 맑은 물이 팔팔 노래하며 흘러내리

였다. 그 물을 손에 받으시면서 오국리농민들이 맑은 물을 먹게 되고 농촌녀성들이 물동이를 이지 않게 되어 뛰니뛰니해도 수도화한것이 제일 좋다고 환희에 넘치시여 말씀하시는 수령님, 기쁨으로 흘러내리는 수도물에도 사랑의 무지개가 비끼는가, 어버이수령님의 그 미소를 우러르는 할머니의 눈에선 이 세상 가장 고귀한 감사의 이슬이 흘러내렸다.

마타리물을 먹던 이 고장 사람들의 고통을 그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더 좋은 집을 쓰고 더 좋은 물을 먹도록 해주시려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기울여주셨던가!

리상촌을 건설할 때도 오국리에 물이 없어 난처해하는것을 헤아리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안악고분 앞벌을 시추하면 물이 나올수 있을것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이 고장 사람들이 대를 두고 어러리벌을 다 파보아도 없던 그 맑은 샘줄기를 어버이수령님께서 친히 찾아주신것이다.

오국리에서 맑은 샘물이 팔팔 솟구쳐오른다는 소문이 퍼지자 린근마을에서 모두 달려와서 난생처음 그리도 맑고 시원하고 물맛이 류달리 좋은 물을 마시고 또 마시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였다.

인민들이 좋은 물을 마시고 장수하기 바라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땅속 깊이깊이 고이고 고여 사랑의 샘이 되였노라고.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이 하도 깊고깊어 물도 깊고 밤낮없이 양수기로 퍼도 마를줄 모른다고.

사랑의 샘, 행복의 생명수에 온몸과 마음을 적시며 그들이 하는말-그것은 어러리벌의 새로운 전설로 길이길이 이 땅에 전해지리라!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날 충충계단을 오르시여 2층의 두방을 돌아보시고는 아래층은 로인들이 쓰고 옷층은 젊은이들이 쓰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창밖을 오래오래 바라보시였다.

오국리 할머니의 감격에 젖은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 울리는듯싶었다.

충성의 마음들이 이렇듯 올해의 풍년을 마련한것 이리라. 텔레비죤화면에는 벼바다가 설레인다. 푸른 들을 헤가르며 트랙또르들이 줄지어 달린다. 농장원들을 실은 농장빠스들이 일터로 나가고 어머니를 찾아가는 택아소차들이 마치 들놀이가듯 춤추며 달린다.

행복!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 농촌의 행복한 전경이 아닌가!

어버이수령님께서 일찌기 오가자의 발두령을 넘으시며 밀림의 행군길을 헤쳐가시며 해오신 위대한 구상, 아침이슬, 솟눈길 헤치시며 걷고걸으신 현지지도의 로고가 이렇듯 꽃피여 오늘의 현실로 된것이 아닌가!

어버이사랑의 자옥으로 이어지고 다져진 리상의 언덕에 어버이사랑으로 주춧돌을 박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은 공산주의리상촌, 이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을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사는 우리 인민의 행복의 집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주체의 조국이다.

다듬은 말

사과이름

본래말

국광

홍옥

축

인도

데리샤스

옥

왜금

폴덴데리샤스

리차드데리샤스

다듬은 말

북청

황주

송화

덕성

허천

구월

단풍

금강

허천2호

본래 말

스타킹데리샤스

술드월데리샤스

스테만와이샤프

조생적

조생옥

홍피

황피

도일

다듬은말

허천3호

허천4호

향사과

노을

팔월

붉은칠월

누른칠월

붉은팔월

시대의 본질과 특징을 깊이있게 밝혀낸 표현수단과 수법들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제1부)을 읽고-

한류력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말은 표현이 풍부하여 복잡한 사상과 섬세한 감정을 다 나타낼수 있으며 사람들을 격동시킬수 있고 울릴수도 있으며 웃길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는 주체적문예리론은 말은 인물의 사상과 감정, 심리의 표현인것만큼 작품의 사상적내용을 직접 드러내는 작용을 한다고 가르치고있다.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제1부)은 끝없이 풍부한 우리 말의 표현수단과 수법들을 정확히 선택력용함으로써 1920년대말~1930년대초의 시대적특징과 혁명투쟁의 본질을 폭넓고 깊이있게 밝혀내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해발아래 무성하는 해바라기वाद 같이 자라나는 혁명전위들의 성장과 투쟁모습을 빛나게 형상화하고있다.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는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참혹한 정경을 심각히 느끼게 된다.

소설은 력사적사실에 대한 정론적인 분석과 강한 주정으로 시대의 특징을 폭넓게 개괄하기도 하며 하나의 정황을 선택하고 이를 분석적으로 묘사하는 독특한 수법을 통하여 시대의 본질을 예리하게 들어내기도 한다.

《처음 혁명에 눈뜬 청년앞에 그렇게도 눈부시게 열려있던 미래는 사라지고 암담한 현실이 가로막아나섰다. 감옥, 쇠창살, 고문, 쇠고랑 그리고 <지도자>들의 비굴한 권모술수와 열렬하던 <혁명>선배들의 한숨-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요, 이것이 이곳서대문형무소에 갇힌 <혁명가>들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준엄한 문제의 출발점이었다.

어떻게 이럴수 있단말인가? 그 도도하던 <리론>들은 다 어데로 갔는가?

진규는 다시금 쓰겁게 중얼거렸다.》

감옥, 쇠창살, 고문, 쇠고랑 등 살벌한 표상만을 안겨주는 단어의 렬거, 또한 4분5렬된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산만한 실태에 대한 라렬, 이러한 표현수법은 《도도하던 <리론>들은 다 어데로 갔는가?》라는 주인공의 울적한 심정을 토로하는 수사학적질

문과 적절히 결합됨으로써 당시 공산주의운동의 진상을 석연히 비껴볼수 있게 한다.

또한 소설은 어휘의 적중한 선택과 재치있는 표현수법을 통하여 각이한 계급과 계층의 다양한 개성을 보여줌으로써 시대와 력사의 동향을 더욱 명백히 느낄수 있게 한다.

한때 행세식 맑스주의자였던 김익보의 형상을 소설은 《명주루바쉬까자락》을 펴력거리며 한손을 들고 마치 그것이 폭동이라도 일으킨것처럼 내흔들자 그에 따라 어느새 길게 자란 머리카락이 귀바퀴우에서 춤을 추었다고 씌으로써 행세식맑스주의자들의 체취와 용모를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고유조선어 명주에 외래어 루바쉬까를 붙여서 만든 이 하나의 합성어는 민족의 의상마저 버리고 큰 나라에 맹종맹동하는 종파사대주의자들의 모습을 명백히 들어내고있으며 그의 움직임에 따라 길게 자란 머리카락이 귀바퀴우에서 춤을 추었다는 의인화된 표현은 행세식맑스주의자들의 허식을 예리하게 풍자하고있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제1부)은 또한 나라를 잃은 민족의 운명을 통탄하는 민족주의자들의 비분강개한 심정도 깊이있게 밝혀내고있다.

그것은 민족주의자 박병섭로인이 자신의 가슴에 쌓이고 엉킨 원한을 주인공 유철에게 내뿜는 다음과 같은 절통한 목소리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억울하네. 통분하네. 내가 불혹(마흔살을 말함)에 화승대를 메고 나서서 10여년이나 산을 돌아다녔건만 머리칼만 허영게 세고 한만 가슴에 남았네. ... 하건만 저 하늘은 변함이 없네그러. 파무원한에도 오뉴월에 서리를 내린다는데 나라를 생각하는 장부의 사무친 마음이 그만 못하단말인가? 하늘에 도리가 있다는것은 못믿을 소리야.》

여기에 씌여진 《불혹》, 《장부》 등 단어들은 모두다 현대조선말규범에서 제외된것들이지만 적중한 대목에서 알맞게 씌여짐으로써 민족주의운동의 력사와 동향을 뚜렷이 나타내는데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소설은 또한 초기공산주의운동과 민족주의운동의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혁명의 수령을 절절

하게 기다리는 시대와 인민의 지향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내용전개와 주인공의 절박한 운명의 변화에 따라 이에 맞는 표현수단과 수법을 적절하게 씀으로써 혁명의 수령에 대한 인민의 피타는 갈망을 더욱 강하게, 보다 뜨겁게 느낄수 있게 한다.

초기공산주의운동의 비참한 운명과 함께 서대문 감옥에서 주인공이 겪는 생활의 뼈저린 체험속에 형성된 혁명의 령도자에 대한 갈망은 은유의 수법으로 표현되었다.

《안개 자욱한 암초의 바다에 라침판도 해도도 없이 나서서 거칠은 파도에 떠밀려가는 배우에 오늘은 바로 그자신이 타고있는듯하였다. 사공은 많아도 향방을 아는 사람은 없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겹겹이 설레이는 파도가 있을뿐 배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어디에 빛이 있는가? 과연 조선의 민중이 타고 가는 이 배를 행복의 저 언덕으로 이끌어줄 등대는 어디서 빛을 뿌리는가?》

은유의 수법으로 씌여진 이 상징적인 주정토로써 시대를 향도할 혁명의 령도자를 찾아 모대기는 인민의 절박한 념원의 목소리가 얼마나 강하게 울려나오는것인가!

초기공산주의운동을 파도에 밀려가는 배에 비유한 문장흐름은 그 내용이 전개되고 심화되는데 따라 더욱 절박한 정황을 조성하면서 등대의 빛을 찾아 어디선가 울리는 갈망의 목소리, 《어디에 빛이 있는가? 과연 조선의 민중이 타고 가는 이 배를 행복의 저 언덕으로 이끌어줄 등대는 어디서 빛을 뿌리는가?》라는 상징적인 질문과 결합되어 완결된 사상을 이름으로써 혁명의 지도자, 시대의 향도자를 찾는 인민의 강렬한 지향을 뜨겁게 안겨주고있다.

서대문감옥에서 혁명의 지도자에 대한 주인공의 갈망은 주로 은유의 수법으로 표현되었다면 간도에 온후에는 그것이 직설적인 수법으로 표현되고있다.

《한시바빠 달려나가고싶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 **김일성** 동지를 만나뵙고싶었다. 자기가 걸어온 길, 자기가 안타까와하던 모든 문제를 내놓고 그분의 령도를 받고 조선혁명에 대한 그분의 구상을 듣고싶었다.》

비유로부터 직설적인 표현으로 바뀌진 문장수법은 혁명의 령도자를 찾아 모대기던 주인공이 혁명의 수령을 맞이할수 있게 된 한없는 궁지와 기쁨, 불타는 흠모의 감정을 보다 밝고 선명하게 밝혀주고있다.

소설에서 달려가고싶었다, 만나보고싶었다, 듣고싶었다. 등은 모두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감정을 표현하는 술어들이다.

그러나 이 술어들은 그 어떤 형상의 표상을 설명하는것이 아니라 주인공의 행동에 대한 지향을 강하게 나타내고있다.

비슷한 의미의 술어들은 문장의 끝에 련속적으로 병렬되면서 자기 몸보다 앞서가는 주인공의 감정을 명백하고 뚜렷하게 보여줌으로써 세월의 흐름과 력사의 전진에 따라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감정이 더 절절하여만 갔던 시대와 인민의 력사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또한 밝고 정중한 문체로 것처럼 갈망하던 인민의 위대한 수령님을 맞이한 인민의 감격과 기쁨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소설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은 밝고 우아한 빛갈의 색채를 뽐여주는 어휘들을 선택하고 끝없는 자연에 대한 비유의 수법을 능숙하게 리용함으로써 빛나고 숭엄하게 형상화되고있다.

《…산을 압도하는것 같은 림름한 체구의분이시였다. 산천정기가 어린듯 그렇게도 빛나는 눈을 가지신분이시였다. 호수와 같이 넓고 시원한 이마에는 빛나는 예지와 깊은 사랑이 바다속처럼 가라앉아있는듯하였다.》

아버이수령님의 영상을 《산천정기》, 《바다》, 《호수》 등 밝고 청신하고 근엄한 자연에 비유한 문장흐름은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예지와 넘치는 열정과 백절불굴의 의지를 얼마나 격조높이 노래하고있으며 아버이수령님에 대한 칭송의 감정으로 사람들의 가슴을 불타게 하는가!

특히 소설에서는 엷은 말과 상징적인 어휘 등을 정확히 리용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움직이심을 직접 바라볼수 있게도 하며 또한 도도히 울리시는 음조까지도 들을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순간의 움직이심, 한마디의 어조라도 놓치지 않고 직접 보고 듣고싶어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사상감정에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간절한 소원이다. 소설의 언어문체는 자기의 독특한 표현수법을 통하여 독자들의 이러한 높은 요구에 응당한 대답을 주고있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 정황과 내용전개에 따라 《준엄한 목소리》, 《침중한 목소리》, 《부드럽고 서글서글한 목소리》로 표현하기도 하며 연필끝으로 사업내용이 적혀진 종이우를 《다독다독》 두드리시며 생각에 잠기시는 아버이수령님의 사색적인 움직이심을 보여주기도 한다.

《서글서글한》, 《준절한》, 《침중한》, 등 엷음말은 여러번 성음을 달리하시는 아버이수령님의 뜻깊은 어조를 깊이 감수할수 있게 하며 또한 《다독다독》과 같은 어휘는 항상 깊은 사색속에 심원

한 사상리론활동을 전개하시는 모습을 깊이 느낄 수 있게 한다.

또한 소설에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보통 쓰시는 민족고유어에 기초한 소탈하신 말씀을 그대로 정중하게 씌으로써 겸허하고 소탈하신 인민의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사랑의 품을 가슴뜨겁게 느끼게 한다.

그것은 혁명의 비밀아지트에서 주인공 유철이를 처음으로 만나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친근하고 소박하신 말씀에서 뜨겁게 느끼게 된다.

주인공 유철이를 만나자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먼저 어린 딸 현아에 대하여 물으시고 자애에 넘치는 심려의 말씀을 하여주신다.

이 말씀은 어버이수령님의 소박하고 겸허하신 품모와 자애에 넘치는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가슴뜨겁게 느낄 수 있게 한다.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제1부)의 언어문체는 정치적수령의 출현과 령도의 빛을 찾아 끝없는 방랑과정을 걷던 주인공이 위대한 수령님을 맞이하게 된 감격과 기쁨을 맥박치는 문장과 탄력 있는 어휘와 다양하고 풍부한 표현수법속에 선명하게 보여주고있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해발아래 조국해방의 성전에 보람차게 떨쳐나서게 된 시대의 특징과 본질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바로 이 소설로 하여금 혁명적대작의 풍격을 훌륭히 갖추어 줄 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으로 되었다.

우리는 시대와 혁명투쟁의 본질을 밝혀내는 혁명적대작에 맞는 표현수단과 수법, 언어문체를 더 잘 탐구, 리용해야 할것이다.

단조공의 미소속에

한기운

상모루
하모루를 뿔아던지고
단조장의 함마들 형타를 물었어라
그 어떤 비약의 나래 가다듬는듯
함마축들은 서서히 형타이를 맞추어라

귀 솔도록 그 몇번이고
하나의 소재를 두드려대던 함마소리
쇠불덩이를 집게로 모루우에 굴리며
자유단조의 소란된 소음속을 떠나는
단조공의 얼굴에도 운전공의 능금볼에도
흐뭇이 미소의 물결 일어라

자유단조의 그날엔
함마모루의 잦은 가락에
별견쇠를 빚어가며
단조공은 손발장단, 머리장단 신호로 드바쁘고
운전공은 순간도 다루는 소재에서 눈길 못떼더니

즐거워라
어버이수령님 안겨주신 형단조작업은...
세상에 쇠보다 더 무른것 없는듯
함마들 쇠불덩이를 한번 들었다 뺄 때
단매에 찍혀지는 소재를 받아내며
세상 처음인듯
단조공과 운전공 서로 마주 웃으며 일하거니

보아라
공장구내길에
전동차를 몰아가는 저 운반공도
형단조품 규격소재 가득 실어
직장마다 기대마다
단조공의 그 미소를 나르고

면판에 형소재를 물리는
젊은 선반공의 굵직한 눈섭밑에도
단조공의 불노을속에 어린
함마운전공의 그 미소 비껴드는가

가열로여, 더 세차게 열풍을 뿔으라
로안에 굵던쇠 밀리던 때 아니여라
자유단조의 마지막 함마소리도
운전공의 그 미소속에 사라지고
단매에 척척 찍어내는 소재도
단조공의 그 미소속에 쏘아지거니

형타를 문 함마여, 더 세차게 찢으라
단조장마다 꽃피여
온 나라에 흐르는 그 미소속에
철의 예비는 산악으로 솟아나고
그 미소 비껴가는 기계바다우에
아, 더 높이 나래쳐오를 조국의 미래가 가까와지고
있어라

문예작품의 개성적특성과 구성의 독창성

백영철

문학예술창작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리며 독창성과 비반복성의 원칙을 훌륭히 구현하는것은 주체적 문학예술을 더욱 다채롭게 꾸려나가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문예작품의 개성적특성을 살리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작품의 구성을 독창적으로, 비반복적으로 조직하고 그것을 옹골치게 풀어나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영화문학작가들이 사실자료를 가지고 작품을 쓰는데서 자료를 기계적으로 옮겨놓을것이 아니라 작품의 높은 사상예술성을 보장할수 있도록 사건처리를 잘하여야 합니다. 사실자료를 기계적으로 작품에 옮겨놓으면 작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는 사건처리를 비롯한 구성조직을 잘하는것이 문학작품의 높은 사상예술성을 보장하는데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명철하게 밝혀주고있다.

작품의 구성을 짜이게 하고 그 예술적처리를 잘하는것은 구성의 유형성과 단조성을 극복하고 그 독창성과 다양성을 살려 작품의 사상예술적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작품의 구성이란 작품에 설정되는 인물과 갈등, 사건과 일화, 세부 등 형상의 모든 요소들을 종자를 뿌렸하듯 살리는데로 조화롭게 묶어세우는 예술적형식이라는것을 가르쳐준다.

구성을 잘 짜야 작품의 내용을 깊이있고 명백하게 전개할수 있고 생활을 진실하게 보여줄수 있으며 문학적이야기 또한 흥미있게 전개시킬수 있다.

문학작품에서 구성이 짜이지 못하면 작가의 사상미학적의도가 살아나지 못할뿐아니라 생활의 합법칙적과정을 진실하게 반영할수 없고 나아가서는 작품의 정치사상적내용까지도 외곡하게 된다.

이처럼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노는 구성이 작품의 개성적특성을 살리는데 직접적인 작용을 미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작품의 내용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현실은 문예작품창작의 모체이며 무궁무진한 창조적원천이다. 문학예술의 기본묘사대상으로서의 인간과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실로

다양하고 풍부하며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

인간생활이 이처럼 다양하고 풍부한것만큼 그것을 예술적으로 반영하는 작품의 내용도 결코 단순하지 않다. 작품내용의 다양성과 풍부성은 불가피적으로 그 반영형식으로서의 구성의 다양성을 가져오지 않을수 없으며 따라서 문예작품이 몇개의 구성적틀을 가지고 생활을 재조직한다면 류사성과 도식적인 틀에서 벗어날수 없다.

작가들이 독창적으로 탐구하고 파악한 생활을 예술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구성을 독창적으로 짜는데 창조적주목을 돌리게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예술적형식가운데서 가장 적극적인 요소로 되기때문이다.

구성은 작품의 종자를 예술적으로 꽃피우는 기본형식이며 가장 힘있는 형상수단이다. 구성은 작품의 사상주제적내용에 의하여 제약되며 규정되지만 그 내용에 적극적인 반작용을 한다. 주제가 참신하고 사건과 생활세부가 훌륭한것일지라도 그것들을 하나의 전일적인 화폭으로 조직하는 구성이 짜이지 못하고 류형적일 때에는 작품이 자기의 색깔을 제대로 살릴수 없다. 그러므로 구성은 예술적형식가운데서 가장 적극적인 요소로 된다.

작품의 구성이 노는 이러한 적극적인 역할은 구성에 따라 작품의 양상이 달라지지 않을수 없다는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작가들이 구성을 독창적으로 짜고 잘 풀어나간다면 그만큼 작품의 개성적특성이 뚜렷이 살아난다.

작가들은 예리한 당적안목에 기초하여 예술적탐구와 창작적사색으로 생활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독창적으로, 개성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구성을 특색이 있게 조직하는데 창조적주목을 돌려야 한다.

문예작품창작에서 구성의 유형성과 단조성을 극복하고 그 독창성을 살리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종자에 기초하여 생활의 요구에 맞게 구성을 짜는것이 중요하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작품의 구성을 짜는데서 종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것을 새롭게 밝혀주었다.

종자는 작품의 기본핵으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것은 작품에서 반드시 움이

트고 줄기와 아지가 뻗어 예술적형상의 꽃으로 피어나야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여기로부터 종자를 끌라잡은 다음에는 그것을 예술적으로 잘 가공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종자를 예술적으로 잘 가공하려면 반드시 모든 형상을 종자에 복종시켜야 한다. 모든 형상을 종자에 복종시켜나아가야 작품에서 대를 세울수 있고 작품에서 대를 세워야 모든 형상들을 엮나가지 않게 할수 있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형상요소들을 새롭고 참신한 종자를 예술적으로 꽃피우는데 복종시키는것은 구성의 독창성과 비반복성을 살리기 위한 원칙적요구로 나뉜다.

지금 광범한 독자들속에 널리 읽히우고있는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제1부)에서는 형상적구성과 읽음새가 작품에서 제기된 기본문제를 뚜렷이 밝히는데 철저히 복종되고있으며 주인공 유철의 성격발전과정도 그에 의하여 제기지어지고있다.

장편소설에서 이야기하자는 사상주제적과제는 혁명투쟁에서 탁월한 수령의 결정적역할에 관한 문제이다. 장편소설은 혁명투쟁에서 승리하자면 반드시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아야 하며 또 그러한 혁명투쟁만이 그 어떤 우여곡절도, 실패도 모르게 된다는것을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장편소설에서는 주인공과 사건, 인간관계의 설정과 그 해결도 전적으로 기본문제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있으며 이 문제의 해명에 돌려지고있다. 때문에 작품에는 수많은 인물들과 인간관계가 주어지고 사건이 엮여져있으나 그 모든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받아야 혁명가들이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처럼 꽃피여날수 있다는 문제의 예술적해명에 복종되고있다.

작품에 심어놓은 사상적알맹이를 독창적으로 진실하게 밝히려면 또한 생활의 논리에 따라 구성을 짜고 풀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주제적문예리론이 밝혀준바와 같이 작품의 구성은 종자를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속에서 점차 폭넓고 깊이있게 밝혀나가는 방향에서 짜져야 하므로 그것은 반드시 생활의 논리에 맞아야 한다.

작품구성에서 기본으로 되는 사건들과 그것들을 둘러싸고 맺어지는 인간관계의 발전과정이 생활의 논리에 맞아야 작품의 사상적알맹이를 생동하고 진실한 예술적화폭으로 밝힐수 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그들의 생활은 어디까지나 실생활에 대한 예술적반영으로 되어야 한다. 작품에 반영되는 생활이 실생활의 논리에 맞을 때에만 거기에 반영된 생활도 비로소 타당성과 합법칙성을 띤 개성적이며 진실한것으로 안겨올수있다.

사건발전의 논리, 생활의 논리를 독창적으로 진

실하게 그리기 위하여서는 생활적전제를 옳게 짚아 주고 그것이 옹당한 결과에 이르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작품의 유기적구성부분을 이루는 생활적전제가 필연적결과에로 이르도록 하자면 계기들을 잘 설정하고 해명하여야 한다.

작품에 설정되는 계기는 등장인물들을 전형적인 높이에 확고히 내세우고 그들의 성격이 전면적으로 뚜렷이 드러날수 있는 본질적이며 독창적인 계기로 되어야 한다.

작품에 설정되는 생활적계기가 인물들의 성격적 특질이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계기로 되지 못할 때 그것은 단순히 생활에 흔히 널려있는 사건, 이야기에 머무르고만다.

작가들은 주인공의 생활과 운명에서 질적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하고 첨예한 계기들을 포착하고 거기서 생활과 주위환경에 대한 주인공의 립장과 견해, 다른 인물들과의 정치도덕적관계에서 발생하는 심리적충동과 내부적체험을 분석적으로 그려야 한다.

이러한 생활적계기들은 결코 한두마디의 설명으로 스쳐지날것이 아니라 몇개의 생동한 생활적사실들을 들어 전개하여 묘사함으로써 주인공의 성격발전의 전모를 생동하게 형상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종자의 요구에 맞게 구성을 짜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생활발전의 논리에 맞게 조직할뿐아니라 작품마다 특색이 있게 세워야 한다.

주제적문예리론이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작품마다 종자가 다르고 주제사상이 같지 않을뿐아니라 거기에 반영되는 생활이 다르기때문에 구성이 같아져서는 안된다.

문학에 력사적으로 이루어진 몇개의 구성적틀이 있지만 그것은 시대와 사회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예술적사고능력이 발전함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되고 풍부화되어야 한다.

구성은 사회력사적구체성을 반영할뿐아니라 그 나라 인민의 민족적특성도 반영하게 된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현실생활과 어울리는 새로운 구성형식과 구성수법들을 찾아내어 완성시켜야 한다.

구성의 다양성과 풍부성을 살려 독창적이며 비반복적인 예술적형상을 창조하려면 작가들이 생활의 진실에 튼튼히 의거하여 기발하게 착상하고 대담하게 창작하여야 한다.

작품의 주제가 명확히 선 다음에는 그것을 형상하는 작업은 매개 작가가 자기 재간껏 하여야 한다. 문학예술창작은 말그대로 작가들이 산 인간과 그들의 생활을 기본묘사대상으로 하는 자주적이며 창조

적인 사업이다. 작가들은 높은 당적안목과 정치적 식견을 가지고 생활체험을 풍부히 쌓는 한편 기발하게 착상하고 대담성을 발휘하여야 구성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살리고 특색이 있는 작품을 창작해낼 수 있다.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제1부)은 특색있는 구성조직과 구성수법들을 찾아 리용하는 면에서도 좋은 시도를 보여준 작품이다.

이 장편소설은 주인공 유철의 생활로정과 성격발전을 두 시기로 나누어 보여주면서 전후편의 대비적인 생활내용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받지 못하여 파란곡절을 겪게 되던 시기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받음으로 하여 혁명투쟁에서 승리하는 생활로정의 두 력사를 대조시킨 구성상특성을 가지고있다.

소설은 또한 시대의 폭을 넓히고 깊게 하는 한편 인간관계를 다양하고 풍부히 맺어주면서도 주인공의 생활로정과 운명선을 주선으로 하여 사건과 생활, 인간관계를 끌고나가면서 그것을 주제해명에 집중시킴으로써 생활과 인간을 라렬하지 않고 구성을 조직해나간 좋은 점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또한 력사적사건과 주인공의 운명발전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묘사함으로써 조선공산주의 운동의 본질을 옹계 보여줄수 있도록 구성조직을 한 특색을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영화문학작품을 쓰는것을 신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혁명의 때 시기 우리 당이 내놓은 로선과 방침이 다 명백한것만큼 당의 로선과 방침에 근거하여 사실자료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설정하고 예술적으로 잘 형상하면 될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는 당의 로선과 방침에 근거하여 사실자료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설정하고 예술적으로 잘 형상하는것이 작품창작의 기본으로 된다는것을 명철하게 밝혀준다.

문에작품이 사람들에게 주는 커다란 사상정서적 충격과 예술적감흥은 거기에 묘사된 주인공과 인간관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인간관계가 이처럼 중요한 형상수단으로 되는것은 우선 그것이 구체적인 현실생활에서 맺어지는 사람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관계의 예술적 반영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현실생활에서 맺어지는 사람들의 다양한 사회적관계가 작품에서는 인간관계로 나타나며 이러한 인간관계에 의하여 작품에 심어놓은 종자와 주제가 밝혀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관계는 개성적형태로 발현되기때문에 작품에서 맺어지는 인간관계 역시 개성적이며 비반복적

인것이어야 한다.

작품의 개성적특성을 살림에 있어서 인간관계가 중요한 형상요소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작가들에게 있어서 독창적인 생활탐구의 기초로, 독창적인 구성의 인간학적기초로 되기때문이다.

생활과 인간관계는 밀접한 련관을 맺고있다. 생활의 풍부하고 다양한 반영은 인간관계에 의하여 담보되며 인간관계를 잘 맺어주면 생활을 얼마든지 찾을수 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 맺어주고 심화시키지 않고서는 작품에 심어놓은 종자와 주제사상이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밝혀질수도 있다.

인간관계를 옹계 맺어주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작품에 등장하는 매 인물이 구성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똑똑하고 자기의 성격적과제를 가지도록 하는것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인간형상의 고유한 본성적요구를 심오하게 해명하여주었으며 작품에 등장하는 매 인물이 그자체로서는 의의있는 인물일지라도 구성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형상과제가 뚜렷하지 못하면 아무런 존재가치도 없는 불필요한 인물로 된다는것을 밝혀주었다.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에게 뚜렷한 형상의 몫을 주고 그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옹계 밝히는것, 이것은 주체의 인간학에서 인간묘사의 근본원칙의 하나이며 인간관계설정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요구이다.

매 인물에 주어진 형상의 몫, 성격적과제는 일반적으로 종자를 형상적으로 꽃피우는데 이바지하면서 구체적으로는 그 인간성격을 창조하는데서 주되는 기능을 수행한다. 매개 작품에서 주인공은 더 말할것도 없고 하나의 부차적인 인물도 종자를 예술적으로 가공하는데 전적으로 이바지하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몫을 가지고있어야 한다.

매 인물들에게 뚜렷한 성격적과제가 주어져야 그들이 개성적인 산 인간으로 그려질수 있을뿐아니라 그만큼 주인공의 성격도 더 두드러지고 작품의 사상주제적심오성도 확고히 보장될수 있다.

작품의 종자를 예술적으로 꽃피우는데서 주도적 역할은 어디까지나 주인공이 담당한다.

주인공은 형상자체의 중심에 서서 종자를 꽃피우는데서 핵심적역할을 담당하며 여러 인물들을 련결시키고 중심에서 끌고나간다. 그러므로 주인공의 성격에 개성적특질을 명백히 주고 그를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독특하게 맺어주며 풀어나가는것은 작품의 종자를 옹계 꽃피우고 개성적특성을 살리기 위한 기본방도로 된다.

주인공이 자기가 서야 할 자리에 서지 못하고 채구실을 하지 못하면 부차적인 인물들의 선이 두드

러지고 따라서 작품의 내용도 초점을 잃고 모호해지는 결과가 빚어진다. 작가는 주인공선을 살리려는 구실밑에 부차적인물선에 무관심해서도 안된다. 부차적인물들은 제각기 특색있게 그려지면서도 주인공의 선을 살리고 이야기의 폭을 넓히는 주제적과제를 해결하는데 이바지하는 인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작가는 부차적인물들이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를 밀접히 맺도록 하고 그들이 모두 작품의 주제의 어느 한 측면을 밝히는데 이바지하는 산 개성들로 그려지도록 힘을 넣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장편소설 《평양시간》이 보여준 경험은 매우 긍정적이다.

장편소설은 7천세대분의 자금과 로력을 가지고 2만여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함으로써 평양건설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킨 1958년을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이 해에 세상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낸 놀라운 기적과 혁신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재더미우에서 웅장하고 화려하고 현대적인 새 도시를 그렇듯 짧은 기간에 일떠세울수 있게 한 천리마속도 《평양속도》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물음에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주고있다.

장편소설은 바로 사회주의현실이 제기하는 이와 같은 절실하고 의의있는 문제성을 종자로 잡고 그것을 공산주의인간학의 요구에 맞게 해명하였다.

장편소설에서 기본문제성은 주인공 상철이와 문화련에 의하여 제기하고 해명된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인물들인 수진, 안오월, 탁준범, 림도식, 지태설 등 부차적인물들을 떠나서 이 소설의 문제성을 생각할수 없다. 말하자면 작가는 매 인물들에게 뚜렷한 성격적과제를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작품전반의 껀임새와 심오한 문제성을 살리였다.

이 작품에서 오랜 지식인인 도시계획설계실장 문화련은 우리 당의 지식인정책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승리를 체현한 인물이다. 그의 형상은 지식인들은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철저히 뿌리뽑고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신을 혁명화함으로써만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신임과 은덕에 보답하고 그이께서 심려하시는 문제를 풀수 있다는 문제성을 성격적과제로 삼고있다.

안오월이에게도 주어진 성격적과제가 있다. 작품은 오월이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시대의 참다운 동지적우정과 사랑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때만이 공고하고 아름다운것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형상적으로 확증해주고있다.

소설은 부정인물들인 껀나봉과 림도식, 지태설의 형상을 통하여 주체조선의 속도, 《평양속도》는 반혁명분자들의 음모책동과 관료주의, 형식주의,

사대주의, 요령주의, 보신주의 등 온갖 불건전한 사상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속에서만 창조될수 있었다는것을 보여주면서도 이들에게 고유한 성격적과제들을 주고있다.

지배인 림도식은 우리 시대의 지도일꾼들이 탐욕과 출세욕에 눈이 어두워 관료주의, 요령주의, 소극성을 부린다면 근로자들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마비시키며 우리의 전진운동을 방해하는 락오자로 될수밖에 없다는것을 밝히고있다. 지태설을 통하여서는 웃사람의 눈치와 비위에는 발라맞추고 아래사람들의 실정은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도 않고 듣기 싫은 잔소리만 지루하게 할것이 아니라 당적안목에 기초하여 자기가 생각해보고 자기가 얻은 결론대로 창발적으로 일하여야 대중을 고무하고 이끄는 참다운 일꾼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경험은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혀준대로 모든 등장인물들에게는 크거나 작거나 자기가 담당한 형상의 몫이 있어야 하며 그 몫이 옳게 설정되고 해명될때에만 주인공의 선이 두드러지고 작품의 사상에술적심오성을 보장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뚜렷한 성격적과제를 가진 인물만이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며 개성적인 성격으로 될수 있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창작전과정에 매 인물들에게 뚜렷한 성격적과제를 주고 그것을 집요하게 추구해들어감으로써 작품의 모든 요소들이 종자해명에 유기적으로 복종되면서도 매 인물이 생동하고 개성적인 성격으로 두드러지게 되어야 한다. 인간관계설정에서 또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인물배치를 잘하는것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혀주는바와 같이 인물배치에서의 빈 구석이 형상의 함정으로 된다면 쓸데없는 인물의 설정은 형상의 덧으로 된다. 따라서 작가는 작품의 내용에 맞게 이리저리한 계급과 계층에 속하는 전형적인 인물들을 골라서 배치하고 그들의 관계를 정치적으로 의의있게 줄수 있도록 잘 맺어 줌으로써 그것이 작품의 주제와 사상을 밝혀내는 생활적기초로 될수 있게 구성을 짜야 할것이다.

독창적이며 비반복적인 구성을 짜기 위하여서는 인간관계를 생활에서처럼 다양하고 풍부하게 맺어 주고 인물들의 성격을 보여주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인간관계를 다양하게 맺어주고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여러 모로 그리는것은 그들의 성격을 개성화하고 작품에 생활을 풍부하고 다면적으로 그릴수 있게 하는 전제조건이다. 인간관계를 다양하게 설정하지 않고서는 생활을 풍부하게 반영할수 없으며 주인공들의 세계관형성과정을 개성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줄수 없다.

작품에서 인간관계는 이야기줄거리에 얹혀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야기줄거리를 잘 엮는것은 합리적인 구성조직에서 원칙적인 의의를 가진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혀주는바와 같이 구성의 중심에는 인물들의 호상관계에 의하여 발생발전하며 절정을 이루고 결과가 맺어지는 이야기줄거리가 놓여있다.

그러므로 이야기줄거리가 잘 짜이지 못하면 구성이 산만해지고 생활발전과정도 흥미있고 명백하게 보여줄수 없게 된다. 이로부터 심금을 울리는 문학적인 이야기줄거리를 잘 엮어나가는것은 독창적인 구성조직의 원칙적요구로 나선다.

구성, 류형성과 단조성을 극복하며 인간관계를 깊이있게 보여주려면 또한 감정조직을 잘하여야 한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작품의 구성은 단순히 사건조직으로 되어서는 안되며 감정조직으로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준다.

감정조직은 생활의 논리를 따라 인간의 감정세계를 자연스럽게 펼쳐보이면서 성격의 본질을 정서적으로 드러내는 형상방법이다. 사건조직에 기초하여 인물들의 행동선을 세우고 그들의 행동과정에 드러나는 감정의 흐름을 진지하게 파고드는것은 예술적 감화력을 보장하는 기본수단이다. 생활의 우여곡절속에서 등장인물이 겪는 교감과 체험의 축적을 생활의 논리에 맞게 섬세하게 그려내야 성격을 개성화할수 있고 감동깊은 형상을 창조할수 있다. 인간관계를 잘 맺어주고 심화하는데서 인간의 감정세계를 진지하게 파고들지 않는다면 인간의 내면세계를 제대로 밝힐수 없고 성격을 개성적으로 진실하게 창조할수 없다.

무미건조하고 딱딱한 생산공정과 추상적개념에 의하여 꾸며진 줄거리를 가지고 만든 작품은 레외없이 인간성격인 사건속에 파묻히고 내부적으로 심화되지 못한 약점을 면할수 없다.

인물들의 생활감정이 생겨나고 발전하는 과정은 사건의 발생발전과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감정이 드러날수 있는 정황과 전제조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서를 로출시키려 하거나 일정한 감정이 축적되기도전에 사건이 끝나게 되면 감정조직에서는 토막이 생기고 독자들의

감흥도 깨어지고만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은 사건조직과 감정조직을 일치시켜 조화롭게 형상하는 면에서도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고있다.

주인공 갑룡이가 잔치날아침에 《자위단》에 강제로 끌려가게 된 사실, 잘해도 못해도 매를 맞아야 하는 굴욕적인 《자위단》생활, 남의 잔치집까지 들이치고 털어먹는 악질 《자위단》놈들의 야만적인 행패, 또한 노동자들의 파업탄압에 내몰렸을 때 그곳 노동자들로부터 받게 되는 심각한 정신적충격, 생사고락을 같이 하자던 만식이의 총살과 철삼의 죽음, 그렇게도 잘 모시려고 했던 아버지의 죽음, 이 모든 사건들은 주인공의 사상의식의 장성과정과 감정의 변화발전과정을 통일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생활국면으로 되고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작품은 효도와 의리 등 단순한 인간적감정이 어떻게 자그마한 효성도 의리도 용납하지 않는 착취제도와 계급적원썹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으로 변화발전하는가를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그리고 《자위단》에는 들어도 죽으며 안들어도 죽는다는 이 작품의 종자와 투쟁만이 살길이라는 사상을 힘있게 밝혀내고있다.

이처럼 독자들을 정서적으로 흥분시키는 감정조직을 사건조직과 일치시켜 치밀하고도 섬세하게 하여야 독자들을 정서적으로 흥분시킬수 있으며 작품이 제기한 사상주제적내용을 심오하게 밝혀낼수 있다.

이 모든것에서 명백한바와 같이 작품창작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리기 위하여서는 구성을 비반복적으로 짜고 그 예술적처리를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풍요하고 다양한 현실생활을 반영하는 문예작품이 류사하거나 몇개의 고안된 구성적틀을 가지고 생활을 재조직한다면 작가들이 제아무리 의의있는 생활소재를 탐구하고 새롭고 참신한 종자를 골라잡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예술적으로 옹기 가공할수 없으며 예술적형상의 독창성도 보장할수 없다.

작가들은 언제나 올바른 창작가적립장과 자세를 가지고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좋은 종자를 골라잡는것과 함께 거기에서 예술적형상의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도록 구성을 독창적으로 조직하고 풀어나가기 위하여 탐구적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리자

류만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릴데 대한 리론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문예사상과 그 구현인 주체적문예리론에 의하여 새롭게 밝혀진 독창적인 창작리론이다.

일반적으로 생활은 무한히 다양하고 풍부하며 헤아릴수 없이 깊은 내용과 뜻을 가지고있다. 매일 매시간 새롭게 창조되고 변화발전하는 생활을 그 풍부성과 다양성속에서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그려내자면 생활묘사의 단위를 옹게 설정하고 그 측면과 각도를 바로잡아야 하는것이다.

아무리 좋은 창작의도와 훌륭한 생활내용도 또 커다란 력사적사건과 흥미있는 사실도 그것을 잘 보여줄수 있게 그려내지 못한다면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줄수 없으며 반대로 하나의 평범한 생활사실도 여러 측면에서 의의있게 그려내면 사람들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줄수 있다.

주체적문예리론에 의하여 새롭게 밝혀진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릴데 대한 리론은 풍부하고 다양한 현실생활을 가장 본질적으로, 그 각이한 양상과 변화발전과정의 통일속에서 그리고 여러 계기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그릴수 있게 하는 사회주의적사실주의생활묘사의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도를 명시한 독창적인 리론이다.

* * *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리는것은 공산주의인간학으로서의 사회주의문학예술에서 인간과 그 생활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그리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작품을 쓴다고 하여 제목을 크게 달고 어떤 사람의 전기를 쓰거나 투쟁의 첫시작부터 승리하는 날까지 다 그리려고 하여서는 안됩니다. 영화문학작품을 전기나 년대기식으로 써서는 흥미도 없고 영화들의 흐름이 다 갈아져서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큰 작품도 쓰고 작은 작품도 써야 합니다. 항일무장투쟁과정의 한토막이나 한가지 사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좋은 작품을 쓸수 있습니다. 유격대안에서 동지들사이의 혁명적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 중첩되는 난관을 이겨내고 굴함없이 적들과 싸우는 모습, 적군와해공작, 지하공작을 비롯하여 여러 측면들을 가지고 좋은 작품을 쓸수 있을것입니다.

아무리 큰 혁명적대작이라고 하더라도 한 작품에서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줄수는 없는것입니다. 내용이 깊지 못하게 이것저것 다치는것보다는 한 측면이라도 깊이 있게 그리는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주체적문예리론은 문학에서 인간을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주려면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려야 한다고 가르치고있다.

생활을 전기나 년대기식으로 포괄적으로가 아니라 세부화하여 깊이있게 그리는것은 생활묘사의 풍부성과 생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모든 창작방법은 그에 고유한 형상 방도와 수단을 가지고있다. 창작실천에서 이것들은 여러가지 내용과 측면들을 가지고있지만 궁극에 가서는 하나의 문제 즉 생활을 어떻게 그릴것인가 하는 문제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또 이 하나의 문제에 귀착된다.

풍부하고 다양하며 복잡한 현실생활을 어떠한 각도에서 어떻게 그리는가 하는 문제는 생활반영의 진실성과 생동성을 보장하고 개성적인 인간성격을 창조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나아가서 그것은 작품의 사상에술적가치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되는것이다.

주체적문예리론에 의하여 밝혀진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릴데 대한 리론은 문학예술창작에서 중요한 미학적문제로 나서는 생활을 어떻게 그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출발점으로, 기본 열쇠로 된다.

혁명투쟁을 내용으로 하는 작품창작에서나 사회주의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작품창작에서나 생활을 그리는데서는 다 세부화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생활묘사의 전 과정에서 이 요구를 관철하여야 한다. 생활묘사에서 세부화의 원칙을 옹게 관철할 때에만 문학예술작품의 사상에술적심오성과 다양성, 생동성을 훌륭히 보장할수 있다.

주체적문예리론에서는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리는 문제의 본질과 내용, 그 요구들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인간의 감정이 표현되고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발전하여나가는 구체적인 생활정형의 단면들을 파고들어 섬세하게 그릴 때라야 작품에는 감명깊은 인간세계가 펼쳐지게 된다고 가르치고있다.

주체적문예리론에 의하여 밝혀진 이 정식화에는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리는 문제의 본질이 뚜렷이 명시되어있다.

즉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린다는것은 생활정형의

단면들을 파고들어 섬세하게 그린다는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생활정형의 단면은 그속에 인간의 사상감정이 표현되고 또 실제적인 인간관계와 그것이 맺어지고 변화발전하여가는 구체적인 과정이 반영되어있는데 그 특징이 있다.

다시말하면 세부화에 의한 생활묘사는 산 인간의 숨결과 맥박, 사색과 감정, 활동과정이 있는 그러한 생활정형의 단면을 그림으로써 확고히 보장된다.

장편소설 《평양시간》에서 상철이와 수진이가 대학과 기계공장으로 가려던 애초의 결심과 배치지를 변경하고 건설장으로 가기까지의 생활에 대한 묘사는 세부와와 생동한 실례의 하나이다.

세대군인들인 상철이와 수진에게 있어서 전쟁의 나날에 목숨으로 한치의 조국땅을 지켜 싸웠던것처럼 전후 사회주의기초건설의 우람찬 진군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당이 요구하는 초소에서는것보다 더 영예롭고 보람찬 일은 없었다. 따라서 작품에서는 그들의 이러한 성격적특징이 형상적으로 두드러지기까지의 과정을 일반적인 설화나 몇마디 해설로써가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단면을 설정하여 설득력있게 보여주고있는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상철이와 수진이가 단층림시주택마을의 반토굴집 《높은 문턱》에서 탁준범의 네살난 아들이 겪는 《설음》을 목격하는 장면과 과거 토성랑빈민촌에 들쭉쭉했던 가난과 무서운 재난에 대한 상철의 회상, 그리고 상철, 수진이들의 로동초대소에서의 탁준범과의 상봉이며 문화린의 집 방문, 문화린의 가정에서 벌어진 일과 그의 내면세계에 대한 묘사 등이다.

작품에서는 이러한 생활단면의 설정을 통하여 토성랑의 피땀한 과거와 전쟁의 상처를 아직 가지지 못한 살림집형편을 생활적으로 실감있게 보여주었다. 또한 작품은 이러한 단면설정을 통하여 건설분야에서 일대 방향전환의 경종을 울린 당중앙위원회 10월전원회의의 력사적의의와 거대한 생활력, 건설에서 바야흐로 새 기적이 이룩되던 시대적환경을 진실하게 재현하였다.

이러한 생활정형의 단면들은 그자체로서의 인식교양적의의와 함께 주인공들인 상철이와 수진이가 다른곳 아닌 바로 건설장으로 갈 생각을 굳히고 그 결심을 실천으로 옮기는데서 거대한 사상정서적영향을 미치는것이다.

만일 여기에서 이러한 생활단면을 설정하지 않고 그들이 단순히 《위훈》에 대한 갈망으로 하여 건설장에 가게 하였다면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성격적풍모를 전형화할수 없었을것이며 또한 건설부문에 대한 당정책의 정당성과 조립식건설의 절박성을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천명할수 없었을것이다.

작품에서는 주인공의 성격발전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생활단면을 옹계 설정함으로써 생활의 논리를 무시하고 성격을 주관적으로 좌우하는것과 같은 결함을 결정적으로 극복하고 풍부하고 다양한 생활을

통하여 시대적환경속에서 산 인간의 성격을 개성적으로 생동하고 진실하게 창조할수 있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사상감정이 표현되고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발전하여나가는 구체적인 과정이 집약되어있으며 다양한 생활분야를 포괄하고있는 이러한 생활정형의 단면을 잘 설정하는것은 인간과 그 생활을 본질적으로 생동하게 그릴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방도를 제시해준다.

생활묘사에서의 단면설정은 그 원리에 있어서 설계에서의 단면설정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다.

설계에서는 물체를 아무리 잘 그렸다 하여도 단면을 설정하지 않는 이상 그 외형이나 립박박에 알수 없다. 물체의 구체적인 내용과 구조를 알자면 그 내부를 여러 각도에서 보아야 하며 내부를 깊이 파악하는데는 단면들을 잘 설정하는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물론 설계에서와 같이 문학예술작품이 기초하고 있는 현실생활을 점과 선과 치수를 가진 도면처럼 그렇게 일정한 약속과 도식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단면화할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물체를 그 형태와 내부구조를 뚜렷하게 알며 또 설계된 물체를 정확하게 제작하기 위하여 가상적인 면을 설정하고 단면도를 작성하듯이 생활도 립박적으로뿐만아니라 본질적으로, 그 인과적련과속에서 깊이있게 알자면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발전하며 사람들의 사상감정이 표현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구체적인 계기와 단계에서 여러 측면에 걸쳐 고찰하여야 하는것이다.

생활을 현상적으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개념적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종적으로나 횡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주며 실제적인 생활과정을 통하여 그 전반흐름과 양상을 나타내려는데로부터 문학예술작품에서는 생활을 반영하면서 가상적인 단면을 생각할수 있으며 또 설정하게 되는것이다.

주체적문제이론에 의하여 밝혀진바와 같이 사람들의 생활은 헤아릴수 없이 많은 생활정형의 단면들을 가지고있다.

모든 생활단면들은 총체적으로는 생활이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한 부분이면서도 그자체로서의 생리적과정을 보여주고있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생활은 매우 풍부하고 다양하며 또 헤아릴수 없는 심도를 가지고있는것만큼 여러 각도에서 그 단면을 생각할수 있다. 생활을 어느 각도, 어느 측면에서 《단면화》하든지간에 때 단면들은 하나의 유기체, 생활이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한 부분을 이루는것만큼 그 진행과 양상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다 같이 생리적과정으로 되는데 공통점이 있다.

이런 면에서 구체적인 생활정형의 단면은 그 어떤 특정한 생활분야나 생활에 대한 일면적인 리해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례를 들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진행하고있는 정치생활, 군사생활, 경제생활, 인간생활은 그것이 상

대적으로 더 두드러지게 그러지는것이 있을수 있지만 그가운데서 정치생활이나 경제생활 또는 군사생활이나 인간생활을 따로 떼내어 독립적으로 보고 그리는것이 생활정형의 단면에 대한 묘사가 아니다.

매 생활정형의 단면에는 일정한 계기, 일정한 단계에서의 그 인간의 구체적인 심리상태와 사상감정, 사건의 진행단계, 인간관계와 그 발전과정의 실제적인 상태가 반영되어있다. 따라서 작가가 포착한 생활정형의 그 단면은 이미 진행되어온 생활과의 유기적인 연관속에서 현재 진행되고있는 생활과 인간관계를 보여주며 또 그것이 정확하게 포착된 생활단면인 이상 앞으로의 인간관계와 생활까지도 예상하게 한다. 이러한 생활단면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활동하며 투쟁하는 인간들의 생활속에서 포착된 것인만큼 그것은 다른 생활단면들과 연계속에 있을 뿐아니라 그 안에 인간이 관계하는 생활의 여러 분야를 포괄하고있다. 즉 구체적인 생활정형의 한 단면안에도 정치생활, 군사생활, 경제생활, 문화생활이 반영될수 있으며 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구체적인 생활정형의 단면에서 이러저러한 생활분야를 많이 보여주는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물론 필요에 따라 생활의 여러 측면을 구체적인 화폭으로 펼쳐보일수도 있고 또 펼쳐보여야 할 때도 있지만 인간의 사상감정이 표현되고 인간관계와 그 발전의 필연적인 요인, 결과로서의 생활이 아니라 단순히 여러 생활분야를 기계적으로 결합하여놓은것으로 될 때에는 자연히 생활반영의 범위만 넓어지고 규모도 커질수밖에 없다. 이것은 생활적사실에 대한 단순한 기록이나 조립에 지나지 않으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활정형의 단면과는 인연이 없다.

현실적으로 정치생활, 경제생활, 군사생활, 문화생활이 계선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히 결합되고 침투되어 하나의 통일적인 과정을 이루고있는것만큼 하나의 생활정형의 단면이라도 그것을 사회생활의 다양한 시점에서 분석적으로 깊이있게 그려낸다면 얼마든지 주인공이 관계하는 생활의 여러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양하고 생동하게 보여줄수 있다.

구체적인 생활정형의 단면을 설정하고 깊이 파고들며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리는것은 문학예술의 모든 형태, 크고작은 모든 형식에 다 해당되는 일관한 미학적요구이다.

주체적문예리론에 의하여 새롭게 밝혀진 문학예술작품에서 규모가 대작이 아니라 내용이 대작이 되어야 한다는 리론도 바로 생활단면을 잘 설정하고 깊이있게 그릴 때에만 창작에서 훌륭히 구현할수 있다.

한편의 작품에 혁명투쟁의 전 과정을 담으려고 할 때에는 어쩔수 없이 생활을 라렬하거나 기록하게 되며 결국 규모만 크고 내용이 없는 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이러한 작품들에는 크고 요란한 사건

은 있는것 같으면서도 구체적인 생활정형의 단면을 통한 세부화된 생활묘사가 없기때문에 내용의 생동성과 심도를 보장하지 못하는것이다. 이것은 모두 사회적으로 의의있는 문제를 심도있게 형상하여 사람들의 혁명교양에 이바지하여야 할 작가의 기본사명과 임무로부터 멀리 벗어나는것이다.

물론 작가가 내세운 창작목적과 작품의 종자와 주제사상에 따라, 그리고 그 용적에 따라 작품에 설정되는 생활정형의 단면은 많고 적은데서는 차이가 있을수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경우에도 생활정형의 단면을 옹골케 설정하고 깊이 파고들어야 작품의 사상적심오성과 예술적다양성을 보장할수 있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리는 문제는 주선이 없는 세부와 그자체의 실현에 목적이 있는것은 아니다. 세부화된 모든 생활묘사는 작품의 종자와 주선에 철저히 복종되어야 하며 주선으로부터 가지가 뺄고 주선을 형상적으로 풍부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되어야 한다.

생활을 아무리 세부화하여 그렸다 하더라도 그것이 작품세계와는 동떨어진, 주선에 맞물리지 않는 묘사라면 의의가 없고 군더더기가 되고만다.

따라서 작품창작에서는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리는데 커다란 주목을 돌리는것과 함께 그 생활묘사의 세부화가 어디까지나 주선에 복종되고 주인공들의 성격천명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되게 하여야 한다.

주체적문예리론에 의하여 새롭게 밝혀진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릴데 대한 문제는 이와 같이 그 어떤 형식의 문학작품에서나 다양하고 풍부한 현실생활을 외형적으로나 료괄적으로가 아니라 여러단면을 설정하여 깊이있게 묘사함으로써 생활을 현실 그대로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그릴수 있게 하는데 그 미학적본질이 있다.

* * *

주체적문예리론에 의하여 새롭게 밝혀진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릴데 대한 리론은 생활묘사의 사실주의적진실성을 보장하고 생활을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그릴수 있게 하는 가장 과학적이며 정당한 리론이다.

무엇보다도 주체적문예리론에 의하여 새롭게 밝혀진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릴데 대한 문제는 사람들의 생활을 본색그대로 그릴수 있게 하는 가장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확고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의 생활은 지난날의 생활보다 그 내용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현대영웅들의 복잡하고 풍부한 생활내용을 잘 형상하기 위하여서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작가가 그 어떤 정치적인것, 큰것만 그리려고 하면서 거대한 사회력사적사건들을 그저 라렬하거나 거창한 생산투쟁을 보여주는데

매달리면 생활을 본색 그대로 그려낼수 없다고 하면서 생활을 세부화하지 않고 통채로 라렬하며 인간중심이 아니라 사건본위로 생활을 그리며 생활의 결과만 제시하는것은 형상의 요구로부터 멀리 벗어나는것이라고 가르치고있다.

구체적인 생활을 깊이 파고들어 연구하지 않고 겉으로 눈에 띄우는 그 어떤 큰 사건, 요란한 생활만 찾아서는 생활을 본색 그대로 그릴수 없다.

생활을 본색 그대로그리지 않은 작품은 생활반영의 진실성과 생동성을 못가지며 일반성과 추상성을 면할수 없다. 또한 생활을 본색 그대로 그리지 않고서는 사람들에게 깊은 사상적충격과 미학적서적감흥을 불러일으킬수 없다.

생활을 본색 그대로 그린 작품만이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생활에 대한 믿음과 깊은 감흥을 줄수 있으며 인간성격을 훌륭하게 창조할수 있다.

생활의 본색은 그 풍부성과 다양성, 구체성과 비반복성으로 나타난다.

자주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들이 일하며 생활하는 분야가 다 다르고 또 그들의 사고와 심리, 감정도 각각각색이다. 서로 다른 사람들의 사고와 심리, 감정에 의하여 벌어지는 활동과 구체적으로 맺어지는 인간관계는 같을수 없으며 따라서 같은 목적과 지향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도 실제적인 투쟁과 생활은 뚜렷한 차이를 가진다. 이러한 차이는 사람들의 내면세계를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그들이 관계하는 여러 생활분야를 각이한 각도에서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보면 볼수록 더욱 뚜렷해진다.

문학예술작품에서는 현실생활이 가지고있는 이 풍부성과 다양성, 구체적이며 비반복적인 과정을 현실 그대로, 생활의 본색 그대로 그려내야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공명을 불러일으킬수 있으며 커다란 교훈을 안겨줄수 있다.

공산주의인간학으로서의 사회주의적문학예술에서 생활을 료괄적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일반적으로가 아니라 개성적으로, 사건본위의 이야기가 아니라 형상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만약 작가가 전쟁에 대한 작품을 쓴다고 하여 전투장면만 보여주고 주인공들의 구체적인 생활을 생동하게 그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인간학으로 될수 없다.

구체적인 생활을 놓친다는것은 벌써 생활을 그 본색대로 보고 그리는데서 물러나 통채로, 포괄적으로 그린다는것을 의미하며 생활정형의 구체적인 단면들을 파고들지 않았다는것을 말해준다.

작가가 그 어떤 정치적인것, 큰것만 그리려고 하면 생활단면들은 자연히 관심밖에 놓이고 뒤로 밀려나가게 된다. 반면에 하나의 생활화목을 이루어야 할 많은 단면들이 그자체의 본질과 의의가 독자적으로 밝혀지지 못한다 작가가 노린 큰것, 정치적

인것과 병렬적으로 라렬되게 되는것이다. 지난시기 혁명투쟁을 내용으로 한 일부 작품들에서 대체로 전투장면, 행군장면, 입대하는 장면들을 도식적으로 설정한것도 다 이러한 사정과 관련되어있었다.

인간의 사상감정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다양한 인간관계가 굴절되어있는 생활단면을 스쳐지나면 작가가 아무리 정치적인것, 큰것을 노렸다 해도 그 작품은 생활이 약동하는 산유기체로 될수 없다. 따라서 작가의 어떠한 주장도 생활의 안받침이 없는 하나의 구호나 주관적욕망으로 남을것이며 작품도 생명을 가질수 없다.

작가가 생활단면을 무시하고 거대한 력사적사건들을 그저 라렬하거나 거창한 생산투쟁을 보여주는 데 매달리면 인간중심이 아니라 사건본위로 생활을 그리며 생활의 결과만을 제시하는 후과를 남게 된다.

사건본위는 인간문제를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 인간학과 인연이 없으며 더우기 그것은 인간생활에 대한 홀시를 낳으며 작품의 구체성과 생동성을 제거해버린다.

생활단면들을 깊이 파고들지 않는 작품들에는 언제나 구체적인 인간생활에 대한 묘사보다 추상적인 문제, 사건적인것이 전면에 나서며 성격을 비롯한 형상의 모든 요소들이 여기에 복종되게 된다. 모든것이 오직 사건의 전후관계를 설명하고 그 진전을 보장하며 따라서 사건이 끝나면 다른 모든것도 동시에 자기의 존재를 마치게 되는것이다. 이런 작품에서 인간을 볼수 없는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리고 생활단면들을 깊이 파고들지 않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생활의 실태와 그 변화과정을 보여줄수 없기때문에 대체로 결과들만을 제시할수밖에 없게 된다. 주인공이 영웅적위훈을 세웠다면 그가 어떻게 투쟁하고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으며 또 어떠한 생활로정을 거쳐 그러한 위훈에도 도달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어야 하겠는데 생활단면을 파고들지 않는 경우에는 그저 주인공이 간고한 시련을 이겨냈다,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 어떠한 공훈을 세웠다는 식으로 결과만을 제시하게 되는것이다. 이런 작품들이 주인공의 영웅적위훈을 통하여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교양하는데 효과적으로 이바지할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사람들의 생활은 풍부하고 다양하며 구체적인데 그것을 통채로 묶어서 그 어떤 정치적인것, 큰것만 보여주려고 하여서는 생활을 본색대로 그릴수 없다. 다양하고 풍부하고 구체적인 현실생활의 본색은 오직 생활묘사의 세부화를 통해서만 실현될수 있다. 하나의 생활단면이라도 깊이 파고들어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리는데 여기에 모든 생활단면들을 종합적으로 묶어 통채로,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에서의 생활묘사보다 비할바 없는 우월성이 있으며 높은 인식교양적의의가 있다.

또한 주체적문제이론에 의하여 새롭게 밝혀진 생

활을 세부화하여 그릴데 대한 문제는 문학예술의 고유한 형상법칙에 전면적으로 맞는 가장 효과적이며 합리적인 형상방도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실생활을 생동하게, 심도있게 그려낸 사실주의적문예작품만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습니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생활은 언제나 구체적으로 깊이있게 그려야 하며 생활의 본질은 구체적인 형상을 거쳐 나와야 생동한 정서적힘을 가지고 안겨올수 있다는것을 가르치면서 생활의 구체성은 시대와 사회제도를 반영하는 인간관계를 깊이있게 맺어주고 인간의 심리세계를 섬세하게 그리는데서만 생겨날수 있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인간과 그 생활을 개성적으로 생동하게 그리는것은 예술적형상의 본성적요구이다. 문학예술작품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사상도 성격도 다 생활에 대한 개성적인 형상을 통하여 심도있게 밝혀지게 된다. 개성화를 떠나서 전형적인 성격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개성화되지 않은 성격이란 사실상 생활에 의하여 안받침되지 않은 작가의 주관에 의하여 만들어진 성격에 지나지 않는다.

개성화의 필수적전제는 인간과 그 생활에 대한 구체적이며 비반복적인 묘사이다. 생활을 구체적으로, 비반복적으로 그림으로써만 개성화를 실현할수 있으며 결국은 사회주의적문학예술에 고유한 전형적인 형상을 창조할수 있다.

문학예술창작은 생활의 룹락이나 사건의 전말, 이야기의 흐름을 알하는데만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다. 보다는 인간성격을 창조하는데 기본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인간성격은 생활의 룹락이나 사건적인 이야기로써는 도저히 그려낼수 없다. 생활을 구체적으로 깊이있게 그릴 때에만 인간성격에 대한 설명을 듣는것이 아니라 인간성격을 볼수 있으며 느낄수 있다.

구체적이며 비반복적인것을 육하는 예술적형상의 견지에서보나 인간성격을 창조하여야 할 형상적 과업의 견지에서보나 생활을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그리지 않고서는 도대체 문학예술작품이란 존재할수 없게 된다.

생활을 생동하게 비반복적으로 그려야 하는 예술적형상의 본성적요구를 충족시키자면 구체적인 생활정형의 단면을 깊이 파고들어가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려야 한다. 이것은 예술적형상의 구체성과 비반복성, 그 전형성의 확고한 담보로 된다.

생활정형의 단면을 깊이 파야 우선 작품의 개성적특성을 살릴수 있다.

개성적특성은 예술작품의 운명과 관련된 사활적인 문제이며 존재가치를 규정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생활정형의 단면을 깊이 파고들면 일정한 순간, 일정한 계기에서의 인간의 사상정신상태와 감정의

변화, 인간관계를 구체적으로 그려낼수 있다. 작가가 설정한 그 단면에 따라 이러한 생활내용은 부단히 변화되고 또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지게 되는바 단면이 많고 또 그 단면을 깊이 파고들수록 서로의 차이와 특성은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그러므로 창작에서 생활정형의 단면들을 깊이 파면 그만큼 작품의 개성적특성을 잘 살릴수 있다.

생활정형의 단면을 깊이 파면 또한 문예작품에서 묘사를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할수 있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문학예술작품에서의 묘사는 예술적형상의 생명이며 기본수단이다. 묘사를 떠난 문학예술작품이란 있을수 없으며 작품에서의 묘사는 결국 그것을 예술작품으로 되게 하며 사상과 형상의 심도를 안받침하는 주되는 요소이다.

묘사는 언제나 구체적인것을 요구한다. 묘사되는 대상자체를 외형적으로 룹락적으로 포착하면 일반성을 면할수 없으며 구체적인 생활사실들은 언제나 묘사의 구체성과 생동성을 보장할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생활정형의 단면에는 인간의 사상감정이 표현되고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발전하여가는 구체적인 과정이 반영되어있는것만큼 단면을 깊이있게 파고든다는것은 그만큼 묘사의 구체성을 담보해준다.

만일 생활정형의 단면을 파고들지 않고 현상적으로 나타난 그대로 그리려고 한다면 아무리 잘된 경우에도 거기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학적인 묘사가 없고 문학예술에 고유한 형상과는 거리가 먼 설명이 있을뿐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이 가르치고있는바와 같이 작품의 이야기는 언제나 생활적으로 형상해나가야 하며 설명적으로 끝나거나거는 안된다. 작품창작에서는 많은 설명보다 하나의 형상이 더 빛을 내는것이다.

그러므로 큰 사건만 따라가면서 전후관계를 맞추는데만 관심을 돌릴것이 아니라 어느 한 사건이나 단면이라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가서 심도있는 형상을 창조하는것이 중요하다. 생활의 단면을 깊이 파고든다는것자체가 벌써 어느 한 사건, 어느 한 생활, 어느 한 인물을 잡으면 그것을 여러 각도에서 끝까지 깊이있게 그려낸다는것을 말한다.

이렇게 놓고보면 설명적인 서술은 작가의 예술적 기교에도 관계되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리지 않는데로부터 얻어지는 필연적인 산물이다.

문학적인 묘사의 가능성을 풍부히 가지고있고 또 묘사의 구체적인 대상으로 되는 생활정형의 단면들은 다 스쳐지나버리고 이야기줄거리나 사건을 아무리 그리려고 하여도 거기에는 묘사가 아니라 설명이 있을뿐이다. 문학적인 묘사와 생동한 형상이 없이 사건의 흐름과 이야기줄거리가 앙상하게 드러난 작품들은 레외없이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리지 않고 통채로 그린 작품들이다.

그러므로 형상의 모든 경우에 생활정형의 단면을 깊이 파고들어가 그려야 생동한 문학적인 묘사를 할수 있고 묘사의 빈곤과 류사성도 없애고 그 풍부성과 다양성을 보장할수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사상감정이 표현되고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발전하여가는 구체적인 과정이 반영되어있는 생활정형의 단면을 옳게 설정하여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리는데는 생활을 본색 그대로 보여주며 문학예술에 고유한 형상적요구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데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림으로서만 생활을 어떻게 그려야 하는가 하는 생활형상의 근본문제를 가장 정당하게 풀수 있으며 생활반영의 진실성과 다양성, 구체성과 생동성, 심오성을 훌륭히 보장할수 있다.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럴데 대한 독창적인 리론을 깊이있게 체득해야 우리 문학은 전형적인 생활을 가장 진실하고 생동하게 더욱 감명깊게 묘사할수 있고 공산주의인간학의 요구를 훌륭히 구현할수 있다.

동맹소식

건설장에 울려퍼진 시인들의 목소리

요즘 온 나라의 관심속에 빠른 속도로 건설되고 있는 대안중기계공장건설장으로 수많은 지원자들이 찾아오고있다.

그들속에는 평안남도 작가동맹의 시인들도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체 인민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제2차7개년 계획을 빛나게 완수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영웅적 기개를 다시한번 온 세상에 시위하여야 할것입니다.》

평안남도의 시인들은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심장에 안고 《100일전투》를 힘있게 벌려 공화국창건 3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기 위해 중기계공장건설에서 새로운 비날론속도, 《대안속도》를 창조하고있는 건설자들앞에서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왔다.

더우기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1978년 6월 7일에 몸소 건설장을 찾으시여 주신 현지교시를 접하자 선동적인 시랑송모임을 조직하였다.

휴식참이나 또는 모임전, 아니면 모임뒤에 로동자들앞에서 시를 읊어주었다.

그들이 쓴 시 《충성의 심장에 받들려》(장준식), 《원대한 구상이 빛발치는 땅이여》(김영남), 《〈대안속도〉를 창조하며 더 높이 날으자》(강학태), 《청년건설자의 마음》(계훈), 《건설장의 전초병 용접공이여》(윤좌근)는 건설자들의 심장을 깊이 울려주었다.

시인들은 벌써 여러 차례의 《시인의 밤》을 조직하고 시랑송을 하였는데 그때마다 이동작가 김옥형의 동요 《불꽃보라 빛나요》가 류다른 감명을 불러일으켰다.

건설장에 울려퍼진 시인들의 목소리는 문학통신원들의 창작적열정도 불러일으켰다.

문학통신원 정천영은 시 《충성의 대하여, 세차게 굽이치라》를, 탁복순은 시 《회답편지》를 써서 시인들과 함께 《시인의 밤》에 읊었다.

그밖에도 작가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곳 건설자들의 로력투쟁을 힘있게 지원하여 새로운 비날론속도, 《대안속도》창조에 큰 도움을 주고있다.

행복의 이슬에 젖어 읊어보는 시

여기에 한편의 서정시가 있다.

창밖에 비 뿌리고 날이 저물면 나도 모르게 이 시를 읽어보며 위대한 수령님을 생각하게 되고 행복한 날이면 행복에 겨워 이 시를 읊어보며 어버이수령님의 그 은정에 눈굽이 젖어움을 금할수 없다.

한번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오고 또 한번 읊으면 충성의 맹세가 불타오르게 하는 시 《창밖에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김석주, 《조선문학》 1978, 2)는 최근에 발표된 시들중에서 가장 인상이 깊은 작품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의 특징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높은 사상예술성에 있습니다.》

시인은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고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과 불타는 지향을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새로운 시적화폭으로 진실하게 노래하였다.

창밖에 비 뿌리고
날이 저무니
가슴 가득 떠오르는
수령님 생각

이렇게 시작되는 시는 그 어떤 군더더기도 미사려구도 없이 정제된 시적감정으로 대번에 우리의 심장을 틀어잡고 숨엄한 사색속에 이끌어들이고있다.

이 시에서 으뜸가는 좋은 점은 밤비를 맞으면서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실 어버이수령님을 《어제도 오늘도 못잊고 낮에도 밤에도 못잊어》하는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을 매우 부드럽우면서도 자연스럽게, 소박하면서도 뜨겁게 노래한 그것이다.

간결하고 송구한 우리 마음 아시고
산촌마을 농민들도 기다린다고
우리야 늘 이런 길을 걷는데
찬비를 맞지 말고 어서 들어들 가라고

보는바와 같이 이 시에는 현란한 문장도 요란한 웨침도 아름다운 걸치레도 없다.

우리가 늘 쓰는 말 그대로 썼다. 그래서 지나치게 생활그대로인듯한 느낌까지 들 정도이다.

색갈도 연하고 유순한것을 좋아하며 무용도 소박하고 우아한것을 즐기는것처럼 우리 인민이 애송하

는 시가 어떤 시인가를 나는 자주 이 서정시를 놓고 생각해보게 된다.

시적매혹이란 결코 붓끝에서 흘러나오는 시인의 그 어떤 《잔재간》에 있는것이 아니다.

무지개가 아름답긴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하는것처럼 시인의 손끝에서 씌여진 시 역시 처음엔 눈길을 끄는것 같지만 두세번 읽어보면 인차 무색해지고 기억속에서 사라지고 만다.

반대로 심장으로 씌여진 시는 읽으면 읽을수록 은근히 시의 품위가 돋우어보이고 뜨거운 포용력과 견인력을 가지고 독자들을 끌어당긴다.

이런 시일수록 작품의 《외모》는 수수하고 소박하나 시의 《내부》는 열렬하고 절절하며 뜻이 깊고 감칠맛이 있다.

시 《창밖에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는 소박하고 절절한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정서와 구미에 맞으며 음미해볼수록 무엇인가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된다.

시적감정도 소박하고 시어들도 소박하며 서정의 빛갈도 맑고 부드럽다.

시가 소박하다는것은 독자들과 인차 친숙해질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된다.

이 시가 소박한 동시에 강렬한 시적열정을 불러 일으키는것은 현실에 대한 시인의 열렬한 시적체험과 관련된다.

날씨가 사나우면 눈비를 맞으시며 걸으실 위대한 수령님을 생각하고 행복에 겨우면 어버이수령님의 로고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이슬에 젖어 그이를 높이 우러러 충성의 맹세를 다지는것은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사상감정이다.

시인은 이 숭고한 사상감정을 절절하게 느끼었을 뿐만아니라 다름아닌 바로 시인자신의 가슴속에도 이런 열화같은 사상감정이 더는 안고 견딜수 없게 분출했기에 거기서 시적충격을 받아 이런 좋은 시를 쓸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아, 찬비속에 안고오신 사랑이여서
받아안은 사랑이 이렇듯 뜨거웁고
찬눈을 맞으시며 안겨주신 행복이여서
누리는 행복이 이렇듯 눈물겨운가

그래서 날이 좋으면
날이 좋아 수령님 생각
행복한 순간이면
행복에 겨워 수령님 생각

이 시가 잘 보여주는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흠모하고 이 세상 끝까지 따르려는 가장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노래하는 작품은 결코 붓끝에서 썩어질수 없으며 또 그 충성심을 그 누가 대신하여 노래부를수 없다.

그러므로 시인 자신이 시인이기전에 먼저 어버이수령님께 충성다하는 혁명전사가 되어야 하며 투사가 되어야 한다.

나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우리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

상이 어려와 행복의 이슬에 젖고 또한 어버이수령님을 무한히 존경하고 따르며 천만년 대를 이어 충성다할 우리 인민의 모습이 안겨와 감격의 이슬에 눈곱이 젖어움을 어찌할수 없다.

행복의 이슬에 젖어 읊어보는 시, 충성의 맹세를 다지게 하는 시, 읽고 읽어도 또 읽고싶은 시- 이런 시가 바로 따로외우고싶은 시이며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시이다. 이런 시를 더 많이 읽고싶다.

윤승홍

충성의 노래 높이 부르며 전진해가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협동농민들은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습니다.**》

오늘의 이 행복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래동안 간고한 투쟁을 하였으며 이 투쟁에서 용감히 싸우다 희생된 혁명선렬들도 적지 않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우리 협동농민들의 생활은 우리 서정시문학의 무궁무진한 원천이다.

들길을 걸어도
산천을 보아도
언제나 목메이는 이 마음
날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오곡을 가꾸가는 이 가슴속엔
자나깨나 못잊을 어버이사랑

못잊을 은혜로운 사랑의 추억만이 깃든 이 땅, 이 세월의 어디라없이 마음을 터놓으며 시작하는 시 《내 자라난 사랑의 품이어》(홍현양, 《조선문학》 1978.2)는 물어들수 없는 절절한 행복의 감정, 함초름히 이슬에 젖어 흐르는듯한 감사의 서정으로 판통되어있다.

이 시는 사회주의제도에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이 땅에 태어나 우리가 안겨자란 은혜로운 그 품의 살뜰함과 귀중함, 그 품속에 누려온 참된 행복의 진가를 깊이 느끼게 해주고 있다.

준엄했던 시련의 그날, 사랑하는 부모는 잃었어도 고아의 설움을 모르고 자란 행복한 우리 세대,

조국이 허리띠 조이던 그때에도 어버이수령님 보내주신 꽃신을 신고 밤나무숲속에서 매미를 쫓으며 가시의 아픔, 눈비의 차거움을 모르고 뛰어놀던 그 산천, 그 들길에 어려있는 사랑의 자욱자욱을 가슴마다 새겨주는 이 시를 읽으며 우리는 뜨거움에 목이 메이는것이다.

수령님 심려속에 보내시던 그날엔
철부지 웃음밖에 알수 없던 이 몸
다 자란 나의 손을 꼭 잡아주시며
수령님 환하게 웃으실 때면
목이 메여 목이 메여 울음을 터쳤구나

이 시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정의 산물이다. 읽으면 읽을수록 뭇친 시구와 시행마다 하나의 종자를 무르익혀가며 독특한 향취를 풍기는 정서, 과연 우리가 안겨자란 그 품은 얼마나 은혜롭고 자애에 넘치는 사랑의 품이었던가.

그 품에서 누구들이 자라났으며 무엇이 꽃피여났는가.

너와 나, 우리모두, 인민이, 조국이 자라났고, 행복이, 락원이 꽃피난 품.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의 그 품에 대한 우리모두의 다함없는 심장의 송가!

그렇다, 우리 언제나 충성의 노래, 높이 높이 부르며 위대한 수령님을 천만년 모시고 따르며 오직 그이께 기쁨만을 드러갈 간절한 결의에 가슴을 불태우고있다.

김영길